朝鮮日報
夕刊
四日(木)
本紙朝夕刊十二面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印刷人 金炯進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株式會社 朝鮮日報社
〈購讀料〉 〈廣告料〉

北中原狀回復을 南京政府서要求
日本飛機不法飛翔等三項目을
日本大使館에抗議

【南京三日發同盟】南京政府外交部는 三日附公文書로써 日本大使館에 左의 三項에關하야 抗議를 提出하얏다

一、外交部는 日本飛行機가 北平、天津、靑島의 各市를 爲始하야 河北、山西、陝西、察哈爾、綏遠、寧夏、甘肅、江蘇等의 各省을 마대로 飛行하는데 對하야 屢屢 그停止를要求하엿스는데 이에 應하지안흘뿐아니라 日本軍은 昨年十一月부터 天津郊外에 於大한 飛行場을 開設하고 다시 今年三月以來 中國地方官憲의 停止를 듯지안코 兵舍建築의工事를 起하얏다 右는 全혀不法行爲이므로 日本政府는 國交를 重히역여 速히天津中國駐屯軍에게 命하야 原狀으로 回復해주기바란다

一、五月二十七日 軍艦栂는 乘員의 南京上陸에 際하야 數十發의 空砲를 發射하엿는데 今後 如斯한것은 禁止해주기 바란다

一、六月一日 南京日本總領事館員이 下關에서 朝鮮人二名을 直接逮捕한것은 違法이다 今後如斯한것은 禁止해주기바란다 (寫眞은張群氏)

天津市長 齊燮元氏로決定?

【天津三日發同盟】市長을 그만둔 蕭振瀛氏는 天津을떠나 北平에居處하기로되고 此에伴한人事異動은 一兩日中에 國民政府行政院으로부터 正式發令이될러인데 後任天津市長은 齊燮元氏로決定될模樣이다

澤田巡閱使마저 米洲領事會議開催

【華盛頓三日發同盟】華盛頓駐箚日本大使 齋藤博氏는 澤田巡閱使가 三日 紐育에 到着하는것을 機會로 五日 華盛頓에서 米洲領事會議를 開催하고 九日까지 四日間에 亘하야 大使司會下에 日米兩國關係에 關하야 全面的檢討를 加하기로 決定하엿다 會議에는 澤田巡閱使 富井桑港總領事、井口市俄古總領事、佐藤紐育總領事、田村로스안젤스駐箚、堀見로스안젤스駐箚、石井방쿠버駐箚、堀口各領事가 出席하고 其他駐英日本大使吉田茂氏도 赴任途中에 討議에 參加할 豫定이다 議題는 發表되지안핫스나

一、日米兩國의 親善强化策 特히 日本東部에 對한 米國人의 認識是正 乃至 促進策

一、日米兩國間의 貿易關係促進策 特히 米國政府의 日本品防壓策에 對한 善後策

一、排日移民法及 第二世敎育問題、在留日本人問題等의 重要項目에 關하야 深刻한 審議가 遂行될 豫定이다

戒嚴部隊一部更迭

【東京電話同盟】三日午後六時半 戒嚴司令部發表 第十四號

一、事件以來 戒嚴警備에 服하고잇든 仙臺 若松 新發田 村松 高田에서 來東中인 第二師團派遣部隊의 主力은 六月五日 原隊所在地에 歸還케함

一、새로 十四師團의 一部는 明四日東京到着하야 戒嚴司令官의 指揮下에 入함

▲戒嚴司令部當局談 第二師團派遣部隊는 오래동안 原隊를떠나 勤務와 租田에 多大한不利를 忍耐하면서 日夜熱誠한 警備勤務에 服하얏는데 無事히 그任務를 마치게되엿슴에 對하여는 그勞를 多하는바이다

庶政一新첫着手 外地長官更迭
朝鮮臺灣南洋等總督及長官
關係方面과協議中

【東京電話同盟】政府는 特別議會도 終了하얏스므로 마츰내 廣田內閣獨自의 新政策具體化에 進出하기로되어 그第一着手의하나로 外地人事刷新을 圖하기爲하야 朝鮮總督、臺灣總督、南洋長官、樺太長官等外地長官의 大異動을 斷行할 意圖下에 모히는 조족 이對策을 協議하야 秘密히 關係方面의 意向을 探聞中이다 即 中川臺灣總督은 齋藤內閣以來 在職 이미 滿四年이되어 人心을 一新하는 意味에 그更迭을 行하려는 것이고 本人도 辭意를 가지고 잇스므로 台灣拓殖會社 設立協議次 七月上旬渡東하는 機會로 正式辭職을表明할것으로보이며 그後任에는 海軍出身者起用說問題가 有力히 傳하고잇다 이와 前後하야 林南洋長官 今村樺太長官의 更迭도 가튼 理由에 依하야 行할것은 確定的이라고 보고잇다

聯盟總會召集에 英政府不反對

【倫敦三日發同盟】聯盟總會召集에 關한 亞爾然丁政府의 通牒을 接受한 理事會議長이든英外相은 三日佛國大使署理·위러氏等을 外務省에 招致하고 總會召集期日에 關하야 協議하엿다 英國政府로서는 總會召集에 반드시 反對는아니나 總會召集에 앞서 各關係國政府間에 外交交涉을 遂하고 미리 總會議題를 決定하야 이를 各國代表가 本國政府와 充分協議할 方針을 確立하기를 希望하고 召集期日은 大體 六月二十九日쯤이 至當하다는 見解라고 傳한다

聯盟總會 二十三日開會

【쥬네브三日發同盟】아브놀事務總長은 亞爾然丁代表로부터 聯盟理事會와 倂行하여 特別總會召集要請을 接受하는同時에 即時 理事會議長 이든外相 總會

朝滿最高會議에 옵저버交換提議

日本內地에잇서 地方長官會議에는 朝鮮에서도 每年二、三道知事를 參列식혀 日本內地의 事情을 朝鮮에도 周知케하는 効果를 收하고잇는데 最近朝滿間의 關係는 特히 緊密의 度를加하게되어 相互그實情을 視察하고 接壤地로서의 提携에 萬全을期하기爲하야 滿洲國政府當局은朝鮮에잇서서 最高會議인 各道知事會議及 警察部長會議에 同國省長及 警務總長을 옵저버로參列케하는同時에 滿洲國省長會議及 警務總長會議에는 朝鮮에서 知事又는 警察部長을 派遣하야 相互 交換參列케하야 朝滿兩者의 現下實際를 認識케할 意向을 가지고 過般總督府로부터 川外事課長이 渡滿하엿슬때 總督府側의 意向을 傳하고 回答을 求한바잇섯다 總督府側에서도 從來日滿相互의 交涉이 朝鮮을 除外한實狀이잇슴으로 此를 是正함에도 자못有意義하다 하야 總督、總監의 歸任을待하야 諾否를 決定하기로 되엿다

"寧粤武力抗爭"은 事實無根한虛說
南京政府當局도否認한다고
駐京中國總領事言明

最近數日來로 南京政府가 西南을 武力으로 討伐하고자한다든가 西南派가 中央에 反抗하야 軍事行動을하랴한다는 報道가 連日 新聞紙上에 傳하고잇는데 對하야 京城駐在中國總領事 范漢生氏는 四日朝 本社記者에게 다음과가티 言明하엿다.

數日來로 同盟通信에 依하야 南京政府와 西南派間에 軍事行動이 開始된것가티 傳하고잇스나 이것은 全혀 虛說인것이 判明되엿다 本總領事는 昨日 南京政府에 電報로 照會한結果 南京政府에서 軍事行動을 이르키지아니한것은 勿論이오 西南에서도 絶對로 反抗態度를 取한일이업다는 回答을 바덧다 이러한 無根之說이 流布되면 人心에 惡影響이 잇슬것이므로 特히 貴紙를 通하야 誤解가 업도록 傳해주기를 바란다。云云 (寫眞은 駐京中華民國 總領事 范漢生氏)

英海軍變更 米政府回答

【華盛頓三日發同盟】國務長官코델、헐氏는 驅逐艦保有와 甲級巡洋艦運用에 關한 英國政府의 要請에對하야 海軍當局의報告書를基礎로 回答案을 作成하야 三日英政府에 發送하얏다 國務省當局은 回答通牒이 英政府에 通達되기까지 內容發表를 避하고 잇는데 大體海軍省當局의見解와 同種의意向을 表明하엿다고解釋되다

一、英政府는 倫敦條約에基하야 保有量을 超過하는 驅逐艦四萬噸과 甲級巡洋艦四隻의 乙級流用을要請하엿는데 米國政府는 原則으로 以上의 英政府의 提言에 異議는업다

一、但 漠然히 現行條約을 事實上 變更하는데는 同意할수업다 英政府는 倫敦條約第二十一條 所謂에스카레터條項을 正式으로 援用하야 保有兵力量의 增加를 圖하지안흐면안될것이다

兩廣前進部隊 湖南省境을突破
主力部隊도續續省境에集結
三日에廣西當局言明

【廣東三日發同盟】兩廣軍은 續續 湖南省에 侵入中인데 前進部隊의 動靜에 關하야 廣西當局은 三日 如左히 말하엿다

一、桂林前線方面으로부터 湖南으로 向하야 行動을起한 廣西第七軍은 이미 省境을突破하야 三日午前 零時 陵城을 占領하고 그先鋒은 湘水로 向하고 湖南中部의 要衝 衡陽에向하야 前進中이나 沿道의 湖南軍部隊는 事前에 撤退되고 아직 戰鬪를 交하지안햇다 主力部隊도 續續 省境을넘어 北進中이다

一、張發奎指揮의 廣東第二軍의一部는 二日夜湖南省境을突破하야 三日未明에 宜章을 占領하고 先驅는 郴州에向해前進中이다

그리고 第四集團軍(廣西軍)參謀長張任民氏의 談에 依하면 南北兩軍의 軍事行動으로보아正面衝突까지에는 아직一週間을要할것으로보인다

바드리오元帥 羅馬에凱旋

【羅馬三日發同盟】東阿遠征에 赫赫한 武勳을빗낸 伊太利遠征軍總司令 바드리오元帥는 三日午前 나폴리에 到着하는 即時로 羅馬에 向하야 午後에 市民歡呼裡에 羅馬에 歸着하엿다 驛頭에는 뭇솔리니首相以下 全閣僚及 首腦部가 一齊히 出迎하고 뭇솔리니首相은 親히 바드리오元帥와 抱擁하야 劇的場面을 展開하엿다 驛前廣場은 凱旋將軍을 歡迎하는 六萬의 群衆으로 立錐의 餘地가업고 各列車는 特히 混雜을避하기爲하야 前後一時間 停車하엿다

西南의强硬態度에 國府對策을考究
武力을避하고政治的解決企圖
南京政府의方針內容

【南京三日發同盟】南京政府는 西南派의 挑戰的態度와 反政府宣言發表等 事態의 重大性에 鑑하야 新聞報道를 禁止하고 事態에 對策을 考究中인데 大體左의 方針을 取할것으로解釋된다

一、西南側의 實力으로는 中央에對하야 武力抗爭은 不可能이다

一、特히 陳濟棠氏의 態度가 曖昧하므로 이를 懷柔하면 廣西派의 孤立에 陷하야 아모것도 안될것이다

一、西南派의 行動은 要求대로妥協條件을 要求하기爲한 魂膽에 不過하다

一、故로 中央은 이제 곳 武力解決의 行動을 避하고 政治折衝으로 解決을圖할것이다 (寫眞은 蔣介石氏)

法制局參事官 새로四名增員

【東京電話同盟】政府는 庶政一新의 公約에 基하야 銳意革新政策樹立에對하야 考究中인데이와 同時에 今般機關의 陣容强化를 企圖하고 當分間 內閣法制局의 人員擴充에 着手하기로되엿다 即現在의 法制局은 八名의 參事官이 中心이되여 擴汎한 各省關係法律制度를 審議하나最近 益益複雜化하여온 各省關係 事務處理하기 爲해서 八名의 參事官으로는 不足을告하는 實情인바 이러한 狀態에處하야 政府가 庶政一新의 內容이될革新政策을 斷行함은 事實上不可能하다 即

一、議會制度의改革

一、選擧法의再改正

一、稅制問題

等問題에對하야 大藏、內務兩省을 法制局에서 審議함에 當하야完璧을 期하기 爲하야는 增員할 必要가 잇슴으로 庶政一新에 對處하야 臨時로 四名의 參事官을 增員하기로되엿다 그리고 參事官에는 少壯有爲의人士를 拔擢할 方針인데 그分擔은 議會制度에二名 選擧法에一名 稅制에一名으로 大體六月中에는議會制度委員會가 開催될豫定임으로 六月에는 右四名의任命도 完了하고 本格的으로 革新政策의立案에 一步 進하게될것이다

吉田駐英大使 방쿠버에到着

【방쿠버二日發同盟】倫敦에向하야 赴任하는途中에잇는 新駐英大使 吉田茂氏는 夫人及令孃을 同伴하고 一日郵船氷川丸으로방쿠버에 到着하엿다 吉田大使는 即時 자판소사에티主催의 歡迎午餐會에 臨하엿다 그리고 同大使一行은 二日外 加奈陀太平洋鐵道로 紐育으로向하야 出發할터이다

庶政一新具體化 內省實現에着手

【東京電話同盟】庶政一新의 具現化에 關하야 廣田首相은 二日定例閣議에서 明年度革新政策의 具體案提出을 各相에게 提言、國策樹立方針을 宣明한後 議會를 通過한法律及 豫算의施行에對하여는 特히 地方長官의 協力을 要望하엿다 內務省에서는 四日午前十時 內相官邸에서 首腦部會議를 開催하고 潮內相으로부터 退職積立金法案 不穩文書取締法 地方財政臨時補給金制에對한 活用方針을 徹底케하는同時에 國民生活에 安定을 目標로하는 左記國策을 具體化하는데 對하야 協議하고 庶政一新의實現에 一步를 踏出하기로되엿다

▲社會的立法
一、國民健康保險法
二、退職積立金補强策인 勞働爭議調停法中改正法律

▲地方財政의整理
一、地方財政調整交付金의 恒久化

▲地方稅制의改革
二、地方稅制의改革

▲地方行政의整理刷新
一、都制의施行

▲治安警察의確立
一、警察網의 擴充及警察行政의 明朗化

▲災害防止
一、地方產業發達의立脚한 土木事業五個年計畫

니카라과에 米巡洋艦派遣
國務當局은否定

【파나마三日發同盟】米國政府는 니카라과 革命騷擾를 重視하고 現在의 險惡한 事態가 다시 繼續되는데잇서서는 居留民 保護의 見地에서 巡洋艦멤피스號(七千五十噸)를 急遽 니카라과에 派遣하기로 決定하얏다고 傳한다 目下 카립비아 海巡洋의 途中에잇는데 그것의파나마寄港을 기다려 出動을 命할것으로 보인다 右에 對하야 國務省當局은 極力 이것을 否定하고 三日 如左히 言明하엿다 政府는 니카라과方面에 軍艦을 派遣할 意思는 全然업다

國民經濟建設委員會設置를 國府全國에指令

【南京四日發同盟】國民政府行政院長蔣介石氏는 그主張인 國民經濟建設運動을 積極化하려고 國民經濟建設委員會를 設置하기로 決定하고 三日夜 全國에 向하야 그指令을 通電하여 各所에 分會設置를 命하엿다 特히 外貨排斥에 關하야 이運動은 絶對로 外國製品을 排斥하는것이 아니오 政府의 眞意는 生產器具、材料에 關해서는 外國品輸入을 크게 歡迎하나 다만 純粹한 消費用品에 關해서는 모름지기 國產品을 使用케하려는 方針이란 旨를 言明하엿다 卽 今回의 指令은 以前의 全面的 外貨排斥에 比하야 異常한 轉換을 示한것이다

國際勞働會議에 伊代表派遣拒否

【쥬네브三日發同盟】伊太利政府는 四日부터 開催될 國際勞働會議에 할데시첸氏를 主席으로 한 代表派遣을 拒否한다는旨를 勞働事務局長에게 通告하얏다 聯盟事務局으로뭇솔리니首相이 突然如斯한態度를 取한것은 亞爾然丁代表의 總會召集要請이 드듸어 具體化하야 二十三日頃 召集될것가튼 形勢가 되엇기때문에 勞働會議不參加로써「重大決意」를 暗示하야 總會召集을 阻止하려는 一種의警告라고 解釋되다 勿論 以上의 事實로 即時 뭇솔리니 首相이 聯盟脫退를 決意하엿다고 보는것은 早計이나 적어도 今後의 情勢의 進展을示唆하는것으로보인다

明年度豫算編成方針

【東京電話同盟】政府는 去五月二十九日의 閣議에서 十二年度豫算編成에 當하야 綜合國策遂行의 見地에서 從來의 各省豫算分捕主義를 廢하고 閣議中心主義에 依하야 重要國策에 關한豫算은 優先的으로 決定하고 方針을 確立하고 二日의 閣議에서 如左한 豫算編成方針을作成하야 三日 各省에 通牒하엿다

閣議決議

昭和十二年度 豫算編成에 當해서는 經費支出을 現內閣이 特히 盡力할 政策實行에集注하기로하고 이를爲하야 大藏省에서는 歲入增加를 圖하고 各省에서는 從來의 歲出에 再檢討를 加하야 節約할수잇는限 緊縮해서增稅를圖하는同時에 從來와가티 各省으로부터直接大藏省에 折衝하지 안코 一旦 閣議에서 先議하야緩急先後를 決定

辭令

【東京電話同盟】
任朝鮮總督府師範學校敎諭(七等) 朝鮮總督府師範學校敎諭 松元義術
同 江原道屬 全在再
任朝鮮總督府郡守(七等) 大竹十郞
總督府內務局長 富永文一
同學務局長 上龍基
同事務官 金大羽
朝鮮總督府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會委員被仰付

人事·集會

▲宇垣總督 溫陽溫泉에서 靜養中이든바 四日午前十時五十五分着列車로歸京하엿다
▲中島司氏(中央朝鮮協會主事)入京人事次來社
▲金秉旭氏(朝鮮總督府中樞院書記官)新任人事次來社

官民大歡迎裡에 에帝倫敦着

【倫敦三日發同盟】에디오피아皇帝하일레·셀라시에一世의御一行을 실은 英國汽船오포-드號는三日午後一時十二分 쌋잡프톤에入港하엿다 御一行은 即時 倫敦으로 向하야 午後四時五十一分 倫敦에 到着하야 이든外相秘書를 爲始하야 多數市民의同情잇는 歡迎을 바덧다

을爲始하야 關係各省에서는 各其立案을 急히하고 잇는바 이것

佛國勞働爭議擴大
卅五萬罷業에參加 二百工場을占據
水道、交通、新聞、食料品等은一切休止
鐵道從業員도參加?

【巴里三日發同盟】金屬工의 罷業에 端을 發한 勞働爭議는 三日에 至하야 全國에 波及하야 巴里市內의 罷業人員은 十萬 全國에서는 無慮 三十五萬을 算하게 되엿는데 特히 金屬工場 百二十工場 其他 合計 二百의 工場은 全혀 罷業團의 占據하는바되고 一部工場幹部는 事實上 工場內에 監禁된 形便이다 罷業範圍는 下水道 上水道 食料品 新聞 印刷 土木 自働車運轉手 瓦斯工 氷配給員 各部門에 及하야 巴里市民은 方今 水飢饉 瓦斯飢饉때문에 日常生活을 脅威밧게되엇다 또 카바레從業員、水泳푸울從業員도 一般罷業에 參加하야 巴里市內도 文字그대로 消火되엇가든 寂寞이다 地方에서는 바르세이유附近工、추루스自動車組立工、오르레앙리-유、루-안、낭트其他各地의 農村勞働者는 一、賃銀引下反對、團體交涉權確立을 要求하고 三日朝來罷業에 參加하엿다 巴里의 광燒工과 鐵道郵便從業員은 明四日 罷業에 參加할것으로보인다 勿論 巴里市內外 特히 所謂赤色工場地帶는 警官이非常警戒에 當하고 地方에서는 憲兵과 協力하야 治安維持에當하고잇기때문에 아직 死傷者는 一名도 내지안햇다 罷業은 다시 擴大惡化될 形勢에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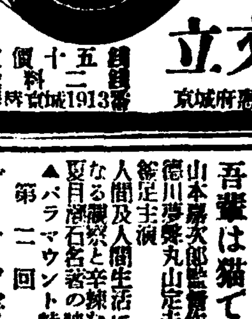
【巴里四日發同盟】勞働爭議는 三日深更에이르러 一般生活必需品에도 波及하야 全市에 牛乳를配給하는 牛乳會社브라첼르파지의 牛乳配達夫가 罷業을 開始하엿슴으로 牛乳配給은 거이不可能하게되엿다 新聞配達夫도 罷業에參加하야 四日附巴里各紙는 市內에는 配達되지못하고 各石油會社도 罷業으로因하야 石油配給機關이 停止되엿다

諸學校官制改正 今日官報로公布

總督府諸學校官制改正은 四日總督府官報로써 公布되엇는데 이는 京城醫專에 書記一名、京城師範에 敎諭三名、京城女子師範에 敎諭四名을 各各 增員하고 全州師範學校新設에 伴하는 校長一名 敎諭十六名、書記二名을 任命한것이다 그리고 全州師範은 明五日 開校될터이다

八面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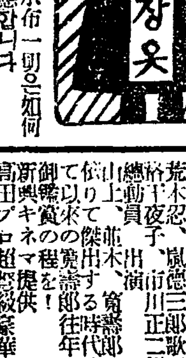
◇『亞爾然丁』이라는나라의代表가 伊太利의暴擧를들어 聯盟에總會召集을要求。
◇나라로는 아이연정· 말만이라도 어른답소。
◇上海와廣東通信은 中央과兩南의葛藤을傳하나、京城駐在總領事는 事實無根을言明。
◇허放送 故意放送 미리放送 짐작放送 逆放送等等이 하도만흔세상이니 귀찬흔노릇。
◇墺地利에도 나치스、匈牙利에도 나치스、獨逸原產種의 移植으로는 너무繁殖。
◇中歐一帶에 퍼진 이種類가 益蟲이냐 害蟲이냐는 보는者의 自由이나 破壞性을가진것만은 注目할일。

朝鮮語綴字器

著 한글업게배우는기계 新刊發賣
立文社 特約店募集 詳細規定照會 京城府惠化町一三九 振替京城1913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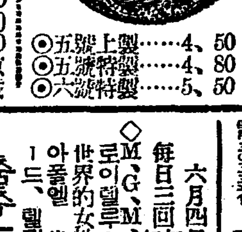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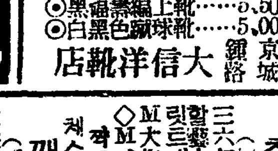
京城鐘路二丁目九番地宋榮秉氏가 慈善한功德心으로 千圓을드려法堂新築을 陰四月八日에 完成하여 ... 으로感謝를 表하나이다 水原郡雨汀面蓬萊寺 住持 林法性白

朝鮮舊文界の新照明!!! 先づ既往の問題を偵察せよ!!!
最近朝鮮舊文問題
定價金八十錢 送料書留十六錢 昭和十二年版
附書部考試驗問題(十年間)
○昭和元年より 昭和十年まで○
全科目問題及試驗規則 志願者手續、心得及 精選好評受驗參考書
京城府永樂町一ノ七九 發兌 朝鮮受驗硏究社 振替京城一〇九〇番

朝鮮官界の登龍門 普文試驗期日八月七日ヨリ京城中學校ニ於テ施行ト決定

雨衣都散賣
여러분의사랑하는子女들의우장옷은다-준비되엿슴니가雨季는일로부터올시다
市內는電話하시면곳配達하옵고地方은代金引換으로發送합니다


雨衣雨覆シート防水布一切의注文에도應합니다 如何한多量의注文 商店配達自轉車用及作業用各種學生男女用紳士用各種レンコート
朝鮮防水布製造所 京城光熙門外新堂町 (定價表進呈) 電話本局②一〇二二番 振替京城五三七八番

蹴球

◎五號上製……4、50
◎五號特製……4、80
◎六號特製……5、50
懸賞提供 (二個年以上保證附)

◎西洋黑編靴短靴…3,80
◎西洋黑강가루短靴4,80
◎黑깃도短靴………6,50
◎黑編靴編上靴……5,50
◎白黑色蹴球靴……5,00
京城鐘路 大信洋靴店

朝報案內
會計 集金係採用 新京大藥品會社에就職希望者 高普卒業程度 京城大學病院前 東邦製藥會社

開業就職 自由
一個月卒業化粧品科、石鹼科責任通信敎授(案內券郵券二錢) 京城府都染町七十四番地 松植化學工業所 振替口座京城一二五〇五三番

桃花劇場 麻浦桃花町 電龍三三番
當る三日短期大公開 (三日間)
第一回午前十一時開始 第二回午後二時廿分 夜間之部午後六時五十分 階上、階下席廿錢均一開放
新興キネマ提供 嵐寬壽郞プロ超努級作
原作、脚色 山上伊太郞 撮影 三浦繁樹 監督 並木鏡太郞
劍鬼三人旅 同時上映
嵐寬壽郞一人二役主演 荒木忍、嵐德三郞、歌川八重子、市川正二郞、外寬プロ總動員出演
山上、並木、寬壽郞の名トリオに依りて傑出する時代映劃、初まつて以來の寬壽郞往年の巨篇是非再御鑑賞の程を!
新興キネマ提供 高田プロ超特級豪華版
原作、脚色 靑島順一郞 撮影 村上德三郞 監督 村上潤
父性愛!裁判劇 感激の人生
高田稔主演 荒木忍、牧英勝、歌川八重子、鈴木勝彥、桂珠子 助演
初春行進曲 全一篇
全發聲映畵 優秀出演
半島の舞姬 崔承喜主演
撮影日數八個月撮影費十數萬圓로 ... 新興名

中央館 永樂町 電本②〇三番
六月四日封切 每日三回 午前十時四〇分 午後一時半六時半
◇M、G、M超特作映畵 로이·델루스 監督
世界的女性탑푸댄서……에리노아·포웰 世界的美男子……로바ー드·텔러 主演
춤추는뿌로드웨이 (Broadway Melody of 1936)
三六年度新興의超近代感覺과驚異的豪華美人들의奇拔춤과노래에 諸君은陶醉하리라 M、G、M의大作은이것!
◇M、G、M超特作映畵 잭크콘외이監督
체스타모리스、캐롤롬바ー드主演
깽의新婦 (The Gay Bride)
金髮美人의一笑에當代戰慄할깽의一團이擧統機彈으로도當해낼수업는女子의武器! 苦戰、謀劃!
◇日活超特作映畵 杉狂兒小杉勇黑田記代主演
人生天氣豫報 岸田國士原作
(大週封切) 洪吉童傳前編、上에서下까지
映畵配給 團成社

若草映畫劇場 電本五一二〇四番
六月四日より
世間を驚倒させた南極記錄映畵 バード少將南極探險
▲パラマウント特作日本語說明版
第二回 吾輩は猫である
夏目漱石名著の映畵化! 人間及人間生活に對する深刻奇特なる觀察と辛辣な皮肉を描く文豪
山本嘉次郞監督作品 德川夢聲 丸山定夫 千葉早智子 藤原釜足主演
▲PCL超特作オールトーキー
世界一の女性タップダンサア エリノアパウエルを迎えてメトロ社が完成した新らしい音樂踊りの
踊るブロードウェイ
メトロ社超大作日本版 ロイデルース監督作品
今週の映畵 花嫁の感情 PCL坊ちゃん 次週封切……バ社 Gウーマン

三銃士
六月五日부터晝夜四日間特別大公開! 料金階上三十錢階下二十錢均一
RKO라지오超特作全發聲日本版
世界大衆文學의霸王아렉산드 듀마原作의 三銃士
劍戟의達人월터·에벨氏主演 劍劇化一閃、奸臣을베히는「三銃士」의 사랑과武士道의빗나는佛蘭西中世의 痛快淋漓의武俠誠忠錄!!

梨泰院 骸骨挾雜事件
府廳內部에 飛火
衛生課雇員朴永郁을拘引
事件은漸次로擴大

리태원 공동묘지(梨泰院共同墓地)간수장 리홍순(李鴻淳)의소위해골 협잡사건에 대하여는 이사건이 적어도 수천, 수만명을 상대로한 수만원사취의 큰 사긔사건이라 리홍순일개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될수업는 일이니만치 부청위생과에잇는 직원과 결탁치안엇나하고 룡산서에서는 이방면에 혐의를두고 엄중히 추궁하는중이라함은 본보에 이미 여러번 특보된바어니와 과연! 지난 사흔날 오후에 이르러 리홍순을 문초하든그서 형사대는 갑자기 긴장되여 경성부로 출동하여가지고 위생과에서 때마춤 일보고 잇는 고원인 시내 동사헌정(東四軒町)사십삼번지박영욱(朴英郁)(四七)을 인치하여다가 성과(成績)사법주임이하 전계원이 협력문초한결과 리홍순과 이번사건에 관련된사실을자백하기에 이르럿스므로 곳 류치시켯다 한다. 박영욱은 함경남도문천군군내면교월리(文川郡郡內面橋越里)이백사십번지 태생으로 십여년전에 서울에올라와 경성부위생과에 근무하여 오든터인데 그가 위생과원이니만치 일상 리태원묘지로 출장을나가서 리홍순과는 친분이 가장 두터운데다가 각금 리홍순과 추축해서 놀러다닌 사실이 빈빈하여 오든터이라한다. 따라서 박영욱의 검속은 정찰에서도 어느 정도까지 확증을 잡은결과로서 이 사람의문초여하에 따라서는 다시 이경성부청을 둘러싸고 불똥이 사면으로 날를모양가래서 이제부터야말로 해골사건은 본무대로의 진전을 보게되엿다한다.

벼루돌한개미천삼어
萬五千圓을騙取
有名無名의人士가總登場한
本町署詐欺事件送局

삼개월전부터 본정서(本町署)에서 계속취조중이든 유서(由緖)엇는 벼루돌이라하고 다액의금품을 사취한 소위 룡현사건(龍硯事件)은 당시보도한 바어니와 사얼 그취조도 일단락을 지어 일건서류와함께 사긔, 사긔봉조 사문서위조등의 죄명으로 경성지방법원검사국(京城地方法院檢事局)으로 송국되엿는데 송국된 사람의 씨명은다음과갓다

▲본적(本籍) 경북고령군우곡면(慶北高靈郡牛谷面)현주소관철정(貫鐵町)일백륙십칠번지조선여관전과삼범 홍재영(洪在榮)(四八)
▲시내 사간정(司諫町)팔십팔번지 전과이범 우상현(禹象鉉)(五〇)
▲광희정(光熙町)일정목일백사십아번지 조시언(趙時彦)(四三)
▲황금정(黃金町)사정목일백칠십칠번지 리중희(李重熙)(四六)
▲계동정(桂洞町)일백이십일번지 윤익헌(尹益憲)(三一)
▲명치정(明治町)이정목사십팔번지 광내원팔(廣內源八)(四九)
▲본정(本町)사정목사십륙번지 상원강웅(桑原康雄)(四九)

척지능사긔사건의 내용을 들으면 전긔홍재영은 일족 부자집 맛아들로 태여나 남부럽지 안흔 생활을하든중 주색마가 되여 가산도거이 탕진하고 형무소 출입을 재삼하는사이에 그의 범죄적 두뇌가 발달되여소화팔년마지막 형을맛치고 나온후 다닥친 생활난에 아름답지 못한 홍계를꾸며선조대대로 나려오는 약백원가량 밧게 안가는 버루돌이 한개가자기집에 잇는 것을 밋기삼어 큰고기를 잡으려고전기 우상현(禹象鉉)과 서로 친교를 맺저 결탁한후 이버루돌은 사내(寺內)총독이 오십만원을 밧고팔라는것을 안파랏다든가 혹은 고재등실(故齋藤實)자작과 전농림차관 수옥영부(前農林次官 守屋榮夫)씨의소개로 동경에 유력한 매주가잇서 현재삼십만원가격이 간다는등 엉터리업는말로 여러사람을 속여 삼청정(三淸町)일백십구번지 리소순(李召順)에게서 사백원 창신정(昌信町)사십칠번지리의(李宜)게서 삼백오십원 전광내(廣內)에게서 사백원 돈의정(敦義町)팔십일번지 신홍근(沈弘根)게서 삼천사백원 현재동경풍다마(豊多摩)형무소에 재감중인 청목덕삼랑(靑木德三郞)에게서 도합구천여원을 만일성공한때에는 보수로삼할을 준다는조건으로 도동(渡東)비용의 명목으로 홍태영외일파가 사오차도동하야 운동하엿스나 원래 약백원가치만 안가는것이라 동경사람들은 모다 거절하는등의 곡절이잇는사이에 그들 사이에도 서로 배반자가생겨 서로 그버루돌로 협잡하여먹어든이라 하는데 이백원자리버루돌 한대로말미암은 피해액이 일만사오천원이라하는데 그돈의대부분이 홍재영외 몇사람의 유흥비로소비되엿다 하는데 조선사람과 일본내지사람 탑체의 대사긔극일막은 이로써대단원을지엇다 한다

高壓線殺人!
電燈불곳치러올러갓다兩名即死
府內上道町의慘變

과학의 지식이업는 사람은 뜻박의죽엄을하게되다 삼일밤 여덜시쯤에 부내상도정(上道町)사는 리병학(李秉學)(二二)과 김상윤(金相允)(二二)두명은 고압선(高壓線)전긔에 감전(感電)되야 즉사하엿다 그리고 리병학의 동생도 감전하엿스나 그는 생명은 무사하다한다 그날밤에 그동리 다른집에는 모다 전등이 켜젓스나 리병학의집에만 전등이 꺼저잇스므로 전긔불을 드려오게하기위하야 리병학은 『라디오』에쓰는 전선(電線)을 가지고 전주(電柱)에 올라가서 고치려다가 고압선에 부다치여즉사되고 그전선의 한쪽끗을가지고 평지에서서잇든 김상윤도감전하야 즉사한것인데 동생은 김상윤이가 별안간에땅바닥에 너머지는것을 보고 달려가서 붓드러 이르키려다가그도 역시감전하엿스나 그는 생명에는 무관하게되것이라한다

大邱聯隊에脫走兵

【大邱】이일오전 열한시쯤 대구팔십련대제오중대(大邱八十聯隊第五中隊)는 주간연습차로 대구부내로 드러오는도중 초병대의보리고지현(高知縣)아도모두(?)이(二三)가 돌연히 종적을 감추어 버렷다한다 이러데에서는 곳대구헌병대와 대구경찰서에 알리여 합동하야 행방을엄탐중이라한다 금번에잇서 팔십련대로 부터 탈영병은 이번재네명이라한다

朝鮮古代文化의精髓
"新羅""初期"의"寶物"
曲玉、金耳環、金環、石玉等高價値의珍品
慶南昌原서發掘

總督府博物館保管

지금으로부터 일천오백년전인 신라(新羅)조긔의 찬란한 문화를 사랑하는 보물이 경상남도 창원군 동면다호리(昌原郡東面茶戶里)의 밧가운데서 발굴되엿다 발굴된 종류는 네가지인데 곡옥(曲玉)네개를 비롯하야 순금제 귀거리(純金製耳環)한쌍 순금제 금환(金環)세개 자감색(紫紺色)석옥십개등 시가 약 일만원어치를 발굴한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전긔 발굴장소에 거주하는 안순봉(安順鳳)이외 네명이 작년 시월초에 발굴하야가지고 잇든것을 부산(釜山)지방법원 검사국에서 압수하야 총독부 법무국장에게 보내왓다 그리하야 법무국에서는 다시 이것을 학무국사회과로 인계하야 국유보물로 총독부박물관에 보관하게되엇다 그리고 전긔네가지는 형태가 전부완전한대로 남어잇슬뿐아니라 상당히 고귀한사람의 고분(古墳)에서 발굴된것으로 보임으로 총독부에서 자세한 조사를 할터이라는데 곡옥이나 금환이 다 오늘날 발굴된 공예품보다 못하지 아늘만한 훌륭한 세공품(細工品)이라 한다

汚物掃除令發布
十七府適用을原則으로하야
府와義務者와의處分限界를明示

조선내의 부제실시의 대도시에오물소제령(汚物掃除令)을 실시하게되야 오일부로 제령제팔호로발포되엿는데 오물소제법에의하야 실시하게되엿다 즉그내용을보면

一、부내의 토지소유자사용자등은 그지역의 오물을 소제하야 청결을보지할 의무를지고 또부는 본령에의하야 그구역내의 오물을 소제하여 청결을 보지할 의무가잇는동시에 의무자가 모흔오물을 처분할 의무가잇다

二、오물처리때문에 생긴수입은 부의 소득이되는데 부는오물처리에관하야 일정한 수수료또는사용료를 의무자로부터 징수할수잇다

三、부에서는 오물소제의감독을위하야 리원(吏員)을둔다

四、부에서는의무자가 이명령을리행치안흘때에는 리행긔간을정하야계고(戒告)하고 아직도 리행치안는때에는 부에서 이것을 시행하고 그비용을부세의례에의하야 의무자로부터징수할수가잇다

五、이법령은 오즉부에만 실시할목적으로제정한것이지만 도지사는읍의 구역의 전부또는일부를 지정하야 이법령을준용할수가잇다

찻든犯人은 刑務所에잇소

삼년동안이나 힘것찻든 강도범인은 결국 형무소안에 드러가서 잇는것을 발견하엿다 평북경찰부로부터 사일에 경기도경찰부로 강도범인의 잇는데를알앗스나 차출될요가 업다는 기별이 왓다

그강도라는것은 소화구년팔월에 평북선천(宣川)에서 발생한 강도사건의 범인 박성근(朴成根)으로 그당시밀에 평북경찰부에서는 조선안 각지경찰부로 붓잡아달라는 기별을하고 여태까지 사방으로 수사하든중인데 수일전에 비로소 그강도범인은 절도죄(竊盜罪)로 신의주형무소(新義州刑務所)에 드러가서 잇는것을 알게되엿다한다 그래서 그를 문조해본결과그 범행사실을 전부자백하엿다

옹졸한女子의 標本=(自殺未遂)=

마음이약한 녀자의 표본=부내신설정(新設町)사백팔번지 문긔원(文基元)의동생 순희(順姬)(二一)는 이혼당한것을 비관하야 꾸지람을 듯고 하로밤 홀일 자지도안코 생각다못해죽을결심하고 사흘날아츰녀섯시쯤되여 양재스를 먹고고민하는것을 집안사람이 알고 곳 부니병원에 데려가 응급치료중이라하며 생명이위독하다고한다

普成高普의慶事
二階建大講堂을建築
南北에서모힌八百餘人士의 寄附金으로不遠着工

시내혜화정(惠化町)에잇는 보성고등보통학교(普成高普)에서는일즉부터 완전한설비를가진 강당이업는것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지난소화구년 봄부터 비 이만오천원을 전조선인사의 지성에호소하야 모집중이든바지난오월말일에 전긔긔부 허가기한(寄附許可期限)이끗나는동시에 결산을맛친결과 응모자는남북에서 팔백륙십사인이란 다수이며 신입금액은 이만칠천륙백륙십구원으로 현금으로 수입된것만도 모집비용제하고 일만팔천륙백구십칠원칠십칠전이란조고한다 혼성적으로 학교당국자는 여긔에 크게힘을어더 학교뒤에잇는 국유림칠천여평의불하(拂下)를신청중이든바 이것도 요사히정식으로 허가되리라하며 이것이결정되는대로 곳천여명의 수용능력이잇는 벽돌이층의대강당 건축에 착수하리라하며 이층은강당으로 아래층은 물리화학실(物理化學室)등의 특별교실(特別教室)로 할예정이라하니 이것이완성되는날에는 우리 중등교육긔관의 한이채가 될것으로 지금부터 만흔긔대를 가지고잇다고한다.

水王産婦人科

築港埠頭에
同性愛情死(未遂)

【仁川】『인테리』녀성이 동성애로써 정사하랴는사건=지난이일밤십이시경에 녀학생가튼 두녀성이 보름달밋헤 축항갑문(閘門)압잔교(棧橋)부근에서 서로손목을잡아매고 세상이 귀치안타는듯이 바다를향하고 빠지고말엇다 때마침조기를만재하고 입항하든 윤모(尹某)가 이를발견하고 구조한것이며 시내천구(川口)병원에서 응급치료를하야 생명을거저서 그의본적지인개성(開城)으로보내엿다한다 이에그들의자세한내용을조사하건대 그들은 금년봄 개성모녀자고보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개성부 북본정(北本町)모부호의령양(令孃) 조정숙(趙貞淑)(二○)과리옥희(李玉姬)(二○)以上假名으로서 그들은 학교를마치고 더욱 해외(海外)유학에뜻하엿스나 완고한 그의부모들이 이를허락치안허 극도로 비관한듯헤 극진히 사랑하는 두녀가 서로 동정하야 죽기를 언약하고 황해(黃海)바다를 차저왓섯든것이라고한다

長城對岸에
土兵團
民家二戶에放火

삼일아츰 열시쯤되여 중강서장성출장소(中江署長城出張所)대안 즙안현동호툰(輯安縣東豪屯)에게 토모들 마적약륙십명이 래습하여 그중일대는 강가에나와조선안으로 총질을하엿기때문에 전긔 장성출장소에서는 길전순사(吉田巡査)이하 수명이 출동한때문에 마적들은 만주사람집두채를 태우고도망하엿다

鐵道局뽀너스
總額九十萬圓

들기만하여도 구미 도는!!뉴―쓰!!―철도국(鐵道局)에서 이번 상반긔(上半期)에 국원들에게내여줄!!뽀―너쓰!!는 총액구십만원이나되며 오는십오일 정식으로 발령되는대로 내여주기로되여잇스며 이번은 착년동긔에비하야 총액으로는 부릿으나 종사원이 이천명이늘어 전부로일만구천명에달하고잇으니 전체적으로보아서는 얼마도부른것이아니라고한다

緖方巡査는死亡

지난달이십팔일 평북대안 관전현저자구(寬甸縣礤子溝)에서 토병단과 싸우다가 압록강에서 행방불명이된 초산서 내연주재소(楚山署內淵駐在所)저방순사(緖方巡査)는 아즉나타나지 안엇슴으로 사망으로 결정되엿다고한다

◇寫眞說明 上은 故國에서의 最終練習…南大門을 出發하는 올림픽마라손選手(右로부터南昇龍、孫基禎、左藤コーチ、鈴木諸選手)下는 本社來訪한兩選手(右는 南昇龍君、左는 孫基禎君、後는 本社運動部記者高鳳梧君)

마지막내땅에달리는
南、孫兩戰士의鐵脚
四日午前에市內一週의가벼운練習
本社方社長의懇曲한激勵辭와禮物

우리스포―츠사상에 한페이지를 찬연히 장식할 마라손의 두전사 손기정(孫基禎)남승룡(南昇龍)군이 백림에 원정하는 도중 작삼일에 재경각체육단체며 일반스포―츠팬들의 열광적환영리에 입경하야 정양의 하로밤을 지나고 금사일오전열한시부터 남대문(南大門)을 출발하야 경쾌한 보조로 태평통…황금정 경성운동장…동소문…총독부압…광화문통을거처서 시내를일주하야 약이십오분의 가벼운연습을 마치니 이것이곳 세계재패의장도에 오르든 고국에서의 최후의 연습이다

손、남량군은 연습이 끗나자 곳 본사를 방문하엿는데 본사사장 방응모(方應謨)씨로부터 모처럼 바뿐원정의길에 서울에 하차하야 여러가지로부담하실터인데 이처럼 차저주서서 더욱반갑습니다 국제무대에 나아가는 량군은 다잘아시는바와가티 어찌되엿든지 온세계에 우리의 사려잇는 용맹과 의기를 널리선양하야 젊은조선의존재를 스포―츠를 통해서나마 깁히인식케해주기를 바랍니다 라는 격려사(激勵辭)가 잇슨후 량군의 전도를 성원하며 축복하는 의미에서 본사사장으로부터 량군에게 각각례물을 증정하엿다

=滯=京=日=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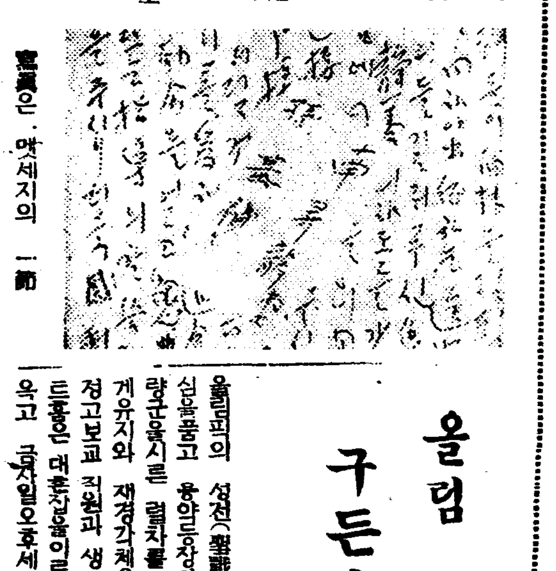
남、손량선수는 작삼일 오후세시반에 입경하야 역전대총려관(大塚旅館)에서 려장을풀고 동오후네시부터 양정고보강당에서 열린 영송격려회에림하얏다가 동오후일곱시부터 조선호텔에서 열린 양정고보초대회에 참여한후 동열시반에 취침하엿는데 종일토록 방문객이 살도하야 바뿐몸이 더한층 분망하여보엿다 사일 오전일곱시에 기침하야 동열시경각에 경련습을행하고 동열한시반에 본사를 내방한후 오날 오후세시삼십분 경성역발『노조미』로출발하엿다

朝鮮男兒의意氣를뽐내리라!

우리들이 伯林올림픽을 向하야 出征하는途中 우리를 길러주신 鄕土에서 靜養의하로를갓게됨에 同胞들의 間接直接으로 기우려주신聲援은 이우에업는 큰힘이될것으로 밋습니다 우리들을위한 歡迎會며 激勵會를열고 그懇切하신 激勵 또는 指導의말슴과 禮物을주시니 더욱感謝합니다 그뜨거운聲援을 힘입어 朝鮮男兒의意氣와 힘을뽐내여 우리의存在를 널리中外에 宣揚코저하옵니다 故國을 떠나 風雲실은 戰地獨逸로 向함에際하야 賣報를通하야 海內海外에게신 여러분에게 感謝의뜻을表하는同時에 여러분의 期待에저바림이업기를 期하고 最後一瞬까지 奮鬪하려하옵니다 우리는 지금 伯林올림픽戰地로 떠납니다 여러분安寧히게시오

一九三六年六月四日
南昇龍
孫基禎 拜上
朝鮮日報社 貴中

두戰士의멧세―지



寫眞은 멧세지의 一節

올림聖戰에
구든決心품고…
四日午後一路伯林에

올림픽의 성전(聖戰)에 구든결심을품고 용약등장하는 손、남량군을실은 렬차를 전송코저각계유지와 재경각체육단체또는양정고보교 직원과 생도들로 풀래드홈은 대혼잡을이룬가운데 이옥고 금사일오후세시 삼십분헙차고도 일면비장한기적일성을남기고 두전사를실은 렬차는북으로!북으로!달리고잇섯다 량군은 출발에제하야 긔자에게 미리부터 준비해두엇든다음과가튼 멧세지를 수교하얏다

天氣予報

槪況 七四○미리의 低氣壓은 滿洲에잇스며 七四八미리의 低氣壓은 日本海와 本州中部의海上에잇서 모다東進中이다 高氣壓은 中國揚子江流域에 七五○미리와 沖繩諸島의 海上에는 七五六미리를보이고잇다 北滿州는 흑시降雨가잇슬런지 몰으겟다 南滿州부터 朝鮮은 개이며 南朝鮮과 日本內地는 흐리다

豫報 오늘밤 京城地方은 개엿다흐렷다하다 明日도갓흐며 京畿道全區도갓다

昨日最高 二一度四
同最低 一四度四
今朝最低 一○度四
今日正午 二○度二

本社見學

六月四日 黃海道延安 金剛山探勝團一行二十七名 引率者宋善日氏

運動競技

東京遠征中의 力士凱旋
多數人士出迎裡

지난 三十一日 東京體操聯盟主催로 日本에서 最初로 열린全日本重量揚(力技)選手權大會에出戰하야 그곳의 强豪들을 손쉽게 물리치고 榮譽의優勝權을獲得한 經體協의 金容星(中央體硏)君과 中體協의 金晟集(徽文高普)南君은 四日午後三時二十分京城驛着列車로 元氣旺盛한가운데 凱旋하엿는데 驛頭에는 徽文高普關係者들과 體育關係者들의 熱烈한 迎接이 잇섯다

京畿女子陸上

京畿道陸協主催의 第二回京畿道內女子中等陸上競技大會는 六月廿七日午前十一時부터 京城運動場에서擧行할터이라는데 參加希望校는 十五日까지 京畿道地方課內 同協會로 申請하기를바란다고한다

イカリ ソース
大奉仕特賣
御愛用家景品附
今期間中
이까리소―쓰
二合甁한개를사시는분마다
實用 유리 小皿
한個式빠짐업시進呈
速히下命하시옵기를!

登錄商標
거북선
고무신은 거북선
京城東大門外서울고무工社 電光 一一五九

문둥병
의人에告함 血統遺傳、傳染을바더重症及慢性된분도繁當에寶驗効能本位의家傳藥잇스니切手封入申込하라 藥價多服用感謝狀添付進呈
大阪市新川三丁目 大福堂

急告
義城郡義城面帳竹洞六五○番地 合資會社共益社의 商品及一切財産(債權債務含)並 營業場所를 金利變金商振의게 賣却하고同社의 解散手續及淸算키爲하야 其事務所를 義城郡義城面中里洞七九一番地에 移轉하엿기 茲以廣告함
昭和十一年五月三十一日
合資會社 共益社 白

◎失職은技術家에업다
◇本校는實地로有用한技術家를養成할目的、學力年齡을不問하고臨時로入學許可함靑人은널리一技를배워서獨立生活의安定을得하라
◎本科三個月卒業
◎創立明治四十四年(就職紹介、學則送付)
◎校外課通信講義錄도發行함
◎東京品川驛前二 公認東京寫眞學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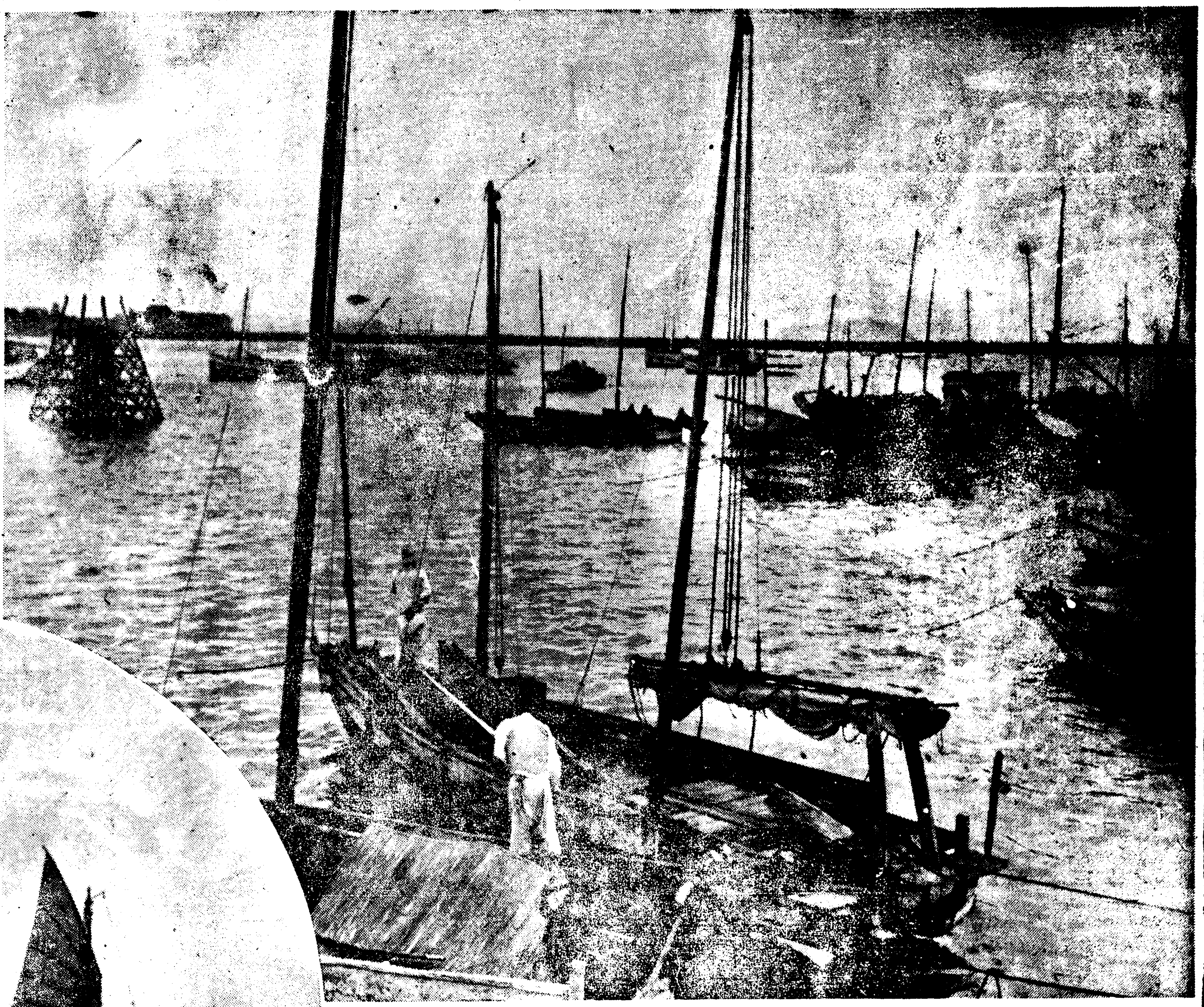
不老長壽 强精回春 東少幸藥
百補丸
京城堅志町 一劑十円 平和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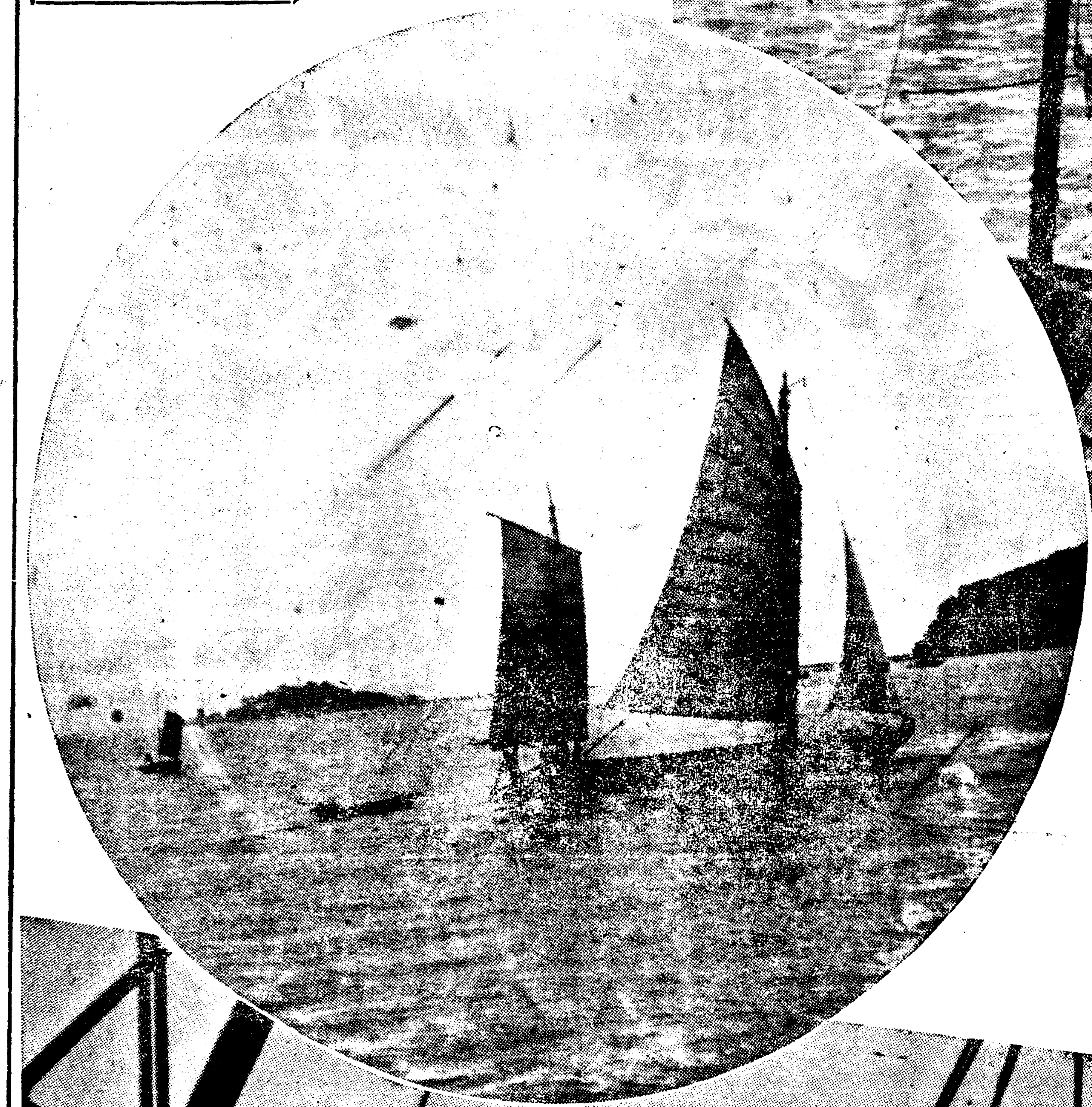
六月五日부터晝夜
高協座離京(終週)公演
다시地方으로巡業의길을떠나는 高協座가박치는告別特別公演이니보시라 括目할超特別藝題!
南宮春編
一、流線型『春香傳』三幕九場
超모던春香傳으로脚色의妙와울너이아말로珍無類의春香傳으로이 꿈도꾸어보지못한一九三六年型春香傳으로큰센세이숀을일으키고야말것이다
主演 金小島、李正順、南宮雲、許美羅、金元浩、崔英善、金鐵、孫一平、尹炳春、金小眞、金健
二、新版薔花紅蓮傳三幕五場
薔花紅蓮의決定的으로써새로운면버아래上演될이演劇이아말로愛劇家의눈물과한숨을자아낼것이다
主演 尹才童、石臥佛、李素希、龍玉子、宋門平、尹順善、金牧音、太乙民
西大門町 電光3 三吾 東洋劇場

創立明治參拾貳年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
株式會社 朝鮮商業銀行
頭取 朴榮喆
專務取締役 堀正一
支店 京城南大門、同鍾路、同東大門、同本町二丁目、同本町四丁目、龍山、仁川、平澤、利川、淸州、群山、全州、裡里、長興、康津、統營、馬山、鎭海、釜山本町、同牧ノ島、同富平町、同榮町
出張所 蔚山、方魚津、元山、永興、咸興、端川、淸津、羅南、會寧、沙里院、信川、新義州、定州、平壤、同大同門、鎭南浦、載寧

クスリで面白い金儲け
思ふ薬が自由に出せる
男女誰でも本校講義錄を自宅で學び製藥者の資格を取れば藥劑師と同樣どんな藥でも自分で造つて賣出せる。ハダカ一貫の無資本で職によく、本業に片手間に出來ます。又青少年の立身成功の近路である。一般家庭の內に
東京市芝區新橋六の四八
ハガキで申込次第詳細案內書を無代で進呈す
日本通信製藥士學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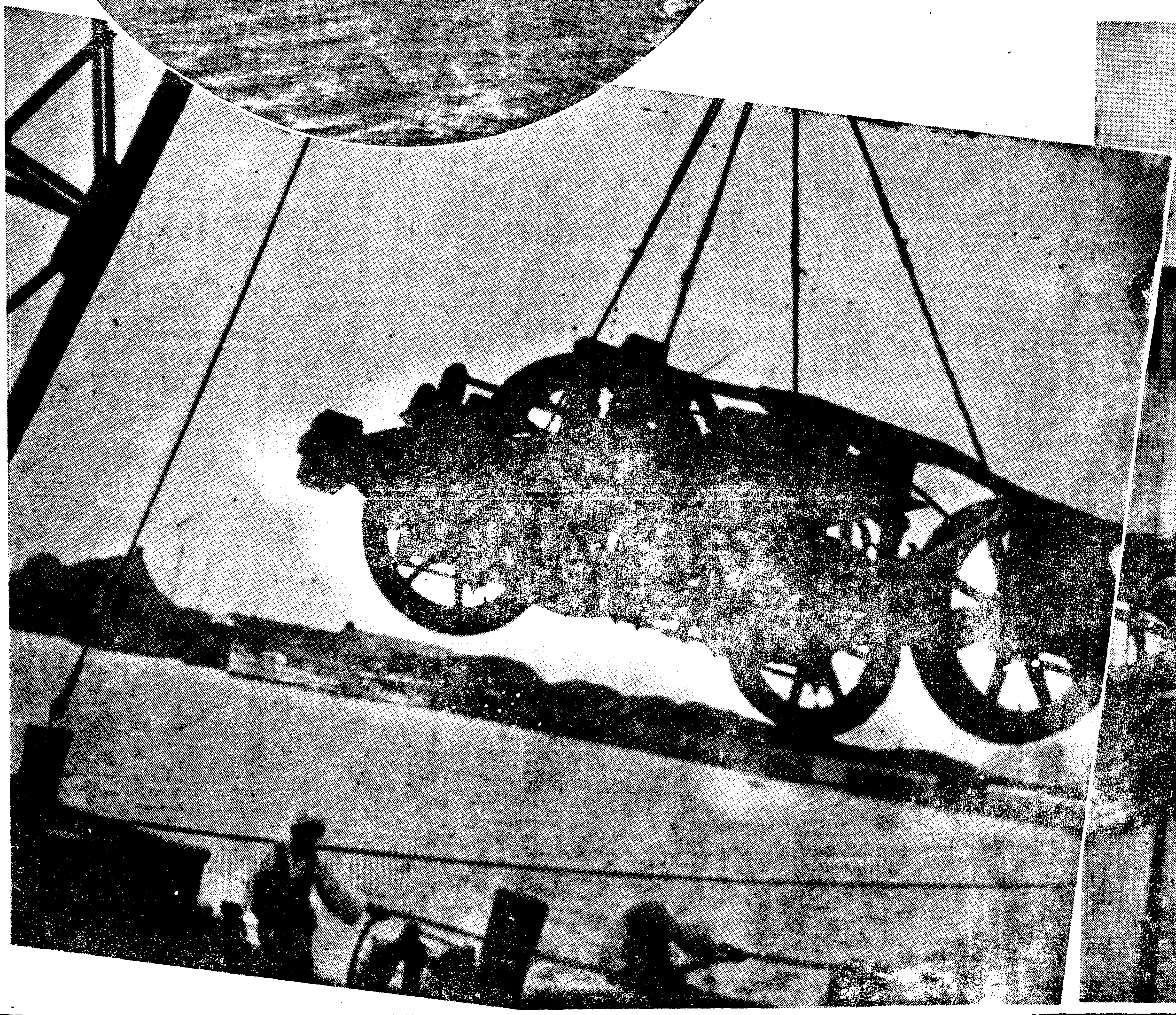
바다 배 사람





水鄕의여름情趣!

손질해부르는 "바다"의誘惑



그리워진물빛

부지런손친절! 들어다주마하고 어대로빵손이처

눈감으면코베먹는이세상 길나선안악네주의

여기는 시골서 올라오는기차안인데 옷도 양전히 차리고 짐도 두어짝이나 가진 어떤 안악네하나와 젊은 친구 하나가 서로 주거니 밧거니 이야기를 하고 잇습니다. 이야기의 내용으로 보면 그들의 사이가 초면임에 틀림이 업스되 그 청년이 어찌 친절하게 구는지 마치 모자간이나 내외간과 가터 보입니다. 긔차가 경성역에 닷자 그 청년은 그 안악네의 양피가방을 대신들고 안악네의 뒤를 따라 나섯습니다. 자긔가 들기에 무거운짐을 대신들어 주는데 그저고마운 생각뿐이라 아모ㅅ소리 안코 구름다리를 지나 표를 주고 역바그로 나왓습니다. 그런데어찌엇읍니까? 그 청년은 고만 가방을 들고 어대로 빵손이를 치지 안햇겟습니까 이것은 지어 낸 이야기가아니라 지난 그뭄날 오후야흡시오십분에 사실로 일어난이약입니다. 닷새가 지나지 못하야 그자는경찰서에 붓들렷습니다마는 벌서 가방ㅅ속은 랑비어버리엇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단순히 이번뿐이 아니요 거의 항다반으로 잇는 일입니다. 간교한 좀도적들은 어리무던한안악네를 노리고 잇다가 긔회가 잇는대로 속이어 먹습니다. 그까지 가방 하나쯤은 그다지 대사도 아닙니다 심지어 계산까지 틀리고 몸까지 망치는 수도 업지를 안한것입니다. 물론 나쁜긔야 속이는자가 나쁘지오만은 나쁘다는 그말만으로야 무슨 소용이 잇습니까? 속는 당자로 논지한다면 그저 속지 안는 것이 장사가 아니겟습니까? 또 그뒤 그자가 잡히어서 고생을 한다기로니 업샐 것 다 업새고 망한것 다 망하고 무엇에 쓰겟습니까? 그말이 그말이지오만은 그저 속지 안는 것이 상책이 아니겟습니까? 속지 안키가 그다지 힘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몃가지만 주의하시면 훌륭하게 될수 잇습니다.

(一) 깨지에 나서서 서름서름한 사람을 만나거든 모다 의심스럽다고만 생각해 두십시요

(二) 섯사 촌지촌에 누구누구를 대어가면서 친분관계를 찻더라도 아조 분명치 안한

(三) 그중에서도 까닭업시 친절하고 정답게 구는 자는 반듯이 수상한점이 잇습니다 그런자는 특별히 주의하서야 됩니다.

(四) 그뿐이 아니라 감직불건이나 돈가튼것을 가지고다니실때는 될수잇는대까지 그런 내색을 보이여서는 안됩니다. 재물뒤에 못된 눈이쫏차 다닌다는것을 늘 잇지마서야 합니다.

(五) 짐가튼것도 공으로 남의 힘을 비는것보담은 돈멧십전쯤 업새고 「아까보」가튼데맛기는 것이조치 안켓습니까?

(六) 정히 남의 힘을 빌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람의행동을 충분히 감시라도 하여야 할것이 아닙니까?

(七) 그런 짐은 오히려 여차요 길을 인도한다하고 못된데로 끌고 들어가지 말란법도 업습니다. 차라리 미듬직한 떠데가서 길을 물어가지고 타거나 가거나 혼자가는 만고 갓지 못 합니다.

그러니까 남들 믿는것이 반드시 나쁜일은아니지마는 세상이 이전과 달러진만큼 혈마사람을못믿으랴고 하지만말고미리조심을하는것이 좃습니다

노곤한초여름에 잠만히주무시오

전등불끄신뒤에 춥도덥도안토록

요사이는 무엇보담도 잠을 충분히 자지아니하면 안됩니다, 흔히 복잡이 달다고 하지마는 그것과는 다른의미로서 요사이 초여름에 잠을 잘자는것은 건강상으로 매우 필요한것입니다 그런데 대체로보면 초여름은 일년중에도 제일 잠을 잘잘수 잇는때입니다, 왜그러냐하면 사람의 체온과 날세의 긔온이서로 비슷하고 습긔도 별로업서 호흡하기가 매우 편한것과 체내의 활동이 왕성해진때문에 피로하고 또는「하이킹」이나산시보가튼 외출하는 긔회가 만흔때문에 몸이피곤하야서 잠을잘수가잇습니다, 그리고사람의피곤한것을 회복하는데는 잠보다 더나흔것이 업는만큼 이것은생리적으로어려나는 한개의필연적욕구이라고할수잇겟습니다,

그런데 잠을자는데는 바로자는것과 바로자지못하는것이 잇는데 첫재잘때는 몸이편하게바로누어서 안면을방해하는모든외부의자극을 피하지아니하여서는 안되겟습니다, 그럼으로 이것을조목을드러말씀하면

(1) 침실은 될수잇는대로고요한데를골라서소음이 들리지안토록할일

(2) 눈을 자극하는 광선을피할것이니 전등은 끄거나 푸른빗나는 「카바」를 씌워서족접쏘이는 광선에 닷지안토록할일

(3) 강렬한 냄새가나는 향수나 비누가튼것을 잘자는 머리맛헤 두지말일

(4) 잘때에는 「커피」나 홍차가튼 자극성잇는것은 먹지말일

(5) 요, 이불가튼것은 넘우덥게도말고 넘우춥게도 하지말며 버개를 노피하고잘일

여름에임신한분 주의하실것

첫재마음을안정합시요 팔개월되거든부부각거

애기를 처음배어본분은 임신이나 출산이니 하는말만드러도 무슨이상이나 안생길까하고 공연히 겁을먹는수가 만습니다마는 평소에 몸에 이상이업도록 주의하는것은 조흐나 주의를너머서 공연한걱정을 작구하야 정신을 불안하게하는것은 자미업는 노릇입니다 부인에게잇서서 월경이라는것이 생리적이요 결코 병ㅅ적이아닌거와가티 임신을 하야 애기를 밴다는것도 생리적이요 병ㅅ적이아닌 자연스러운일입니다 그럼으로 몸이 평소에 건강하고 주위의상황이 례사라면 누구나 다 안산(安産)을기필할수잇는것입니다

◇

처음으로 임신을 경험하는분은 월경이 뚝그치고 몸이 이상스러운하거든 쓸데업는 헛걱정을 말고 제일먼저 전문 의사에게 임신이되고 안된것을 뭇는외에 몸에달리 병이잇나 업나 측신장, 심장, 결핵등의 병이 잇나업나 그리고 끌반(骨盤)이좁은지, 안좁은지를 진찰밧고 진찰바든결과 끌반에 별이상이업고 몸에별병이업스면 일상생활에잇서서 무리만업스면 순산은 문제업습니다

◇

만약 끌반이좁다거나 달리병이잇다거나 할지라도 너무황겁해서 임신중절(姙娠中絶)을식히느니마느니 하지말고 미듬만한 전문가에게 맷기면 적당한처치를 취해줍니다 그리고 해산할때에 원만한 이상이 잇슬지라도 산모가 불행한 일이잇거나 하는일이 극히 드뭅니다 그럼으로 해산할때 공연한 신경질이 되어「죽엄」을 연상하는것가튼것은 아주 자미업는 일입니다

◇

입덧이란 임신한 부인에게 의레히 따르는것인데 건강이나 체질여하를 불구하고 입덧안나는분이 거이업고 임신이삼개월에 가장 심하나 그후로 차차 덜해가는것입니다 악성의입덧이 아니라면 사오일가량 먹지를못한다고해서 몹시 걱정할것 아닙니다 임신중의 부종은 전신으로 오는경우에 물론 의사의 진찰이 필요하지만 임신 오륙개월되어발이 약간 부은듯한쯤 결코 걱정할것이 아니요 정 걱정이되면 소변검사를 해봄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임신중의 출혈 엇던때를 물론하고 주의해야할것이고 임신팔개월이후는 내외분이 각거하서야됩니다

◇

여름에 임신한분으로 매우곤난한것은 음식입니다 날이더울수록 보통사람도 식욕이업슬지경이니까 임신한분이야 더말할것잇습니까 그럼으로 먹고십흔것을 먹도록하되 기름진것만 먹느니보다 채소를섞거먹는것이좃습니다 그다음 운동에잇서서, 겨울과달라 날이더운때니까 조혼일광, 조혼공긔를붓차저 밧그로 나다니는것이조습니다 그러나너무피로하지안을 산보정도로조코 함부로 자동차를타고「드라이브」를한다거나 해수욕한다고 물에 뛰어드러가는것은 엄금해야합니다

우리차지

서울아희들은 무식해
베도 모르고 쌀나무라지
온다다베 산다다베
칠섬베 멀룽베
조동지 각시울이
들충베 한림베
녹두베 밤베
수원베는 별명이 대궐베
이만흔 베이름을
저의들이 어찌아나

(글쓴사람 조창식)

童話 바보왕자 ③

崔益善

바보왕자님은 이리저리 돌고 돌아서 산 중턱쯤 가가스로 올나가라니까 늑대한마리가 아프로 각가히 왓습니다 바보왕자는 로인이 준 옷을 입으면 정말로 증승들이 보지못하나하고 시험해 보앗습니다 그랫드니 과연 늑대는 보지못햇는지 그냥 바보왕자 여플 지나갓습니다 바보왕자는 조화서 다시 올나갈때 마진편에 큰 호랑이두마리가 드러누어잇섯습니다 바보왕자님은 그래도 무서워서 가만 가만히 호랑이의 여플 지나가지마는 호랑이는 아모것치도안코 가만히 잇섯습니다

그래서 바보왕자님은 아마 호랑이가 눈이멀엇나보다하고 옷을 버서가지고 호랑이에게 돌을 던지니까 호랑이는 깜작놀래서 니며 어흥—소리를치고 바보왕자님에게로 달려드럿습니다 이때 바보왕자님은 엇지나 혼이낫든지 얼는 두루막이를 다시입어섯습니다 그랫드니 호랑이는 연긔가려 숨어지는 왕자님을 차지려고 야단들이엇습니다

이러하야 바보왕자님은 갓가스로 산꼭대기까지 이르러서 사방으로 먼저번 두와지님이 말하든데로 보히지를안헛습니다

그러자 어디서인지 「똑— 똑똑— 똑—」하는 쫄떼리지는듯한 소래가 들렷습니다 그래서 바보왕자님은 올라구나하고 그곳에 가서보니까 과연 쫄이 떠러지고잇섯습니다 나 그쫄이 참말로 입금님께서 말슴하신 쫄인지 아닌지 알수가 업서서 한그릇떠서 먹어보게되엿습니다

이상한일이엿습니다 바보왕자님은 한그릇을 먹고나니까 정신이맑어지며 기운이 나는것가텃습니다

바보왕자님은 넘우도 이상하야 또 한그릇을 먹엇습니다 그랫드니 아까까지도 바보왕자님이엿지마는 또 한그릇을 먹은 후부터는 첫재왕자님과 둘재왕자님보다도 더 똑똑하고 힘센 왕자님이 되시엿습니다

바보왕자님은 어떠케도 깃부시든지 그 이상한약을 한병을 얻은 담어가지고 산아래로 나려와서 먼저떠나온 형들을 찻다가 병중에 게신 입금님께서 기다리실 생각을하니까 잠시도 더 머므를수가업서서 대궐을 향하고 부즈런히걸어갈때 길가에 어떤아이를 안은 어머니듯한 녀자가 안저서 작고만 울고잇섯습니다

마음착한 바보왕자님은 웨우느냐고 하니까 그 부인은 어린아이가 병으로해서 거진 다죽게되야서 불상해서 운다고 하엿습니다

바보왕자님은 원악 착하서서 참아 그냥 지나갈수가 업섯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한 약을 조곰 따라먹여 주웟습니다 그랫드니 다죽어가든 어린아이는 언제 몸이 압핫드냐는듯이 방긋 방긋웃섯습니다 그어머니는 바보왕자님께 수여번이나 고맙다고 인사를하고 번번치 안흔것이라 하면서 눈물씻든 수건을 주면서 무엇이든지 이안에넛코 되라고하면 되는것이라고하면서 주웟습니다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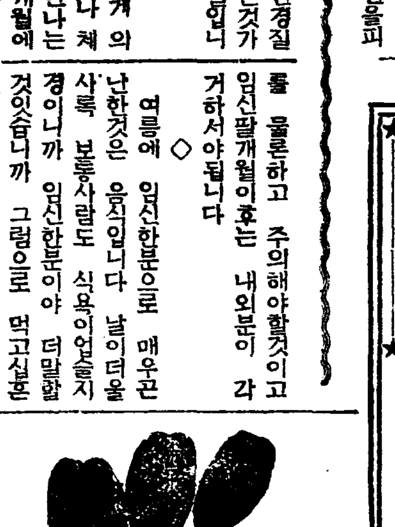
色헝겁의 家庭手藝!

金在璁帛畵展覽會

六月四、五、六日間●本社舊社屋에서

午前九時부터 午後五時까지 入場無料

主催 帛畵研究所
後援 朝鮮日報社學藝部



短篇小說 아카시아 (六)

安碩柱 作 金熊超 畵

두사람은 어지간히 술기운이 도랏다

『자—이젠 그만 나가볼까』

과장은 손수건으로 수염에무든 삐루거품을 훔치고 몸시계를 내보앗다

『그러시죠 저는오래만에 먹엇드니 어쩔합니다』

영섭은 정신이 펑—도라서 눈을 감엇다떳다 외놈에 술기운이 퍼저서 안진자리에서 이러나고십지안혓스나 과장이 서두르니 이러섯다

『그령저령 일곱시가 되엿네술먹을때는 이야기를 두어마듸해도 언뜻 시간이가는구료』

과장은 카운터—에가서 돈을 치르고 두사람은 역구내를 나왓다 해가기려서 아즉도 동편 뻴딩들은 눈이부시게 빗최고잇섯다

『료릿집으로갓스면 조켓스나 무순동미가 잇서야지 기생시가대주려가는셈이니까 또 요세기생들은 엇불한 빠—하면 엇뜻라니까 김군도 아마 그런데는 비위가 맛지 안흘거요 젊은이에게는 그래도 모던—한게 조흘하지 어떼 산뜻한데를 한군데 구경해봅시다。그렇지안 카페—가튼데는 우리가 갈데가 못되고 어듸 젊은이떼에 나도 젊은기분 좀 내여봅시다그려, 빠—가 조치, 가마잇자 올치 저번에 어느 시골친구바람에 가본데가 잇는데 그곳여 조용하고 매담도 소위 인테리—라는데 김군이 퍽 조와하게될드군 자— 가보시지』

과장이 아플서서 전차정류장을 향하야간다。영섭은 과장이 자긔의 의향을 무시해보는것갓기도하다가도 과장혼자 자못자담하는것가태서 속으로 우섯다。

젊은이떼에 젊은기분을내보겟다는것이 가벼운말이나 재치잇는말이오 그속에도 나희먹은이들의 비애가 흘러엿는것가텟다

이들은 전차에서 나려서 본정통을 드러섯다 본정삼정목못미처 줍다란 골목을 드러서자 붉은등에『빠—추—립』이라고쓴집아페다다럿다

『사실은 이집매당이 조선녀자인데 조금도 그런가업거든 영어까지도 곳잘하드구면 아조니혼무스메야』 그런데 나는나희가 먹고해서 이런곳에 오기가체신이 업서보히기도한데 김군이압서 드러가시우』

과장이 영섭의 등을 슬그머니 밀엇다

『전들 이런곳이 첨인데요 좀 서먹서먹합니다。』

『괜히그래 젊은이가 이런데도 용긔가업스면 어쩌누』

영섭의 속마음으로는 이런데 용긔가 무슨 일이잇나요—하엿지만 엇잿든 드러가볼일이라고하고서 문을열고드러섯다

박근 아즉도 해가잇는데 이집안은 임이 밤이엿다. 푸른수룩한전등불비치 어듸서 빗최는것인지 발을드려 노면서부터 떠구나 술긔운잇는사람을 흥분식히는 그무엇이잇섯다

두사람은 『빡스』에안젓다 그러나 앗가 과장이 입에침이마르도록 말하든 그매담은 그림자도업섯다

『얘—매담어듸갓니』

과장이 카운터에서 접시를훔치는 아희에게 소리첫다

『네— 목욕갓서요』

그아희도 조선아이엿다

『간지오래되엿니』

『네—한참되엿서요 곳올걸입쇼』

과장은 저옥이 안심이 되는모양이다

『우선 차라도 가져오너라 무엇을자시려오 아이스커피—나한잔식할까 얘—아이스고히 두잔만가저와』

과장은 영섭의 의사를 존중하는듯하면서 모든게 독단이다 —나는 이런 조그만데도 남의 의사를 존중하는사람이요 하는드시 그눈찌만 보히고는 물론너는 내말에 복종할테지 하는 겨으로 해치우는일이만는 그버릇이 이빠—에서까지 나오다

『야—그레코—드나 좀틀렴으나 심심하고나 김군도 음악을조아하시겟지 우리는『베토벤』이니『모찰트』니 『슈베르트』니하는 악성들의 일홈은 학교에서배화서 알지만 그들의음악은 조선가곡에 귀가저진사람은 어듸 알겟습듯가 사실너무고상해 얘—그『째쓰』한 곡조트러라』

과장은 그떠드는품이 패홍겨운모양이다 아희가 레코—드를골고는 아이스커피—를가저왓다

이때에 빠—의 문이열리며 금방 도가니ㅅ불에서뽑낸 류리항아리가튼매담의 목욕탕에서 상혈된얼골을 나타내다 그의 손에는 목욕긔구를너흔 고무주머니가 들려잇다 『아라—마—』 하고 매담은 황홀하면서 그대로 과장아프로뛰여오다가 낫서른 영섭을보고 주춤한다

家庭醫學

綠葉時節에 만흔 結核病勢의 增惡

略血도이時季에일기쉽다

日本人이 一年間에 結核으로死亡하는數는 約十二萬人이라고하지만 直接死因은그러치안타고하드래도間接으로 結核이 그것을 돕고잇는것을合算하면 그以上多數에 達할것입니다。이結核은 春夏에氣溫의 上昇과 濕潤함을따라

【惡化】 하는일이 만코 이옥어질때 喀血이 만타는것도 이까닭으로 死亡統計를 보아도 春夏間에死亡數는 秋冬間의 그의二倍以上입니다

以前은 結核은 不治라고하야 特히 喀血하면 어떠한患者던지 一次로 落膽하야 急激히 衰弱해지는것이 普通이엇지만今日은 勿論結核이 不治라고밋는사람도업고 喀血에對하야서 亦是本能的인 恐怖를免하기어려운模樣입니다、

그러나 少數로는 血液이 氣管內에서 急激히 凝固하야이르키는窒息死의 境遇外에 喀血때문에 죽는것이 極히적은故로喀血한境遇에는 무엇보다도 沈着하야 心身을

【安靜】하게하야 血液의凝固를 圖謀하기때문에 患部를차게하야 食鹽水를먹어도 조흡니다、

元來 春夏에 結核이增惡하는境遇가만흔것은 溫暖濕潤때문에 急激히 新陳代謝가 만하저서精力과 體成分의 消費가만코 抵抗力이 薄弱하야지는 境遇에結核菌의 活動이 旺盛하여지는故로 이것을 防止 함에는 急激히 만허진 新陳代謝에 應하기爲하야 精力原 體成分을補給하야 一方에잇서서結核菌의活動을抑壓하는것이 必要합니다

그러나 患者는 大槪胃腸이弱하야 消化機能이不活潑하므로多食하거나 榮養分만흔것만 먹어서는胃腸을疲勞하게할뿐으로

【效果】가업스므로 먼저 衰弱하여진 胃腸을 健康하게하는 同時에精力과 體成分인 榮養物을 給與하는것이 必要하고 그意味에잇서서『錠劑わかもと』라는 微生物劑의 服用이 大端히 推奬되여잇습니다。이藥은 헤—쎄이라고하는 微生物을活性 그대로製劑한 特許藥으로서 胃腸內에드러가면 旺盛한活力을 發揮하야消化機能을 活潑히하는故로 衰弱한組織細胞를 刺戟鼓舞하고 患者는 食物中에서 充分한榮養을攝取하게되지만 다시 이藥中에는아미노酸、칼시움、燐、鐵等의優秀한 體成分비타민等의 精力原을 豐富히 包含하고잇서서 日常食物에 不足한 成分을 補充합니다

結核에對한것은『錠劑わかもと』가 一方에增血作用도가진것으로 結核患者에만흔 貧血을恢復할뿐만아니라 喚菌力을가진 白血球를非常히 增加하는 作用도잇스므로 榮養의 補給과相應하야 結核菌을殺滅하야 病勢의 惡化를 防止함에는 가장 效果가 잇는것입니다

結核과姙娠

結核素質이잇는婦人이姙娠하면 胎兒의發育이不全하야 體質이 虛弱하게되며 結核에걸리기쉬울뿐만아니라母體도 姙娠中에發病을 내거나이릇이惡하게되거나產褥의疲勞等때문에 危險해지기쉽습니다 이러한 素質가잇는분은 姙娠中부터 攝護와胎兒의 保護強化를爲하야活性헤—쎄이菌劑「錠劑わかもと」를 常用하시기를推奬합니다 「錠劑わかもと」는胃腸을強健하게하고 榮養을旺盛히하야 抵抗力을 强하게하며 입덧을 防止하고 胎兒發育에必要한 成分을補給하야 그健全한發育과 安全을期할수가잇습니다

不眠症에催眠劑의 濫用은危險!

밤에잘수업다는것은肉體的苦痛보다도 그害를實際보다 크게생각하야精神的으로 그苦痛을過剩히라고하야 催眠劑를쓰는것도無理가아닙니다。 催眠劑도하로밤 이틀밤쓰는것은 아무害가업스나 그것을連用하면그成分이 體內에蓄積되여점점

效果가稀薄하여지는故로

次次量을增加하게되여 中毒症狀을 이르키어 不眠以上에 무서운 腦障碍와 消化障碍에 여러가지 障碍를 이르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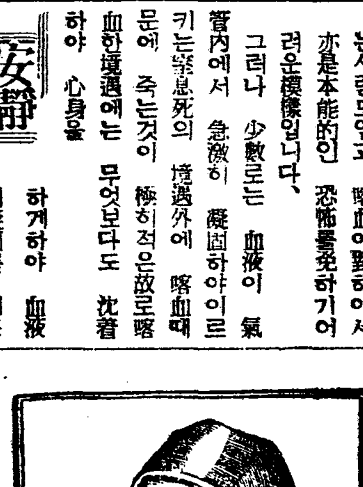
不眠症은 그것이獨立的으로이러나는것이 아니고 大槪모든原因이되는 障碍가잇서서 그結果로 이러나는故로 오직催眠劑를 써서 一時의睡眠을 오게하는것보다는 그原因이되는 障碍를除去하는것이必要합니다 精神的煩悶이잇는분은 그것을 解決하는것이 先決要件이겟지만그것도 不眠의害를 너무크게생각하는 傾向이잇습니다 하로밤이나 이틀밤잠을수업서도念慮하지말고잇스면 自然히잘수잇는것입니다。

肉體的으로보아서

睡眠과가장깁흔 關係가잇는것은 胃腸障碍, 特히消化不良과常習便秘에잇습니다

이境遇에 消化不良이라고하는것은 胃酸過多 胃擴張等도包含하야말하는것으로 胃中의飲食物의停滯感이 睡眠을妨害하는일이잇고 또常習便秘는 下腹部에 不快感과 大腸內의 異常醱酵로부터 有毒物이大腦를刺戟하는까닭입니다、

이가티 여러가지原因으로부터 오는不眠症에對하야는最近一種의綜合療法으로서 活性헤—쎄이菌劑의 內服이賞用되여잇습니다 이藥의作用은 非常히複雜하지만中心이되여잇는것은所謂細胞賦活作用으로서 活性菌이體內에서 그機能을發揮하야 障碍잇는 組織의細胞를鼓舞再生하게하야 特히消化機能의 强化와 腸內淸掃의功果가 顯著하므로 不眠의原因이되여잇는消化不良과 便秘를除去하면 되는것입니다、 헤—쎄이菌劑는 種類가 非常히 만코 效果도가지안흠으로



第二의히포쿠라테스라불르는聖醫 가렌—의像(西曆二百十四年歿)

選擇에잇서서는

深甚의注意가必要하지만 가장代表的인『錠劑わかもと』等은 嚴格한 培養試驗을 經由하야專賣特許의方法으로 製劑하엿스니만큼 含有成分의點으로보아서도 다른 모든헤—쎄이菌劑(酵母劑)보다 優秀합니다。

即『錠劑わかもと』中에는 優秀한 頭腦의營養素인노구레인 레시친 비타민B、D가 가장 豐富히 包含되여잇서서 頭腦의 過勞를防止하고 有毒物質을 分解하야神經의障碍를除去하므로自然히安眠할수잇습니다。

『錠劑わかもと』는 東京芝公園 大門際わかもと本舖榮養と育兒の會(振替東京一七〇〇番)에서 三百錠入、千錠入의二種이 一日分겨우 五六錢(小兒에는二、三錢)의 廉價로販賣됩니다。

떼파—트에勤務中 左便肺ㄱ傷해서

北海道 神谷良子

나는以前에 函館에잇나서 그곳에서 小學校와 女學校를 卒業하엿습니다 學校時代는너무 健康치못하엿스므로 相當히運動도하야何等의不自由가업시지낫섯스나 再昨年函館大火를지나 이곳으로 왓습니다 그리하야이곳에잇는떼파—트에 多幸히就職하야 每日勤務하고잇섯습니다

(中略)病으로 알키게作할때는非常히몸이 疲勞하야밤에는 잘수가업시아츰한時까지는 잘수가업섯습니다 그러다가 中次次가슴이아퍼지고 商店에나가서일하나도 실허저서 醫師에게 診察을바드니까左便肺가조치안흐니 入院하라고해서할수업시 入院하엿습니다

(中略)『錠劑わかもと』는벌서동무에게나가튼 體質인사람에게조혼것이라는것을드럿섯습니다 九月中부터『錠劑わかもと』를 愛用합니다 그德澤으로 至今은元氣를어더退院도생각하엿든것보다 速히하고 至今은顏色도퍽조화지고살이쪗다고 여러사람이말합니다 이것은『錠劑わかもと』의 德澤이라고 생각하야깁히感謝합니다 (後略)

掛圖寄贈引換券を御活用下さい

小學教育助成을爲한 優秀한教授用 掛圖一百萬枚를 小學校에寄贈

『わかもと』一瓶마다『掛圖寄贈引換券』이부터잇스므로求하시는분은協力의意味로一枚라도업시하지말고小學校에寄附하여주시십시오그리換券을交付한小學校에對하야掛圖를寄贈합니다。詳細는東京芝公園十一號地教育資料會에照會하십시요

創作에잇서서의 個性과普遍性 (一)

白鐵

이런 支配的地位에 서게되는 作家는 創作의 主體의 構成과 그의具體的制作過程에잇서 全主觀力量――感情 想像 心情 意慾을 全面으로 注入 시키가면 그만이다！아니 그와가티 主觀的으로 支配해가는 途程이외에

創作 의 길은 잇지못한 것이 事實이다！왜냐하면 그러나하면 作家의 體驗으로서의 生生한 感情世界이외에 무슨 딴作品世界가 잇슬수업는일이며 作品의 眞實이란 作家의 實感性以外에 아무것도 잇슬수업는까닭이다！그와가티 文學은 實際生活과는 特殊한 情况을그의世界로 하고잇는意味에서 그것이 個性的이 아닐수업는 事實을 理解할수잇는것이다

그런까닭에 文學은 本來에잇서 主觀的이라는것 或은 文學은 自身의 客觀的 眞實的態度를 保持하는힘이 잇다고 하더라도 情感은 主觀的心情과 條件에 依하야 그의 階級과 色調와 性格이決定된다！는것 거기에또한 文學이 個性的이아닐수업는

明瞭 한 事情이잇다

『自然은 一의 光景이요 人間의 心理에 따라 決定된다！』는 말은 단순히 로맨티시즘의 文學精神을 說明하는말이아니다。이 意用할 文句가 아닌것은 分明한事實이다！

여기서 [illegible]『하믈레트』는 다음과가티 告白하고잇다！

『……地球라는 이 흙덩이한大組織도 나에게는 貧弱한砂漠와가티 보이고 저 太陽이라는 比할수업시아릅답은 太陽도 그리고 빗나는 黃金으로 아로삭인 穹窿도 나에게는 더럽고 다시 더럽은 霧氣의 集合과가티박게는 보이지안는다！人間！그것은 얼마나훌늉한 造物의 傑作이라！理性에 잇서 이얼머나 高尙하며 能力에잇서 이얼마나 無限하며 모양이라든지 거동이라든지 또한 그훌륭한 표정은 實로 놀낼만하다！행동은 天使도속이고 지혜는 하눌과도 가튼 그人間！世界의美다！生物의 長이다！하나 나에게는 보잘것업는 塵芥에 不過하다…』(第二幕第二場)라고 愛慾과 苦惱의 主人公에게는 온世上과 온人間이 그와가티 變色되여보이는것이 事實일것이다 이런事實에 대하야

「레―」는도 **同一** 한說話를 말하고잇다『大地우라… 自己의 思想의 色彩를 가지고 自然全體를 染色하며 變更시키는것이다！』라고

그와가티 作家는 自己의 主觀과 心情에 依하야 外界의모든事物을 바라보며 또한 그것으로 外界를 決定 支配하는것이다 그러하야『櫻市의 老博士와가티 붉은 글라스를 아페노코 볼때에 온世界가 붉어진다는것은 文學世界의 正直한事情을 說明한 適例가 아닐까？여기에 主觀的으로 그世界를 支配하는 文學의個性的인 條件이 잇는것이다

文學의 創作過程에잇서 具體的內容의 發展이란 意識的目的性과 그必要에 依하야 또한 理性과 計算으로 決定된 프로그람에 依하야 製作되는것이 아니고 大體에잇서 偶然的契機로서 生成된다는點에 그個性的인 理由를 說明할수잇다！文學이란 그本來의形態로서는 隨意的이라는것이 事實니다！왜그러냐하면 隨意的인 感性으로 隨意的方法가 個體에 活潑하는點에서 全然 그個物에 附着되여 發上되는 內容이외의 아무것도아닌까닭이다 이때에 勿論 意識的自我가 그隨意的意志에 대하야 그것을 整理하고 그것은 結局 偶然된 第二段의 隨意性에 不過한것이오 結局에 잇서서 文學은 그全過程이 隨意性乃至 隨意的인것의 偶然的 反復에 依하야 生成된다는것이 否認치못할事實인듯하다！偶然的！이라는것이 語弊가 잇다면 여기서『프루스트』의 말을빌어서 無意識의 過程無意識의 記憶으로 說明한도 無關할것이다『이것은！無意志的 記憶을 多少라도 模擬하기위하야 構成되는것이다 意外의 追憶가原因이 되엿든까닭에 이作品은 部分的으로는 나의生命의一部로서 내가 茶碗의一片을 적서서먹고잇든것이 生각이다 그甘味의 菓子는 내가 입속히 아슴마다 먹든것과 가튼종류라는것이 생각나는것이다 그리하야 나의過去는卽時에 再生되여 내가 이作品가운데서 說明하고 잇는바와가티 말하면 日本의 神秘의

遊戲 와가티 물속에 시면 人間과 꼿치적 나라나는것과가티 過去가 차례차례로 나라난것이엇다！』말하면 文學이란『프루스트』의境遇와가티 偶然히 一片의 茶菓를 먹는것가튼 平凡한 契機에서시작되는것이 大多의例며 또自然스럽은것이다

생각컨대 文學의 情熱이란 機動과가티 짧고도 瞬間한 것이며 우리들의 生活에 잇서 强烈하고 순간적인 情緖는『레―느』의 말과가티 偶發的인것이 普遍이라는것이까닭인듯하다！

附着 되여 …

니고 보담노픈 實在性과 보담 試實한定在와를 불너보내는것이다 (甘粕譯 헤―겔美學辨證法一四頁)라고 하얏다

이러한 헤―겔의말은 多分의 觀念論的냄새가 잇슴에도 不拘하고 이것을 逆解한다면 例컨

스의 빨르사크論에잇서서 所謂 『典型的인 情勢、環境에잇서서의 典型的인性格의表現』이라는 唯物論的命題로 發展시킬수잇스며、우리의攝取해도 조흔 遺産이라 고생각한다。

創作方法問題論議의 發展過程과그展望 (六)

安含光

이리하야 社會主義的레아리즘은 ××的로맨티시즘을 疎外로 하고서는 그本來의生命을 保持할수업는것이며 ××的로맨티시즘은 眞實한레아리즘에 그根據를두어업시는 그의存在的意義를 發見할수는업슬것이다

이에 맑스의이른바『世界가꿈(想)는바 꿈(夢)의 意識』이라든가 골―키가말하는바『未來社會의空想 洞察精進』이라든가 林和氏의 提論『偉大한浪漫的精神』等도要컨대 이러한視角에서만 그의眞實한理解를 가저올수잇슬것은 두말할것도업다。

우리는여기에서 푸로作品의草創期的로맨티시즘과 ××的로맨티시즘과의差異는 前者가 高度한레아리즘에로의 한개發展的段階이엇든것임에反하야 後者는 이레아리즘의本質的特征으로 融合되데不外하다는것을 正當히理解하는立場에서 草創期的로맨티시즘의 레아리즘에로의

稀 薄한浪漫主 主觀的興奮一貫主義의偏向의罪過를 그의抽出的社會的條件의 歷史的認識에서究明하자못하고 오로지在來의創作方法에로 그責任을轉嫁식히려는態度를 嚴格히 反擊해야할것인同時에 ××的로맨티시즘에對한沼田英一式의理解에對해서도 非常한警戒를 갓지안허서는 아니될것이다。

하기야勿論 沼田의말맛다나、어제저녁에活動寫眞에서求景하고온 女工이 興奮하야말하는光景도 로맨티시즘이요 印刷工이點心時間에하―모니카를부는光景도 로맨틱이요 나제일하고 밤에冊床에 안저工夫하는店童의모양도 로맨틱이요 나제일하든勞働者가 어린아희를다리고 沐浴湯에가서 어린아희몸을닥거주는것도 로맨틱이다。

그나그뿐이랴！戀人의발자최소리를期待하는 十八少女의緊張된表情도로맨틱이라고하면 가을하날에反響되는 라켓트의音響도로맨틱이아닐가！

이러한例는 얼마든지 列擧할수잇는事實이다。하나××的로맨티시즘이、顯現이러한 傾向의理解는、藝術的實踐에잇서 社會的모랄―보다이 尊重되는代身에、테리케―트한 情緒의

問 題라든가、家庭的모랄ㅣ 題이、不當하게도 異端視되여오든、過去的 偏向에對한、한개의 反撥的意義는 가진다는지모르나、그를 現代의 諸課題의 見地에서、다시말하면、푸로藝術의 諸任務와 特性의 見地에서는 그아모것도 說明하고 잇지못한다는것을 認識하지안허서는 아니될것이다。

極左的偏向에對한 單純한 反駁으로서의 右翼的偏向에로의 轉落、그것이 究極무엇을 意味하는것인가(?)는모―든良心的 讀者의 賢明한 判斷에 一任하

가로하자 우리가여기에서 또한 가지 看過해서는아니될 偏向은 新創作理論의 伴奏曲을 이루다십히 宣騰히짓그려지고잇는『世界觀』에 對한 敬遠의思想이다 이러한 思想을 위하야 한개의 安全辨的(?)口實을 提供한것은 在來의 創作方法에 對한反擊의 命題――即唯物辨證法은 世界觀은될수잇스나、創作方法은 될수 업다는 喊聲이그것이다

그러나 唯物辨證法！그것은單純한世界觀만이아니라 또한現實認識의한개 훌륭한 方法이아니엿든가？藝術은形象的思惟의形式으로서의 世界認識이라는곳에그 特殊性이잇는바게 그가 世界認識이라는點에잇서서는 다른모든 意識形態와 조금달은것이 업는 限에잇서서

現 實認識의한개優秀한方法인同時에 思惟의一般法則인 唯物辨證法이 藝術이라서 그를貫通하지못할理論的 根據가 那邊에 잇단말인가？

그러함에도不拘하고 前記命題―唯物辨證法은 世界觀은 될수잇스나 創作方法은될수업다는 見解가 成立될수잇는것이라고하면『唯物辨證法은 첫재로 哲學的體系인것이아니라 모―든內容을現實그自體의『魂』인 辨證法的形式에從屬식히는 正當한科學的方法』이라고할藝術的先驅의 命題는 이곳에서無慘히도 힛틀러的橫暴에 依하야 逐出의虐待를 밧지안흘수업슬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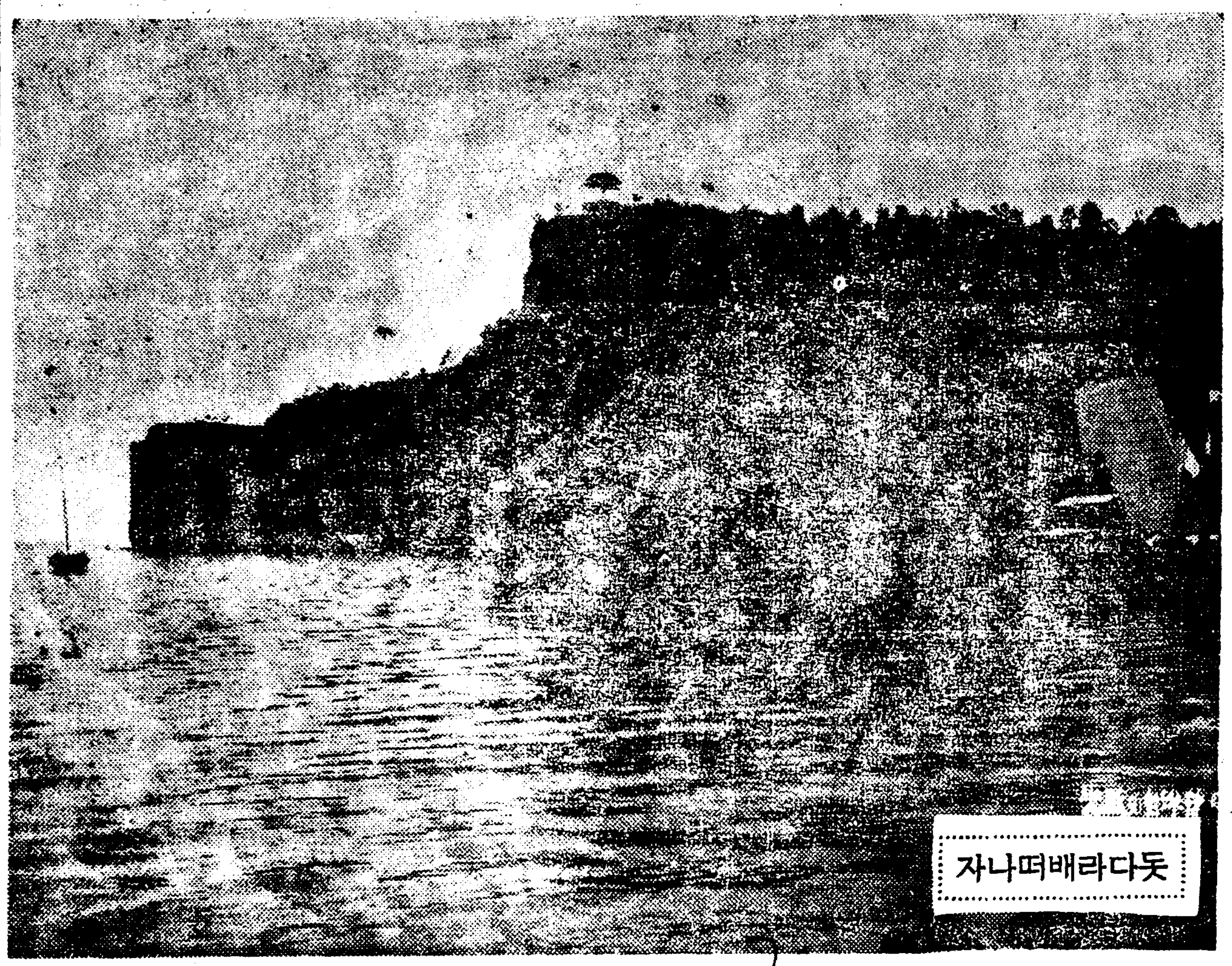
假使百步를讓하야 그러한見解가 成立될수잇는것이라고 假定할지라도 그것이決코 레아리즘과 世界觀과의 關係를 分離하는 다시말하면 맑스主義的世界觀에對한 敬遠의 思想을 理論부처줄 性質의것이 아니라는것에 對하야는 贅言을 要할배못된다。그것은 이곳에서 이에關한 여러先輩의 命題를 一一히 例證할것까지도업시 階級藝術은 그 本來의 性格上 暫時라도 맑스主義的全世界觀과 同樣의 特性을 保持함이업시는 그生命을 維持할수업는것이기 때문이다。또한 가지 이世界觀에對한

敬 遠의思想이 그의唯一한 同情者를 發見한듯이 引用하야 愛頌하고잇는 것으로서는 엥겔스·및 킬보친의 다음의 命題가잇다。

即고――고리는 非敎化主義者的 反動主義者로서 니코라이一世의 制度를 擁護辯護할 目的으로『檢察官』및『死魂』을 썻슴에도 不拘하고 그는全니콜라이的現實의 批判을위한 强力한武器이엇섯다는 킬보친의 歷史的例證과『人間喜劇』의作者 발작크는 그의 正統派的政治的見解에 不拘하고『佛蘭西社會의 全歷史를包括한過去現在未來의 모―든졸라』를 凌駕한 레아리스트이엇다고 明快히 解說한엥겔스의命題가 그것이다

그러나이는要컨댄 作家의主觀的意圖와 그作品의 客觀的意義는 반드시 一致되지만도 아니한다는것에對한警告인 同時에理論藝術學의 通俗化에對한 正當한 反擊以外에 그아모것도아닌것이니 先輩들이이肯綮한 命題가藝術의『世界觀』에對한 敬遠한思想을 理論부처줄性質의것이아닌것에 對하여는贅言을 要할배아니다。

만흔 伏字미레서나마 우리의 아페 紹介된 第一回全蘇作家大會報告를보지라도 그應에 한討論를 一貫한 不動의 테―마는 무엇보다도 먼저正確한 世界觀의 必要性을 力說한테 不過한것이 아니엇든가？



돗다라배떠나자

藝術과創造 ― 素材에對한作家의技倆

(五) 李秉珏

이리하야 藝術家는 이러한 客觀的 本質의 認識過程을 過程하야 그곳에서 藝術的인 타입의 創造라는 過程을거처 客觀的眞理를 典型的으로 形象化하고 表明하야 讀者의 눈아페내여 놋는것이다 朴英熙氏의

論 旨가 이러한것을 否認하고『思惟過程이 現實의 創造主며 現實的인것의 外的現象으로 存在하는데 不過하다』리는 헤―겔의 誤謬를 되푸리한데 지나지 못하다면 白鐵氏의 그것은 先天的槪念의 칸트的神秘에 빠저서 善良한 孔孟後裔들의 僞善的 中庸主義에 强烈한 憎惡의念이 培養된 先人見에서 나온 逆說的獨斷인同時에 現代가가진 術學中의 하나이며 前後를 돌보지안코 慾念속에서 百科全書를 過信하는中歐的自意識의 表明이라고 볼수잇다 우리는 여기서 그의 情熱만을 取하야 우리의目錄가운데 記入하기로 하자！

藝術의創造過程에 잇서서 素材의取捨와 타입에 對하야 헤―겔은말하기를

『日常的인 外的內的世界에 잇서도 本質은 들러잇시 나타나는것이다。그것은

偶 然性의混沌形態에 잇서 感能的인것 直接性에 依하야 또는 境遇、事情、性格等等의肆意에依하야 偶해저서 現象되다。藝術은 그의諸現象의 참되든內容으로부터 이러한一時的 世界의 조치못한假象과 虛僞를 버리고그것에 精神에依하야 만드러진보담 노픈 現實를 주는 것이다 이리하야 다만 假象으로부터 距離가 멀다는것은 藝術의諸現象에 日常的의現象이아

一隨筆一 文學人의觸感 (1)

蔡萬植

文學人의觸感이라고 한대자 씩 신통한것도 아모것도 아니다 主로 創作배모에서 그러고그밧게 요새 보고듯고생각난것을 두서없시 적어놋는

것(乳)의略奪 (上)

것(乳)의略奪

新聞에『乳母를 求한다는』 廣告가 가끔난다

大槪 記事속간을 비집거나 그러찬흐면 記事끄리에 네덧줄 잡어서 나는것인데 그런것일수록 다른 큰廣告보다눈에 잘 띄인다

내야、乳母를 求할일도업고 또 乳母를 자원할자격도 업스니 그냥 無心히 보아바릴일이로되 그러치가안코 번번히 이런일이 생각힌다

◇

친구의집을 차저가 건너방에 안저서 이런이약이 저런이약이 하다가 잠간 중동이 끈처 묵묵히잇는판인데 마루에서 친구의 어머니와 다른女人의 이약이소리가 들여온다

다른女人이라는건 친구의 친척의집 乳母다 내가 간혹차저갈적이면 토실토실하나 탐스럽게생긴 아희를 · 업고와서 놀고하는것을 몃번 보앗기때문에 나도 나는 아는 女子―― 한二十이나 되엇슬가? 배― 젊은――。

『그래 乳母비 어린것은? 좀 난가?』

친구의 어머니가 이러케 뭇는 말을 바텨 乳母가 대답을 한다。우리는 귀를 기우렷다。

『모르겟세유…… 아까 애아범이 와서 그러는데 뒤어지겟데라구 그래유…어재 시어머니가 저를 차즈러 문안에 드러왓다가 집을 못찻고 애아범이 가서잇는 採石場으로 왓더라나유』

『거원 안되앗구려 가보지두못허구…… 어미젓을 빼스기고 그어린것이 원…』

『바라는집에는 손(孫)이 업고 바라지도안는 가난뱅이한테와서 생겨나서』

『거 제일 궁금해서 어쩌나!』

저 못구리래두좀 해보지?요 건너 아주 빠게고보는것처럼 드러마치는 장님이 잇다는데 十錢이면돼 十錢』

『어되좀이래유?』

乳母는 그빼게고본뜻이 아려마치는 장님을 차저가 각바른 收入에서 十錢을 내던지고 자식의 生死를 占처보려고 풍목을 자세히 들어가지고 도라갓다

친구와 나와는 눈이 마주첫다

『돈이 무엇이지!』

하고 친구는 乳母에 대한 說明을 해준다

『올正月에 난 자식을 늙어빠진 媤母한테 매겨노코 二月에 二집으로 乳母로 드러왓스니 그어린게 번번히 살태이잇나!』

『대관절 무얼먹여 길르노? 설마 鮮乳를 멕일바이면…』

『맘을 멕인다나바 애비라는건 금방서방님가티 약비하딕―약비한게 요새까지 번들번들돌다가 며칠前에 東大門밧 採石場에가서 어더먹고잇고』

『老婆는?』

『어린것을 떼리고 동냥도해먹고 며누리다 아들이 조곰씩 보태도주고』

『그러면 결국 이럿쿤? 乳母의 어린것이 제젓을 提供해서 그어미가 먹고살고 아비도 좀 어더먹엇고 할미도좀 어더먹고잇고 그러고 저는맘을 어더먹고잇고 그러다가病이드러 죽게되엇고?……』

『그러치…… 그래서 그래도 죽겟거나 아니죽겟거나 미리알고 시퍼서 十錢짜리 運命을 다어알롱량으로 장님을 차저가고……어머니――』

친구는 마루로대고 어머니를 불른다 심술굿게싱글싱글 웃는것이 구박을 줄랴는것이다

『왜그러니?』

『어머니는 왜또 그 乳母한테 十錢손재를 식히시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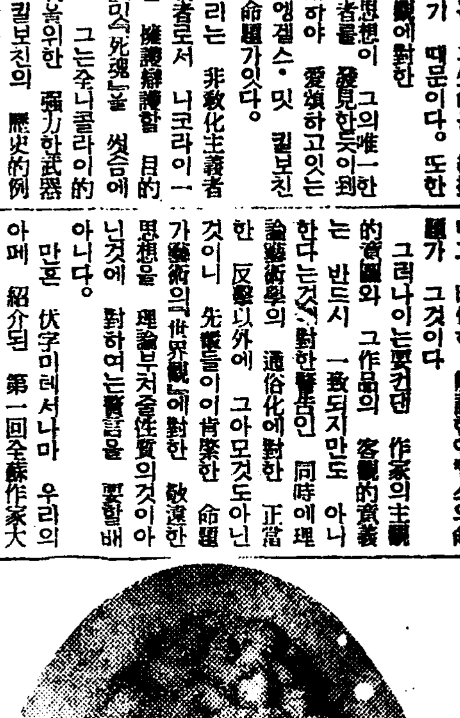
『로구리하러 자란것말이냐? 너이는 자식을 못길러 보아서 다 모른다글세 어미된맘에오죽이나 궁금―하고 답답하겟니? 자식을 나―가지고 호강스럽게 길른다가도 잃케되면 섭섭하고 원통한법인데 乳母네는 돈버리가 무어라고 제젓은 남을주고 눈어둔 할미가 맘만 멕여길르다가 인제 죽이게되엇스니 여간만 섭섭하고 원통하겟니? 그런걸 또 가서보지도못하니 궁금하긴들 오죽 하겟니? 그런속은 다 자식을 길러보아야 아느니라 너이도 인제 당해보아라』

언번이 本是 조혼夫人이라 이러케 한바탕 講說을 늘어놋는것이다

(此項未完)

偉大한理學者「앙페―르」 그歿年百年에際하야

趙汝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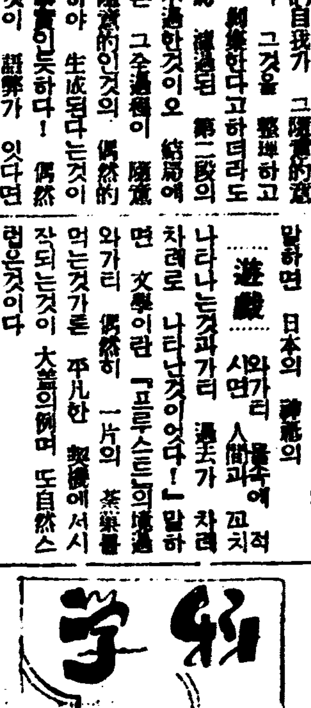
佛蘭西의 大物理學者『앙드레―마리·앙페―르』가 他界로 간지 今年이 正히 一世紀가 됨으로 佛蘭西에서는 盛大한 記念祭를 行하겟다는데『앙페―르』가얼마나 偉大한 理學者인가는 여기서 敢敢할必要도업시 우리들이 中等學校敎科書에서부터그일홈을 드러온바와가티 電流의磁氣作用에 關해서 벌서 일홈을 는 屈指의 法則을 보혀주어고 數學者로서는 微積分學에 貢獻하엿스며 電氣學者로서는 電信을 發明한後 電磁氣學에도 大發見을하엿다 그리고 哲學者로서는 人間意識을 分析한 絕世의 博學者엿다

『앙페―르』는 一八〇三年『리용』의『리세―』지금은『리세―앙페―르』數學敎授가 되엿스나 그다지 오래잇지안혓다 그의令名은 그를 巴里로가게하여 工藝學校로 또는 文學大學의 哲學講義로『코레쥬―·드·프랑스』의 實驗物理學講義로 幾多의 活躍을 하게하엿다、

이 巴里在職中의『나포레옹』과의 한개의 逸話를 紹介하면 理學士院의 常會에서『앙페―르』는 어든 論文을 演壇에서 읽고잇섯다。出席會員은 演士의 論文을 傾聽하고잇든中 突然히 起立하는라고 一時 場內는 騷然하엿다。그러나『앙페―르』는 거기에는 無關心하고 講演을繼續하는동안에 푸른服裝을 하고『레죵·돈누―르』의 勳章을 찬 사람이 椅子에 걸어안젓다 講演을마친『앙페―르』는 自席에 와보니 이 未知의사나이가 自己자리에안젓스나 본래 謙遜한 사람이라 敢히말을못하고 두세번 잔기침을하면서 매우 不昧한모양가탯스나 곳 座長에게가서 自己자리에 안진이가 누구냐무르니까 亦是 會員이라고하기에 어느部에 언제 드러왓느냐고 무르니까 近者에 力學部에 드러온사람이라고하기에 會員名簿를 열어보니 이사람이곳『나포레옹·보나팔트』이엿다그때야비로소 놀나『앙페―르』에게 握手를請한『나포레옹』은 翌夜七時의 晩餐에 招待할것과 特히皇后의여페 座席을定해주겟다고하엿다 그러나『앙페―르』는 이招待의 約束을 이저버렷다、

一八二〇年 電磁氣學에 不朽의 功績을남기고서 그는 佛蘭西學士院會員『론돈』及『에딘바라』王立學士院會員 伯林『스톡호름』『브룻셀』『리스본』의 學士院會員『켐브릿쥐』『제네바』學會의 會員等의 榮職을 兼任하나 正히 六十一歲이라 體力의減衰는 아직도 旺盛하엿스나 智力은 어지할수업서서 視察旅行의 途中『로안느』에서 客死를하엿스나 無理를 하여가면서『말세이유』에 到着하야 마친내 臥床한채로 거기서 臨終하니 때는 一八三六年六月十日 午前五時이엿다。

이것으로서 우리人類文化史上에 偉大한 功績을 남기고간『앙페―르』를 記念하는 一文을삼고라。(寫眞은『앙페―르』肖像과『앙페―르』가瞑想하는菩提樹下의高臺)



新刊紹介

▲鮮米情報 第一九三號(週刊)發行所京城府黃金町一七 朝鮮米穀硏究會 振替京城六一五二番 定價一部十錢

▲靑年太陽 六月號 發行所 東京市赤坂區表町三丁目 日本文化協會 振替東京六三三六八番 定價十錢

▲日滿關係の現在及將來 滿日叢書第二輯 發行所 大連市東公園町三一 滿洲日日新聞社 定價十五錢

▲新東亞 六月號 (主要目次)나의人生觀…安在鴻 世界貨幣戰爭…朴孝參 紅軍의西北進出과北中情勢…咸淳業 歷史民俗…劉昌宣外諸氏 科學＝無線電波의奧秘、宇宙과 씨의起源…外諸氏 九大都市縮圖…李雲谷外諸氏 初夏의隨筆＝初夏에는…外諸氏、詩創作外其他 發行所 京城府光化門通一三九 新東亞社 振替京城一四五〇〇番 定價三十錢 送料二錢

▲ピタカ 六月號 發行所 東京市本鄕區本鄕三丁目 大藏出版株式會社 振替東京五一六八四番 定價二十錢

▲한글 六月號 發行所 京城府花洞町一二九 朝鮮語學會 振替京城一〇〇四四番 定價七錢

▲高麗時報 第四十四號(月二回)發行所 開城府北本町三九六 高麗時報社 振替京城二四〇九三番 定價十錢 發賣所 京城府堅志町三二 漢城圖書株式會社出版部 振替京城七六六〇番

讀者社交室

▲讀者여러분께 告하나이다 本人이 糖尿病으로 數年間苦生하옵는中 洋藥漢藥을勿論하고 無數服藥이오나 效力을보지못햇나이다 願컨대 讀者여러분中에서 前記糖尿病에 神効한藥을아시거든 本社交室이나 左記場所로알려주시면 果然感謝하겟나이다

京城鐘路一丁目四〇 崔宅基

▲露西亞小說『갈신』의作『붉은꽃』의 發行所와 定價를 아시는분은 下敎하시옵소서

『아숨著』病理各論을 가지신분은 讓渡하실려면 定價와 版數를通知하여주시옵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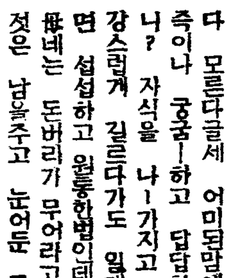
京城府淸進町一七五 李洌

▲求職人에게告함 學力은 初等科以上 年齡은十七歲乃至二十歲까지로 日本語에 能通한者 勤務할곳은 大阪洋品店이오니希望하시는분은 市內通義町一四七 漢陽商店으로 問議하시옵기를切望합니다 電光一三八七番

▲하루十五時間以上 피땀나는 勞働을하고 賃金七十錢을바더六十錢으로는 다섯식구의목구녕에 풀칠을하고 幾金十錢式을모아서 一年間에 古本五十錢을 삿는데 기막히는사정이잇서서 팔냐하오니 사주십시요 書籍種類는社會文學、大杉榮著書等이며 價格은 定價의三分의一은 주서야겟슴니다 (배꼽호生)

再發의危險을避하야…… 腦溢血中風 (自宅治療)

四十歲에걸니는 動脈硬化、高血壓의解決



中風症의 한숨 이라고한 腦溢血中風은한번나엇드래도、再發하기쉬운性質의病으로再發하면 반다시、最初보다훨신더重하야저서、再發後에죽는것이오、엇다、生覺하야서全快就業까지지합분이再發하야서、生命까지일허버리는일까지往往히잇다。

一家의礎石인 사람이업서까지면、家庭은暗憺하게되야서財產은 散財되고 遺族은悲慘히도 彷徨하게되오。그리하야 한번中風에걸린분은、習適身體와는 달는것을잘生覺하야서、再發치안흔 治療法이重要하오。

多大한金 額을 使用하야도 無端하되고、回復이안되는後悔하는일이잇소。또日常食物은그맛이 아는바와가티成分이들여서、가운대는 特種의性質을 가지는것으로、中風患者에 好不好가잇서서 直時病狀에關係됨으로 그選別法이肝要하오、公益을爲하야모―든 詳細를 여기말하고십푸나 遺憾이나紙面이有限하야 希望한분에 特히仔細한것을 親切히直接送呈하겟소그內容說明書는

無料送呈＝內容 四十歲頃부터 만흔動脈硬化症、高血壓의原因으로일직일고、또自己가獨自診察法을가르켜그豫防、접어지는法을實際有効的으로 指導하고 더구나 中風의突發을警戒하는 中風血統의人、神經質人、酒煙風體質의人、多血肥滿의中을조와한분、平素머리가 쓰는분으로도中風에안걸인 安全豫防法으로알이고 現在中風에걸여서잇는분을爲하야는 中風에對하야알지안흐면 안되는重要한것을 一一히注意하야 飮食物의 조흔것、납븐것을區別하야自宅에서 돈과 時間、손을덜게하야 只今까지 만흔同病者와조와하는治療法을 곳되게親切히引導하야等閑히할수업는有益한것이오。

希望한분은 明石市東戎町順神堂本家에照會하시면 創製者加古忠兵衛氏는明石市에서 表彰한 奇特한人으로 特히中風患者의救濟에熱心으로 今日까지도多數의罹病者로부터 深甚한感謝를밧고잇소 한번꼭정한 中風患者라도治療良法을어더내게되고幸福한活動의 몸이되야 長生하여잇는분도적지안음으로 悲觀은損이오 早速히 藥書에朝鮮日報에서보앗다고明記하야서兵庫縣明石市東戎町順神堂本家에直接照會하시오。

척수병 脊髓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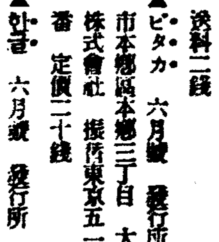
一生에後悔업도록 今日곳藥書를

脊骨變形 骨腐敗症 骨節痛 化膿腫症 痲痺 땅기는症 腦의障害 류마지스 神經痛

腦髓가아래로延長하야、背骨의中을한갈내 생기와가티通하야、知覺神經과運動神經의 中樞인脊髓로되여잇는、事物을생각하고判斷하거나하는것은、腦髓의作用이나、뜨거운火著를쥐인때、생각할새도업시곳놋커나 다리가잇그러진瞬間에、넘어지지안으라고 하는等敏速한擧動은、脊髓神經의機能인故로、脊髓病에걸니면、陰險可恐할病毒때문에、身體의柱徙인背骨이漸漸굽어서佝僂로 되는等、身體의姿勢가부서지는同時에脊髓가病的變質되여甚한것은썩어서膿出이되고 知覺神經과運動神經에、全身的故障을生하야、알코로痲痺되고擧動이鈍하며、手足도 不隨意로되여、往往步行도困難의져룸바리로되고、腦에도害를끼치어서、腦力의쇠衰를낫부게하며、白痴로되는수도잇스나、이救에有名한良藥이잇다아무리大金을써도、當心못할脊髓病과、苦生甚한류마치스神經痛 座藥과外부인治療로는、一時에곳치게할뿐으로언제까지든지、根治안되며病은도리여 進行惡化할뿐이니、決心하고、病이되는原因인體內의病毒을全部掃淸치안으면안이된다 게을니하지말고、一日이라도速히適當한療法과良藥을選擇함이緊要하다、等閑히하면 意外의不具廢疾로되는此病은、年少者에만 生할것이안니라、健康者父兄도勿失好機로특히注意하시기바라나이다。

兵庫縣明石市布中町本通太平堂脊髓藥本家로 便紙하되朝鮮日報에서보앗다고明記하야藥書를주십시요、說明書養生法全部無料로送呈합니다

放心하면漸漸 ◎そこひ目(청명관)이



一日이라도速히곳처야할 諸眼疾의療法에對하야…… ◆療養說明書를 無代進呈합니다

十五夜明月 이라도、구름지라도、自己의現在걸니어잇는청명관이는、元來 이끼면빗슬일호나、內障眼은緊要한腦子에구름이끼다。그호리는障害物의色에따러、白內障、綠內障、黑內障이라고 病名이달으다、청명관에걸녓슬지라도輕할때에는、物體를보기에좃커보한듯하나治療를잘못하야자칫하면白濁라도어둡긔권하게되여서、乃終에는全혀失明되여世上이暗黑으로되는사람이지안타、모처럼多大한治療費를쓴

如何한性質의眼質 인가 그原因과病理를 大略알지못하면 日常의 治療養生方法에도잘못되거나 全혀모하는수가잇고도治療의方針을 잘몰나서緊要한治療時機를 逸하야失敗에빠지는사람이잇슴은 可嘆할일이다爲先患者가第一徹底的으로 하지안어서는안이될일은 청명관이는外部로부터傳染한眼疾과 달러서自己의體質과 蓄積病毒 때문에눈속으로부터 생긴眼疾이다 그래서病名도 청명관이라하야 內障眼이라稱함으로 進步된眼科專門醫學에잇서도、內障眼에는外用藥보다도 內服藥이適當하다고 말하나

眼疾의內服藥 으로 愼重

經濟的으로 治療가便利함

청명관이되는眼疾은 처음에어떠케될가?

청명관이、其他眼疾의原因과病理의알기쉽게仔細한것、飮食物의可否、選擇法日常의養生治療의注意에이르기까지 親切히쓴說明書는、公益을爲하야無代送呈中이니、兵庫縣明石市岩屋神社前進光堂本家로 朝鮮日報에서 보앗다明記하야藥書로照會하시라곳全部無料送付함

連載野談 (卄一)

布袋記

申鼎言 作
金熊超 畫

그미인의눈물(四)

그사나히는 대궐귀영 일측큰 부자집도 가본적이 업섯다.

그러커늘, 나라사람중에 제일 놉흐신 임검이 계신 대궐 또는 그 대궐안에서 만나볼 사람이 지존하신 임검님.

『에이, 떨려!』

하며 그 사나히는 대궐이 각갑게 보일사록 외몸이 벌벌 떨니엿다.

『웨 이리 떨어 어렵죽은 귀신이 잡혓나.』

하며 그 사나히를 데리고 가는군사는 그 사나히가 벌벌 떠는속을 더강 짐작한지라 그처럼 떠는것이 가엽기도하고 우습기도 하다는듯이 말하엿다.

그리고 그 군사는 그 사나히게 와락떨벼들며

『몸에 렬귀를 좀 올여봐!』

하고 몸을 엄지안코 짤내 짤내 한참동안을 흔들엇다.

『아이고 임검의 명으로 사람을 죽이시는것은 이러케 흔들어 죽이십닛가?』

하고 그 사나히는 군사가 몸을 안고 흔드는것을 죽이려는 줄노만 알고 땅에 펄석 주저안젓다.

군사는 그 사나히의 말이너머나 우수워서 깔깔 우스며

『죽이기는 누가 죽이여 추운 귀운이 업서지라고 좀 흔들엇지 아이고 이 병추아 무슨 복에 그런 어엽뿐 안해는 만낫서?』

하며 군사는 여전히 우스면서

『어여차 뚱깨는 게다가 무척 무거웨!』

하며 땅에 주저안진 그 사나히의 겨드랑이를 껴안어서 일으켜 세워가지고 대궐문 밧갓까지 룰아가지고 갓다.

그 사나히는 대궐문을 당도하자 정신이 앗득하엿다.

그래서 한참서서 정신을 차린뒤에 그 군사를 향하야

『임검을 만나면 어떠케 하나요?』

『맛나서가 무어야 뵈압고지』

『엥 임검을 뵈압고 어떠케하나요?』

『절 해야지』

『절한 뒤에는요?』

『업드려야지』

『업드린뒤에는요?』

『묻는 말슴은 대답하고 알외일말슴은 엿주워야지』

『알외일말슴이란 어떠케하는 겐가요?』

『허허 알외다는 뜻을 모르는 수작이로구나. 알외다는것은 네가 할말이잇거든 허란말이양.』

『무슨 말을 하나요?』

『네 허물을 내가 어찌아니?』

하고 그 군사는 곳 그 사나히를 대궐안으로 데불고 들어갓다.

그 사나히가 대궐안에 들어서니 모든것이 으리, 으리하야 바로보기가 어려웟다.

그리고 안해를 뺏길는지 안뺏길는지 그런 생각도 어듸로 다 다러나버리고 오죽 외몸이 떨니기만하엿다.

그 사나히는 이와가티 떨니는 몸으로 간신히 궐하에 니르러 절한번을하고 나서는 두다리를 쭉뻣고 배를 땅에다 딱 부치고 납짝 업드렷다.

『저게 웬지신고?』

하시고 왕께서는 그 사나히가 납짝 업드리는것을 이상히 생각하시며 겻헤섯는 신하에게 물으섯다.

그 신하는 그 사나히에게 납짝 업드리는 곡절을 물엇다.

『악가 군사가하는말이 임검님 압헤 가서는 절한뒤에 업드린다한다』

하며 그 사나히는 떨니목소리로 대답하얏다.

이말을 물으신 왕께서나 여러 신하들까지도 모두 우슴을 터트렷다.

『그러케 업드리라는것이 아니야』

하고 시신은 군사를 명하야 바로 무러업드리게하얏다.

왕께서는 그제야 그 사나히를 향하사

『네 거집이 어엽부다지?』

『예 어엽붑니다』

『어엽븐 거집이 잘하는게이잇다면 그것은 무엇일고?』

『서방질 안는것이 잘하는것입니다』

『서방질 안는 거집이 잇슬간?』

『마찬것입니다』

『그럼 사람인는 김숙한 곳에서 힘으로다 몸으로 피여도 수절을 할가?』

『다른 거집은 몰나도 내 안해는 어되를 가드래도 서방질을 아니할줄 압니다』

『그래? 거만 내보내라!』

하시고 왕께서는 그 사나히를 내 보내신뒤에

『거짓의 마음은 가을 하날에 뜬 구름과 갓다는데.』

하시면서 곳 시신하나를 부르섯다.

★曆★

六月五日(金) 陰曆四月小 (十六日)
戊午·大·午·除
◎望日宮等
◎小滿二十一日(舊初一日)
◎芒種六日(舊十七日)

映畫

映畫製作에잇서서 撮影技師의希望 (一)

梁世雄

모-든藝術에잇서서 映畫는新興藝術이라고까지 부르게되오날에와서 映畫自身이 가지는 그精神의寫實과表現力은 점점 데리케-트하야 우리들의 神經은 나날이 銳敏하고잇습니다 나는 여긔에對하야 다음에 쓸라고하는것은 散文的이나마 캬메라맨의 立場으로서 생각나는것을적간적어볼여고 합니다

映畫撮影機의 렌즈를 通하여서 필림에 化學的反應을 이르키기爲하야 로케-이슨 또는 셋트에잇서서 製作을 할러면 캬메라맨은 自働的이 되지말고 놀監督者와 서로 妥協하야 서로도와주지 안흐면 안될것입니다 서로 도와주므로서 撮影의 第一步가 始作될것입니다

그러나 監督者의 모-든意圖와 男女俳優들의 모-든心理描寫던지 演技에 對하여서든지 그撮影場面이 가지는雰圍氣를有機的으로 매저나가는것은 撮影者의 技術과 感覺입니다

그럼으로 캬메라맨의 立場이 妥協的地位에 잇다하더라도 놀

新藝術家로서의 獨自的境地에 잇다는것을 이저서는 안될것입니다

映畫撮影에잇서서 그寫眞의一般的知識이 아조 重要하다는것은 論할必要도 업슬만첨 一般이 잘알줄압니다

이제다음 몃가지의例를말하면 렌즈의原理로부터 撮影理論, 撮影時에使用되는 네가티-브필림(普通寫眞을 말하면 未撮影의原板)의性質, 色彩에對한感覺性等 또는現像理論의化學的知識에 이르기까지—相當한研究的知識이多樣으로 複雜性을가지고잇습니다 말하자면 撮影技術의研究는너무도廣汎하야 끄치업슬것입니다 그廣汎한撮影技術을 일일이例를들야면 限이업스나 다음撮影技術의一端으로서 二三의內外映畫를例하야 캬메라맨이볼 그作品의效果를 말하고저합니다

『暴君네로』를보신 분들은 잘아실줄압니다 그 스타쥬미의撮影에잇서서 遠景으로부터 네로와 女主人公의 半身에 이르기까지 주-무렌즈(自動的移動렌즈)를 使用하야 흐르는듯한 移動撮影의移動撮影은 렌즈의效果的使用과 手腕잇는 撮影技師의技術과 서로融合된조흔表現일것입니다 勿論 移動撮影도撮影技巧의 一端임으로 조흔콘포지슌을 어더야만效果가잇는것은勿論입니다

夕陽노을에 갈매기가 춤추는 海邊에서 젊은男女가 속삭이는 詩情的風景의 美도勿論撮影技巧와 조흔콘디슌을 어더야만 一層效果가잇슬것입니다—撮影技巧가 가지고잇는 條件은 廣汎하야 일일이 말할수업스나 가령鐵條網의荒野에서 死骸가 점점석어가는 戰爭映畫의恐怖的場面의 그雰圍氣를 아조잘現出하야 그럴듯한構成과 그內容에適合한 照明效果로서 映畫化한最後의巾除를보드라도 우리들은더한층을나지안흘수업습니다—

스탄버-그의作品『모록코』의한場面에 밤아지랑이가 가득한埠頭—그리고 가로누워잇는 巨船의雄姿—等의 撮影技巧와 畫面의향(調子)소리는 夜霧의큰色彩的明暗을 아조 잘表現한것이엿습니다. 巨匠撮影技師 리-감스氏의 完成한 技術이 아니엿드면 아마도 『모록코』는 스탄버-그가 생각한바와가튼 映畫는 完成되지못하엿슬는지도 알수업슬것입니다 더욱이 映畫에있서 藝術的映畫에는 痛切이 撮影技術을느끼게되는것입니다

페이드인(絞り明)오-바랩프(二重露出)또는 가-뎅아우도등의時間的 經過를 示하는 틔크니-크(監督手法上의技術) 렘포(時間的要素)리즘(統動性)의統一, 또는 끗트빽)畫面前後에挿入한 짜른斷片齣)에잇서서 靜物風景等의 有機挿入— 또는天然色 映畫에이르기까지—그리고 트릭크撮影法—이러한撮影技巧는 範圍도廣汎하지만 絕對的으로 映畫製術에 업서서는 안될生命線이며 映畫藝術家에게는 업지못할 手段의 責目일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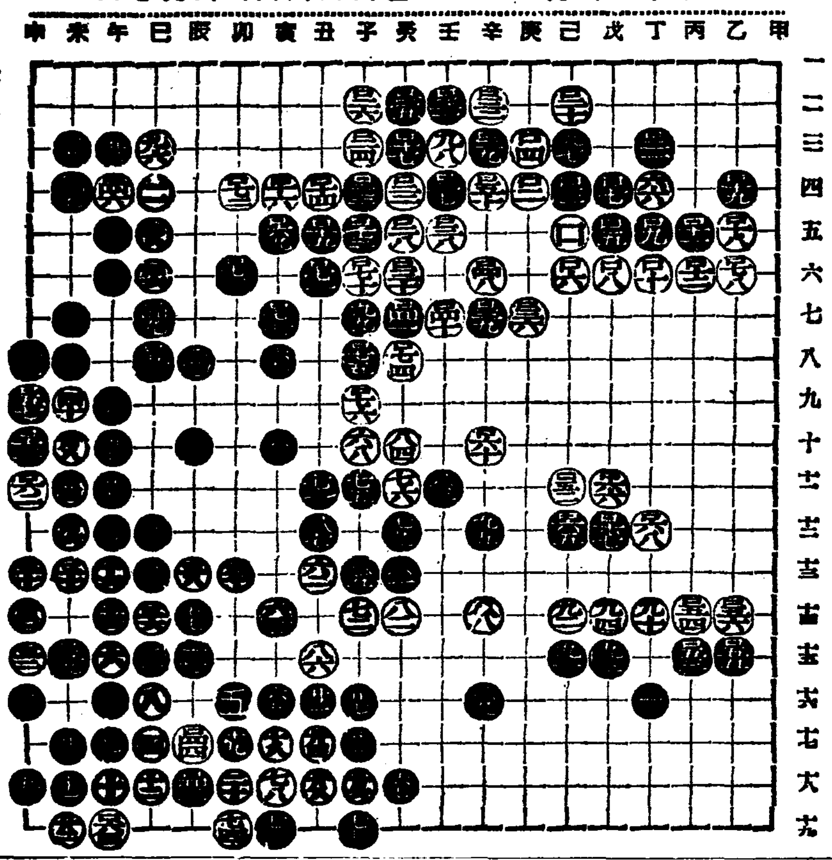
캬메라맨의視野에잇서서의 感覺은 어느나라를勿論하고 同一할것이나 絕對的으로 그撮影所의 技術的設備가 完成된 好條件下에서 映畫撮影을 하고십흔 생각은 누구나 옮즈기지못할 心理일것입니다 더욱이 筆者는 多年間 어느때나 한번 朝鮮映畫界에서 朝鮮獨特한 風景을 背景삼고—白衣의女性을 모델로 한 男女優를 撮影하고십흔생각과 信念은 한두번이아니엿습니다. 그러던中偶然한 好機에 눌마음에그리든 그꿈이實現되여 눈에보이는 모-든것이 繪畫的要素를띄고 到底히 한입으로 말할수업습만첨 一齣의앵글(畫面)로 構成하여준 그 캬메라를 通하야볼때의 내感覺이라던지 에기조픽한 그風景이라던지 캬메라렌즈에비최이는 바다, 山, 水流, 田畑, 등 모-든것이 自然그대로의詩를(읽는것이아니라)보는것가든 忘我의境이엿습니다

☆本社主催☆

圍碁對局譜

—11—

白 丁圭春
黑先 任佑植



●一五九 未의十五
○一六〇 辛의十
●一六一 申의十
○一六二 申의十一
●一六三 申의八
○一六四 午의十九
●一六五 己의十二
○一六六 戊의十一
●一六七 戊의十二
○一六八 丁의十二
●一六九 亥의五
○一七〇 子의六
●一七一 丑의六
○一七二 卯의四
●一七三 卯의六
○一七四 寅의八
●一七五 子의八
○一七六 子의九
●一七七 酉의七
○一七八 乙의六

棊聖文氏評曰 未申十四五區는 互相不侵으로 戌의十二로 成樣하고 黑이 戊의十二로 白區를 縮少코저하나 重城堅陣에 勢不可侵은 理也라 假不如早圖之니라 白이 乙의六으로 達爻引導하니 前途茫茫이 白에게 完勝을 勝稱하노라

試寫室

춤추는부로드웨이

레뷰映畫니 짜쓰映畫니는 이미 그 原產地 아메리카에잇서서도 한 줄이 꺽긴 모양이라고 한다。그래서 그런지 映畫市場으로서 극히 구석진 이 조선에 잇서도 近來로는 그런 映畫를 別로 만히보지 못하게 되엿다。그런데 때마침 M、G、M의『춤추는부로드웨이』가 들어왓다。이 映畫는 一九二九年 同社에서 製作하야 絕讚을 바든 『부로드웨이멜로듸』를 다시 한번끄내어온 뮤지칼 토키로서 이역시各國편의 絕讚을 바덧다고한다。

이야기의梗槪는젊은 레뷰演出家와 엘로페퍼의記者間에葛藤을 사이에 두고 그演出家의同窓女友인 시골處女가 一躍花形으로 出世한다는 것이다 거긔다가 입이 가벼운 新聞記者의 部下 伶俐한 그演出家의 라이피스트 코코는소리를 研究하는 실없는 친구等을 加味하야 事件은 어데까지 輕快하나 比較的 單調치 안케 進行하는것이다。記者의 입을 通하야 紹介되는 摩天樓上의 舞踊신이라든지 아흡밤상아떼서 일어나는 아파트屋上의 舞踊신이라든지 실로 훌륭한 場面이다。勿論 모든 레뷰映畫에서와가티 보고나서 남는것이 업는 것은 事實이나 다른 拙劣한 레뷰映畫와는 달러서 보든 그當場은 누구나 愉快한 늣김을 가지게 될것이다。

『부로드웨이멜로듸』를 끄내어 다고는 하야도 材料며 그 取扱方法은 全然히 다르다 그것은 七年前과 오늘의一般的興味가 差異남을 說明함뿐이아니라 한거름 나아가서는 그동안 映畫自體의 發展까지도 意味하지 안는것이 아니다

主演으로는 단서로서 有名한 에리노아포엘、美男스타의로바트、틸라다。(英語、日本字幕十卷)으로 四日부터 市內團成社에서 上映

寫眞은 同映畫의 한場面

映畫界挿話

랄만흔映畫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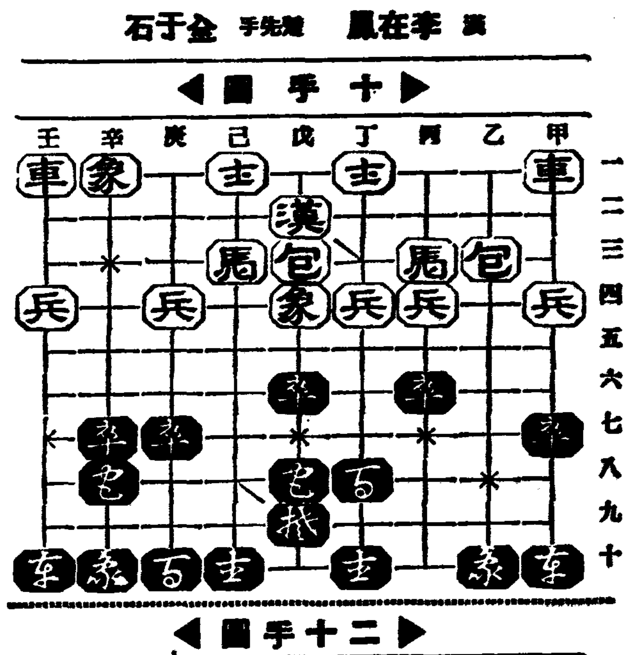
파라마운트社의 『帝國호텔』—이것은 그전 뒷드리히의 豫定 作品으로 되어잇든 『나는 兵士를사랑하얏습니다』 이다— 파라마운트社의 『다산스케이프스』 다。『帝國호텔』은뒷드리히가 主演하지안케된뒤 마가레트, 사라반으로 대신하려하얏스나 그가 拒絕하고 벤트, 데뷔스에게 請하얏더니 와나社에서 고개를 흔들엇다。할수업시 크로데트、콜벨과 議論하얏는데 그도역시 契約書에 署名치 안는다。파라社에서는 모든것을 斷念하고 먹지럼 決定된 샤를 뽀아이에와의 契約도 解除하야 버리고 말앗는데거기 이미 消費된 金額만도 百萬弗이라고 한다。同社에서는 多少 改作하야 가지고 適當한 캬스트를 다시 配定하야서 여름쯤撮影을 시작할 모양이다。그리고 『다산스케이프스』는 今春부터 撮影했는데 언제나 배인것을 다시배이고 또 다시배이어 一向進捗되지 안는다。지금까지 멧달에 아조 完了까지에는 相當한時日을 要하는 形便이다 그런데 벌서 쓴 돈만은 六十萬弗이나 된다고 한다。지금까지 배인 것을 어떠케收拾해 볼찌 아조 再撮影을 斷行할찌 同社에서도 方今 머리를 앓으면서 研究中이라고 한다。

◇……寫眞은 뒷드리히

本社主催 將棋名手對局譜 (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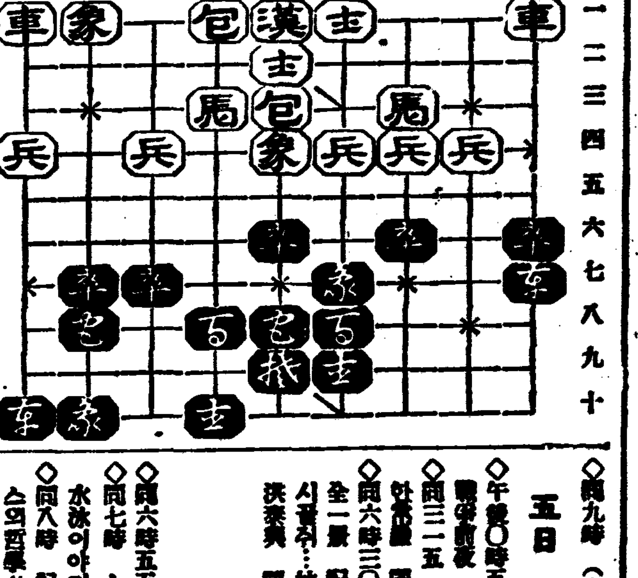
漢 李在鳳 對 楚先手 金于石

◀十手圖▶



◀二十手圖▶

庚十●—己八
乙三包—丁三
甲七●—甲八
戊二漢—戊一
甲十●—甲七
甲七兵—乙七
乙十●—丁七
己二士—戊三
丁十●—丁九
丁三包—己三



朝鮮映畫에對하야 門外漢의注文書 (中)

田又澤

첫재 朝鮮사람의 映畫에서 西洋사람의 몸짓, 손짓 乃至함짓을 하야 노흐니 그것이 퍽 不快하다。누른얼골로 양키노름이 재격에 맛지 안할것은 勿論이지만은 設使 제격에 맛더라도 神通할 것은 업는 노릇이다。그러다고 요前者 春香傳에서 보는바와 가튼 그러한動作을 注文하는 것은 아니다。조선사람이 아모리 슬로모숀의망정 사람이 아모리 더욱이 古代朝鮮人 三年에 피죽한그릇 못 어더먹은 사람가티 그러케 氣運업는 방종장은 아니엇슬것이다。그런데 輕快한듯 浮薄한 양키를 흉내내는것으로서 能事를 삼는것은 오족 朝鮮映畫만의 罪도 아닐찌 모른다。日本內地 映畫를 보다가도 얼치기양키노름에 구역질을 금치 못할 때가 非一非再다。

둘째 양키노름만을 흉내 내기에 注力하느라고 그런지 朝鮮人사람의 表情을 能히 理解하는 사람이 업는것도 遺憾이다。흔히들 朝鮮人사람은 表情이 업다고 거칠하지만은 動物도 어느程度까지 表情이 잇는 以上 사람으로서 업을理는 萬無。하다오래가만에戀人을 만나서 얼싸안코 덩비고 비비고하는것만 表情이 아니라 행자치마시고리를 입에 물고 켠는질을 하는것도 表情이아닌가? 어떤것이 더 조흔것인지는 모르나 何如튼 朝鮮의 映畫에는 朝鮮人의 表情을 나라내 주어야 할것이 아닌가? 그러나 그것도 研究를 要한다。無條件 될것이 아니다。

셋재 제가 마를만한 役을맛지안코 그저 할부로 나서는듯도 십다。主演을 에워싸고 競爭이 일어나는것은 오히려 어린嫉業心으로 容恕하더라도 主演以外까지도 그러한 弊害가잇지 안한가고 推測된다。그뿐이 아니라 自己가 마른 役을 어떠케 忠實히 表現하야 갈까를 생각지 안코 흔히 이機會를빌어 觀衆의아페 어떠케 自己의 存在를 뚜렷이 하야볼까에만汲汲한것 갓다。그것도 一種의 어리석은 虛榮心의 發作이겟지만 오히려 그래가지고 觀衆의 厭症乃至 미웁까지 사는 수도 업지 안타는것을 記憶하여야한다。

다섯재로 되지못한 이데올로기를 中心삼으려는 것은 무엇보담도 注意하여야 한다。그 이데올로기가 畫面뒤에서 울속인다고 하더라도 不純味를 가저오기 쉬운데 況且 表面으로 밧처 나서서 그때문에 事件이 無理하게 흘르고 또 그때문에 觀衆이 强迫觀念을 늣기게되다면 더 말할 나위조차 업다。

羅雲奎氏는 朝鮮映畫界에 잇서 누가 무엇이라든지 빗나는 功勞者요 또 前途가 囑望되는映畫人입에 틀림이 업스나 그의 缺陷이 여긔 노혀 잇다。내가 본것만도 江건너 마을이라든지 아리랑 第三篇이라든지 모도다 어떠한 이데올로기 그나마 眞腐하고도 深刻치 못한 이데올로기아래 失敗하고맘앗다。나는 루네、크렐을 조하한다。또 나는 그가 自己派의 어떠한 이데올로기아래 作品을 生產하고 잇는 줄로 잘 안다 그러나 그는 映畫를 映畫대로 살리어 가면서 이데올로기를背後의 그림자로 보여 줄 뿐이다。그뿐더러 才氣煥發한巴里兒로서 그 이데올로기는 좀더明朗하고 新鮮한 맛으로라도 참어 좋수가 잇는것이다。

四日 (木曜)

◇午後六、五五 兒童新聞
◇同七時 스포-츠講座『水泳이야기』(一) 徽文高普 李一
◇同八時 講演『서울의城郭』 金日坤
◇同八時三〇分 音律 『靈山會像』 朝鮮正樂傳習所員
◇同九時 라듸오·드라마 『牧師』 一場
配役
吳敬載……牧師……申左甁
泰植……그의딸……吳愛葉
泰順……그의아들……李春峰
金昌洙……出獄者……宋在善
演出 同人會 申在觀
効果 宋薰
◇同九時三〇分 愁心歌外 一、平愁心歌 二、역금愁心歌 三、楚漢歌 四、寧邊歌 五、山念佛 六、夢金浦打令 金玉仙 대금 金永根

第一放送
◇午後六時 (大)衛生講座 大阪衛生試驗所
◇同六時二五分 趣味講演 毛利元良
◇同七時三〇分 (京)講演 京城醫學部長 前田鼎
◇同八時 (前)(仙)河鹿의우름을듯는다
◇同八時一五分 (大)뮤-지칼도라마 荒城의달 金森澤一外
◇同九時 (東)浪曲漫談(上)

五日 (金曜)

◇午後〇時五分 映畫이야기 最後의前夜 成東鎬
◇同三二五 婦人時間 花草에對한常識 同德女高 安在鶴
◇同六時三〇 兒童時間 시골로가자 全一景 配役 서울사…金維培 시골사…朴敏榮 洪泰興 同二…식당보이一… 도루미會 指揮 金相鎬 伴奏 金俊赫
◇同六時五五分 兒童新聞
◇同七時 스포-츠講座(二) 水泳이야기 徽文高普 李一
◇同八時 紀念講演 〃소크라테스의哲學〃 文章郎
◇同八時三〇分 唱劇調 一、短歌 〃京畿歌〃 二、唱劇調 〃春香歌中御使出道하는데〃 李東伯 鼓手 韓成俊
◇同九時 獨唱 一、菩提樹……슈-베-르트曲 二、詩人…… 〃 三、放浪者……쇼-팡作曲 四、봄에……메스카作曲 五、아델라이데……베-토벤作曲 피아노 李興烈 安輔承
◇同九時三〇分 玄琴과大笒 一、散調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엇모리 (라)자진모리 二、새타령 (大笒獨奏) 玄琴 韓相顯 大笒 朴鍾基 杖鼓 丁元燮

第一放送
◇午後〇時五分 (東)立體漫談
◇同〇時三五分 (大) 國民歌謠 奧田良三
◇同二時 趣味講演 小生夢坊
◇同六時 (釜)六時 이야기 鬪屋五十二
◇同六時二五分 (東)基礎英語講座 鹽谷榮
◇同七時三〇分(東)講演 荷見安
◇同八時(前)(仙)河鹿의우름을듯는다 時間
◇同八時一五分 (札)俚謠 金森傳七郎
◇同八時二十分 (大)箏과尺八 樂久本玄智外
◇同九時 (東)浪曲講談 一龍齋貞山

六日 (土曜)

◇午後〇時五分 (大)吹奏樂
◇同三時一五分 衛生講演 『파리모기의害毒』 大學病院衛生學教室 朴容海
◇同六時三〇分 幼年童話의저녁 一、마음착한산양군……李耕宰 二、바보의꾀……梁昭榮
◇同六時五五分 兒童新聞
◇同七時 時事解說 朝鮮日報編輯次長 咸尙勳
◇同八時 講演 『生活의合理化』 李克魯
◇同八時三〇分 一、黃鷄詞 二、春眠曲 金錦桃 金點紅 金永根
◇同九時 古談『甕中龍』 愼麟範 大笒 金永根
◇同九時三〇分 流行歌 一、新農夫歌 二、물새야왜우느냐 三、고기배 四、두사람의사랑은 五、님이여잘잇거라 六、첫사랑의꿈 七、빗나는靑春 姜弘植 伴奏 DK管絃團

第一放送
◇午前六時三十分 (東)基礎佛語講座 丸山順太郎
◇午後二時 (京)家庭講座 武居三吉
◇同六時 (大)童話 大阪童話敎育研究會
◇同六時二十五分 (東)科學趣味講演 志村繁隆
◇同七時三十分 (大)浄瑠璃
◇同八時五分 (大)獨唱과二重唱 河合武雄外
◇同八時三十分 마리오、로요 北澤勞
◇同八時三十分 獨唱과獨奏 첼로 高勇吉 南部다가네
◇同九時 時事解說

中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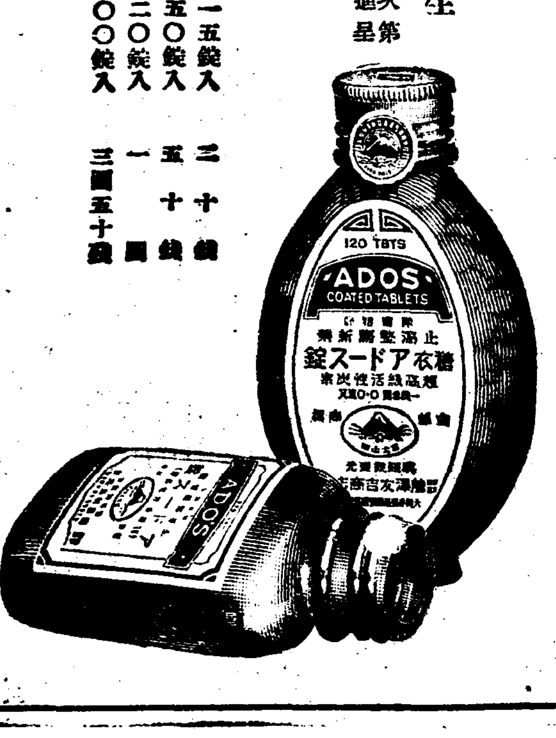
夏節은食物이腐敗하기쉽다、特히牛豚肉 魚肉 鷄卵豆腐等蛋白性食物의 腐敗로생기는、무서운푸도마인 中毒、肉類에附着되고잇는黴菌으로부터생기는中毒이나 菓子의 染色에 付着된 有毒色素食物의곰팡이로부터 생기는 中毒其他藥物中毒等에는、곳 效果迅速한 아도-스錠을服用하라。

아-도스錠은腸內에停滯된中毒症狀의原因이되는 毒素黴菌粘液을吸着하며 조곰도 腸을傷치안코體外에搬出식히는作用을갓고잇슴으로써어떠한中毒이라도完全히治療하는特効劑이다

適應症
食餌中毒、藥物中毒 急慢性腸가다루 腸치푸스、赤痢疫痢 一般泄瀉、慢性便秘 醱酵性泄瀉 鼓腸胃酸過多症、虎列剌

여름부터가을까지의衛生
申込次第 無代進呈

糖衣錠
一五錠入 二十錢
五〇錠入 五十錢
一二〇錠入 一圓
五〇〇錠入 三圓五十錢



アドース錠
아 도 - 스

株式會社 藤澤友吉商店
大阪東區道修町 [illegible]

貸付料가 말성되여 細農民對道廳對峙

五百餘名細農은 結束不拂

道廳側서는 斷乎差押意向

—事態의 歸結을 注視—

【咸興】작년도에 함남도토목과에서 함주군동천면、덕산면(東川面、德山面)구역내의 호련천(瑚璉川)하천부지 이십여만평을 약팔백여명의 세농민에게 변십오전내지 칠전식의 대부료를 정하고 대부경작케하엿는데 금기야 수확기에 이르러지자 배수(排水)등이 최초 예산과 전연달러 수확고로서 대부료도 자불치못하게되엿다는것으로 대부마른 세농민들이 루차결속하야 도토목과에 대부료감하진정을 하야오든바 그후도당국에서도 일단결정한 대부료는 절대감하할수 없다는것으로 강경한태도를취하야 그귀추가 자못주목되고잇엇다 그리하야 작년말의대부료 납입기까지에정한바 대부료를 납입한사람이 팔백여명중 이백오십명가량바게 안되고 그나머지 오백여명에 삼천오백여원의 대부료는 전부결속하야 자불하지안코 이미오개월을 지난오월말까지도 그냥버티고잇다 지주의태도가 이려케 굿세게 나가는동시 도당국에서도 전변도 세입예산정리상 할수업시 강제차압이라도할 작정이라는데 이제 까지 강경히버티고잇든 오백여명 대부세농들의 태도가 극히 주목되여과연 이가든 세농민들이 삼천오백여원의 대부료를 자불하게될는지가 매우 주목되는 바라고한다

江西地方에 移秧滋雨降下

【江西】강서지방에는 오래동안 비가내리지 아니하야 농민들은 이앙긔(移秧期)를압두고 하날만 바라보며 한결가티 비오기만고대하고잇더니 지난삼일 오전두시부터 나리기시작하는 비가삼일저녁까지도 끈치지안코 내리여 농민들은 이앙준비에 분망중이며 희색이만면하다고한다

元山漁業의 牛耳 鯖漁業漸次衰退

凶魚繼續、從事者年復年激減

漁港元山의 大脅威

【元山】근래 원산항마얼대의고등어어업은 소화이년이래 구년동안이나 장긔의 흉어로 말미암아 막대한 손해를 거듭바든결과 점차 이에 투자하는 어업가가 줄어가서 작년은 그래도 륙、칠십척가 되엇스나 금년에 일으러는 랑성(浪城)지방의 사、오척를 비롯하야 불과 십척이내의 쇠잔한 현상을 비저내고 잇다는데 금년마저 안잡힌다면 명년에는 이사업에 손올댈사람이 업서서 전연 소멸될 우려도 업지안허잇는바 더욱이나 녀름철의 생활을 이고등어로 말미암아 어항부두에서 로동하여 살아가든 수천로동자와 고등어모리에 종사하든 연안어촌민의 생활상 대타격을 주어 지금 고등어잡이 당철을 당하엿스나 대공황중에 잇다고하며 원산항마얼대로 오락가락하든 사오백의 고등어잡이배도 대부분 그영자를 감추게되여 금년여름은 어항도 쓸쓸하리라고 한다。

二千餘名觀衆으로 面民運動盛況

【釜山】부산부외사하면(沙下面)내에잇는 본보독자가 중심이되여 제사회 사하면민대운동회(沙下面民大運動會)를 개최한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예정과가티 지난 삼십일일오전십시부터 사하공보교운동장에서 개최하얏는데 당일은 다행이 지금까지는조치못하던 일긔가 구름한점업시명랑하야서 이백여참가자는 물론 일반면민들도 일년에 한번식마지하는 즐거운 모임이라 남녀로소를 물론하고 이천여명이운집하얏고 각종경기도 순서잇게 진행되어 오후륙시에 대성황으로 무사히 폐회하얏다한다

組合長不正問題로 洑組合總會波瀾

組合長留任으로爲先段落이나

今後動向如何를注目

【沙里院】사리원정보에 관계지주 일천사백여명을 조합원으로하고잇는 봉산군(鳳山郡) 어지둔보조합(於之屯洑組合)은 지난 삼월 삼십일에 동조합평의원회에서 조합의 출납문서를 검열한결과 의외에 조합장 최건호(崔健鎬)씨가 조합규정에 버서나는 공금 일천여원을 함부로 사용、또는 지불한것이 탄로되여 동평의원회에서 추궁한결과 공금을 사용 또는 불법지불한것을 변상할것을 언명하고 즉석에서 인책사임하여다함은 당시에 본지에 보도한바와 갓거니와 동조합에서는 정관에 의하야 사월이내에 정긔총회를 개최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시일을 지체하야 오다가 농촌에 이앙긔로 가장바뿐 지난 륙월이일에 사리원 공나관(共榮館)에서 정긔총회를 소집개최하엿다 일개의 수리관안 보조합총회이나 문제가문제이엿든것만큼 조합장배격파 조합장옹호파가 대립되여 잇슴으로 만일을 념려하야 사리원경찰서에서는 무천(武川)고등주임이하 정사복 경관십여명이 경계를하야 입장하는 조합원의신체검사를 일일히하고 고등주임의 의사진행에대한 주의가 잇슨후 개회를하엿다 출석조합원 이백칠십팔명、위임장(委任狀)오백사십구명으로 과반수에 의하야 의장 조합장 최건호씨가개회를 선언하자 벽두에 김긔종(金基鍾)씨가 지난 삼월삼십일의 평의원회의 의사록(議事錄)랑독을 요구하매 그 랑독요구에 호응하는데 다수의 배격파와 랑독불필요를 주장하야조합장의 당시평의원회의 의사긔록에써잇는 인책사임하게된사실을 엄폐(掩蔽)할려고 하는옹호파가 서로 의론이 충돌되여 의사를 진행못하고약비시간동안이나장내는 수라장화하엿섯다 례의조합장사임리유를 총회에 설명하야 달라고 추궁하매 조합장은 개인의사정상사임하엿다는 모호한 설명으로 하니 동조합의 평의원인 인정수(印廷洙)씨가 조합장의사임리유의 엄폐를 타매하고 평의원회의 의사록을 장내요구에 의하야일부랑독을 하는동시부정사실로인책사임하엿다는것을선명하는일방 부정사실에 내용을수자적으로 따저 회장에 공개하며 의장이 이러한 부정한 과실이 잇슴에도 불구하고 하등 량심에반성이업시 신성한회장에 의장석에안저잇다고 퇴장을 구하자 양방의대립이 더욱격화되여섯다

구체적으로 조합장사임수리의 건을 투표결의에 부하야 투표한결과 결국조합장 옹호파가만허 형식상 한번적으로 조합장을 류임하기결정하고 아래와가튼의안을 토의한후 동팔시경에 폐회하엿는데 동 조합장은제가 일시 호도(糊塗)하엿다할지라도 조합장 배격의 세력이크니만큼 압흐로 동조합은 일층 난관과 불상사에 봉착하리라고 일반이 관측한다

議案

一、組合長及理事辭職의件

二、昭和十一年度於之屯洑組合歲入歲出豫算의件

三、昭和十一年度於之屯洑組合費賦課率決定의件

四、昭和十一年度於之屯洑組合費一時借入의件

五、昭和九年度於之屯洑組合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

六、洑水使用許可願의件

今井氏特志

【三登】오년동안에 백여호의 전동민의 문맹퇴치에 진력하야왓다 엇던남부안군 일로면 망동리(一老面望洞里)는 백여호나 되는인구가 거의 문맹에 헤매이든바 지금으로부터 약륙년전에 금정일웅(今井一雄)씨가 동리에 오게되자 전동민이 너무나 우매함을 크게 개탄하고 무엇보담도 문맹퇴치가 급선무인것을 알고 사재를드려가며 망동학교(望洞學校)를 세우고 이래오년동안이나 꾸준히 노력하여오는데 현재 칠십여명의 남녀학생을 동리청년 량풍석(梁風錫)군과함께 가르키고잇다 한부형은 그의 공적을 긔념코저 방금긔렴비를 세우는일방 교사확장준비에 분망중이라한다

醫生講習開催

忠南各郡單位로

【大田】충남도에서는 제작년과 작년도에도 도위생과 주최로 도내에 산재한의생(醫生)을 전부대전(大田)에、회집하야 의생강습회(醫生講習會)를 개최하엿든바 금년부터는 각군에서강습을 증치하야 각군단위의 의생강습회를 개최하기로 되엿다고한다 회기는 륙월 중순경부터칠월말까지 매군에서 상명간식계강하리라고한다

任正錫氏의 美擧

【寶城】보성군미력면도개리 임정석(寶城郡彌力面道開里任正錫)씨는 동면내의 빈민에게 종곡 삼십여석을 파종시에 분급하엿이엇섯는데 동면민은 씨의미거에 대하야칭송이 자자하다한다

船員이 乘客亂打 金品을強奪逃走

被害老婆는方今生命이危篤

甕津郡下의怪事件

【甕津】뱃사람이 자긔의배에탓든승객을 란타하고 소지금일십원을 빼아서가지고 어대로인지 행방을감추고 피해자는 방금생명이 위독하다는데 사실을 탐사한바에의하면 아래와갓다

지나간 이십팔일 오후두시경 황해도 옹진군마산면 양암리(陽岩里)김천수(金千水)(º)란 로파가 볼일로인하야 룡호도방면에 드러갓다가 동군동남면무파리(東南面茂巴里)사는 민종석(閔宗錫)(º)이와 흥미면창암리(興嵋面蒼岩里)사는 추영익(秋永益)(º)의두사람이 공동으로 부리는 목선을타고 무파리 도선장까지와서 별안간 전긔민종석과 추영익은 배에서 김천수로파를 무수란타한후에 로파가가지고잇는돈 사십팔원륙십이전과 추영익이가를 가로한 액면일백륙십원의 차용증서두장과 인장다섯개와 기타서류를 빼아서가지고 김천수로파와 기타승객들를 무파도선장에 내려노코그선원들은 급히로(櫓)를 저어서 서해를 향하야 어대로인지행방을 감추고 말엇다는데 로파는 가려닷는 손님들의 주선으로 자동차로 마산에가서 마산의원장 리경화씨의 손에치료를 밧고잇스나 방금생명이 위독하다는데 이의외의 참변을당한 그의가족 두사람이 그잇튼날인 이십구일에 무파도선장에 나가서 그들의 행방을 아라본결과 그들은 모다 종적을 감추고 마럿는데 현금사실탐지에 십이전이 드러잇든 지갑에는다만십원이전의 돈이 남아잇든것과 도장다섯개와 기타서류만을 차저가지고 도라왓다는바 전기두선원은 평소에 도박상습자들로서 소행이 극히 불량하얏다는바 피해자측에서는 의사의진단을 맛터가지고 구타、협박쪽행 강탈등의 죄명으로 고소를 제긔할터이라고한다

文川郡都草面에 大精鍊所設置

大財閥住友會社에서

【咸興】일본내지의 대재벌인주우합자회사(住友合資)에서는 동회사의 송유광산인 고원(高原)광산을 비롯하야 동군일대에잇는 수삼처의 대광산을 목표하고 제련소(製鍊所)를 설치하려고 계획한는바 이번구체화하야 문천군 도초면(文川郡都草面)에 공사용지로 일천평을 매수완료하야 근일중 공사에 착수하리라는데 공사비만 이백만원의거액에 달하는 대정련소(精鍊所)라고한다

賣却斃死等關係로 牛豚조차도潛影

今年作農에는거이束手無策

咸南의무서운凶禍

【咸興】함남변지는 련상련간흉심한 흉작으로 인하야 라재민의 식량이 전혀떠러저 생사선상에서 헤매고잇다는것은 루보하는바이니와 그보담도 더욱참당한것은 생명가티녀이든 축우(畜牛)를 먹일것이업서서 죽여버리다터지 또한 팔어버린것이극히만타 작년도말 함남도산업과에서 북조선개척사업구역내 일만칠천호농가의 축우를 조사한것을보면 순전히 흉작으로 말미암아 소가굴머죽은것이 이백삼십오두에 매각(賣却)한것이 삼천사백팔십오두의 다수에 달하는데 이러케 다수축우가 업서젓슴으로 금년농경에는 단지 손을쥐고 어찌할지모르고 헤매는농가가 극히 만타고한다 그리고 그외에 도야지(豚)가 폐사한것은 사천륙백삼두나 된다는데 얼마나 흉작이 혹심하엿는가를 여실이 보여주고 잇다 이제 각지도구별로 보면 다음과갓다

	斃死	賣却
惠山	一〇三	七〇二
仲坪場	二	一一六三
長津	一一〇	一六二〇
計	二三五	三四八五

桑木의凍死 今春養蠶悲觀

【汶山】조선농가의 유일한 부업이라면 누구나 양잠생산(養蠶生産)인줄은 공지하는 바이대 이곳파주(坡州)지방에는 작동의 신긔록을 작성한 혹한으로 말미암아 상목(桑木)이 거개 동사하야 버리관계상 금춘양잠의 전도를 비관하고잇다는바 금년 파주군내 소립매수는 일천백매로서 작년도 일천륙십팔매에 비하면 삼십이매의 증가를 보엿는데 전긔와가티 뽕입의 발아가 순조가 조치못한것은 중대한 사활문제라고한다

印紙詐欺에刺戟 大田署서調查

【大田】긔보—사법서사의몽오로 사건을 의뢰바더가지고 인지대 륙백여원을사기한 대서인이 지난일일대전경찰서에 류치되여취조를 당한다함은 작보한바와갓거니와 이사건을 미루오보와 다른대서인도혹그와가튼일이나업나하야 대전서에서는지난이일시내십여호 대서소의장부를 전부압수하야다가 일일히 조사하는중이나 다른곳에는 전기와가튼 행동은한 대서인은업는듯하다고한다

在奉初等學校巡禮記【四】

太公堡普校篇

歷史가가장年久하고 諸般設備도亦是充實

只今도校運는날로擴張되는中

지금쓰라는太公堡學校는奉天의우리社會에 人才를 만히나어주고 歷史가 가장오래되고 또한設備가亦是充實한學校이다

조선내지에서는 봄비가보실보실 내릴때엿만 大陸性인 이따에는 봄비조차도 소낙비처럼 쏟다지는 五月一日午前九時엿다 비를마지가며 構內에차저드니 運動場擴張工事를하든 人夫들이 記者를 처다보고 키가넘우크다는등 短校이泊來品이라는등 한참놀려대고는 洋服장이놀려주고 氣分이 조흔지 自己네끼리 한참웃어댄다 엇잿든 그친구들의 조롱을 바더가면서 陽春을마지하야 노랏케옹든는 楊柳사이를지나 푸른煉瓦建物이 宏壯히느러선집을 向하고 거러가니 公太堡普通學校라고 大書特書한看板이붓허다 玄關에드러서 「녹크」하니 校長張義煥氏가 敎授를끗내오시는길이엿다 事務室에案內되여 비에저즌옷을 터러서납先生에게 學校에對한來歷과 現在의校勢를 뭇기로하엿다 張先生은 이學校에오신지가 一個月바게안됨으로 多年間이學校에서勤務하신林世興先生을 차저서 詳細한것을 案內하야주신다 大正九年九月에 이곳에서 四面으로떠려저잇는 洪家屯이란곳에 有志林學根 李炳周氏等이 基督敎會堂을 비러서 名稱을 大同學校라하고 開校하엿다 當時에는 地方住民의힘으로 維持하얏스니만큼 貧弱하든것이 現所在地인公太堡五間房에 東亞勸業株式會社農場이 擴張되는 同時에 우리네農家가 多數히 移住하게되고 學齡兒童이 增加되여 當時의 假校舍로는 밀려드는兒童을 收容할수업고 그럿타고 財源이업시 敎室을 새로建築할수도업는 딱한事情에 빠지게되엿슴 大正十一年六月에 東亞勸業會社가 經營權을引渡하고 校名을公太堡普通學校라고 變更하엿다고한다 大正十四年度에와서 公太堡五間房에 校舍三敎室을 新築하고 同十五年二月에 移轉하엿다 昭和六年에 校長李鍾文氏(現東亞勸業校長)를 마지하고 五年制를六年制로 延長하는同時 其翌年에 校舍二敎室을 增築하고 同九年에 地方民이 五百餘圓을 負擔하고 東亞勸業의補助를 바더 二敎室을 또增築하고 完全히六學年制六學級으로 만드럿다 이와가티 敎室을每年增築하고 學級을每年增設하야 오늘의完全한 普通學校로서의조곰도 遜色이업시함에는 前校長李鍾文氏의 敏活한手腕이엿다고한다 참으로 運動家다운 運動家이시요 敎育家다운 敎育家이시다 再昨年十月에 이學校도 奉天朝鮮人學校組合으로 經營權이移管되고 今年四月에는 組合當局의 人事移動에依하야 校長張義煥氏를 새로마지하게되엿다 張先生은 水原高農을나오신후 十餘年을 農學校敎로 만흔經驗을 쌋흐시고 渡滿以後七年間이나 株式會社協濟公司에서 勤務하신關係로 滿洲에잇는 우리네의事情을 詳細히아시느니만큼 公太堡農村으로서는 이와가튼 優越한指導者를 마지하게되여 將來校運이 隆盛할것과 地方이發展될것을밋는바이다 學級數六學級 在籍生 二百三十名 卒業生 百五名 現校長 張義煥 敎員五人

(奉天支局 一記者)

◇×寫眞學校의一部와 校長張義煥氏

都計令實施압두고 惡臭와騷音征伐

警察部와警察署聯合工作

【平壤】평양에 시가지계획령적용을압두고 평남경찰부와 평양서에서는 준비공작으로 공장가와 각방면에서 조사를진행중인데 평양시내에는 현재 공장의 악취와 소음(騷音)때문에 부민은 두통을느기고 잇는터이므로 공장의 취체규측은 아직업다고는하나 공장주에게 적당한시설을 하도록 권고하고 부민의생활에 폐해잇는공장을 이전케할 의사라고한다

그런데 시가지계획령 제오조에 의하면 신축가옥은 물론 괴설가옥이리도변소(便所)에는 파리가 드나들지못하도록금망(金網)의설비를하고 오물처치장소나 도오물매립지에 가옥을 신축하는경우에는 보통지면보다 일척을놉혀야된다 이때문에 도위생과에서는 지금부터 가옥신축허가를 할때에 이조건을 적용키로되여 관내각서에 통첩을발햇다

海券役員改選

【海州】주식회사해주권번에서는 역원들과 사장 전무취체역간의 의견충돌이 원인이되여 오월십륙일에총사직을 단행하고잇든바 동삼십일일 오후한시부터 림시총회를 개최하고 역원개선의결과 적긔와가티 선임되엿다한다

▲社長 吳敎根 支配人 元楨孫 取締役 元楨根 崔永澤

本社平壤支局後援 全平壤男女基靑 懸賞討論大會

十三日於白氏記念館

【平壤】긔독청년면려회 평양련합회 지유부에서는 본사평양지국후원으로 오는십삼일(토요일)오후여덜시 삼십분부터 부내백선행긔념관에서 제일회 전평양남녀긔독청년현상토론대회를 개최하기로되엿다

연제(演題)는 『현대생활상 필수요소가 정신문명이냐? 물질문명이냐?』는 현하우리사회의중대문제로 참가자격은 다음과갓다

◇參加規定

一、資格 敎會內勵會中 一團體六人以上不許

一、原稿는申請書와同封하야 六月八日(月曜日)午後四時까지新陽里聯合會事務室인 馬布紀念館으로보낼것

一、時間은 十分間

一、賞品은 一、二、三等과便賞

安東縣舊市街堤防 築造工事着手

三個年繼續、工費二百萬圓

【安東縣】안동현구시가는 매년 압록강물이 범람되여 피해가 만튼중 금년부터 삼개년을계속하여 제방을 축조키로되여준비중이든바 총공비 이백만원으로 금년은 대사하(大沙河)一천七백三十(米)연안을 축조하고 명년은 칠도구(七道溝)와 팔도구(八道溝)사이 (六백二十米)축조와 아울러 원보산(元寶山)에 『굴』의개소를 굴착하고 래명년에는 압록강연안 즉 대사하에서 신시가제방까지 축조키로되여수일내로공사에착수하리라한다

安東市民運動會 贊助金品遝至

【安東縣】오는 음사월십팔일리광랑제일을 리용하야 시민대운동회를 개최한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일일까지 들어온 금품은 다음과가트며 금번에는 특히삼일간을 계속하야 씨름、추천、륙상경기등의 대성황을 예상케된다한다

▲李官府五十五圓▲朝鮮人民會五十圓▲安東朝鮮人金融會、共和精米所、高田精米所、鶴與精米所、共榮社、徐丙華、永昌醫院、各三十圓▲共昌商會、[?]洪、金成寶、泰[?]醫院、義成號、各二十圓▲三和精米所商[?]商會、鴨江麵店、金井商會支店、利和時計店安東支店、順川醫院、大同靴皮公司、興境物產安東支店、崔致昊、安東取引人組合、李泰永、金東爵、安東取引所、金志善、信益商會、吳永寶 各十圓▲燕[?]會一同六圓▲도모에洋服店、朝鮮證券公司張昌復、金昌號、春滿精米所、金聖福、金孝德、金仁淑、松竹館、丸金商店、安伯世、金安公司、金國成、康德浩、中央寫眞館、東興商會安東支店、金命俊中央기네마、金龜連、白龍寶、金承李金東昊、李忠根、各五圓義成商會 朝日旅館、綠新館、大松商會文仙館 如來號、福昌商會、豊源商會 李白山、吳鳳基、張基福各三圓▲平原屋崔忠元、東昌祥 金泳權 金成商店、嶺南旅館、安鴻春 義州[?]店、黃昌號、大昌商會中央精肉店、第一館、全最玉 金啓寶 金瀅權、韓一松、山川洗布所、李鋼烈、鄭允文、高鋼宇、鄭燦亨、申昌龍、三省公司、崔賢奎、金應虎、金永煥、金義喆各二圓▲金弘琪、李成模、趙致奎、迎春閣、鄭致祿、鄭元奎、時代洋服店、大陸製靴店、金寶源、劉根植、羅龍一義龍號、金滿商會、白金堂、李慶植、安[?]、大興商店、金聖學、新滿洋靴店、李[?]萬、、金元寶、朴官、白日[?]、車均柄、崔淳玉李承鼎、安山麵店、桂石培、金光[?]、興城旅館、半月館、德一商店、海東旅館、江界旅館、洪致俊、李金同、金時淸、金昇煥金鍾漢、吳致善、金永杓、金尙根、鄭乙庚、姜永奎、各一圓

(以下繼續)

端午佳節을卜하야 全朝鮮自轉車大會

安岳輪業組合主催

【安岳】오는륙월이십일일 이십이일량일간 안악읍신장리 공설운동장에서 안악륜업조합(安岳輪業組合)주최와 본보안악지국외두지국후원으로 전조선남녀자전거대회를 개최할터이며 경긔에 대하야는 일류(一流) 이류(二流) 삼류(三流)로 난우어 일류결승일착 선수에게는 현금일백원과 우승긔 그타부상이잇슬것이며 이삼등에까지도 후한 상이잇슬것이요 이삼류에도 일류상에 비례할것이며 신입금은업고 기일과장소는 오는십구일까지 안악읍조일자전차상회(朝日自轉車商會)로 하기로 되엿다 당일의 성황을 예긔하며 대회임원은 아래와갓다

會長 李始馥 副會長 劉在華 總務 崔齊泰 會計 柳治浩 書記 李明球 鄭宜烈 施賞係 李始馥 劉在華 出發係 植原雲柳 河善 韓継國 金成乙 審査係 韓繼國 崔齊泰 召集係 朴濟根 準備係 崔萬華 劉在華 柳原安五郎

五山高普學父兄 圖書費를喜捨

【古邑】정주오산고보(定州五山高普)가 재작년화재후 학교당국및사회일반의 노력과후원으로 훌륭한 교사를 건축하고 내용설비에 주력하야오다함은 이미루보한바와 갓거니와 지난이십일당교를 내방한 학부형제씨는 학교설비로 써달라고 금오백원을 자진 희사하엿다는바 그들은 재단법인긔성회에도 만흔공헌이잇섯다고한다

金彭年一五〇圓 金鑾德 金贇濤 金運權各一〇〇圓 文道濟五〇圓

地方人事

▲張德周氏(義州公普校訓導)新任人事次本社義州支局來訪

▲朴吉順氏(同上)同上

▲宮澤完三郎氏(鐵原郡守)新任人事次 本報鐵原支局來訪

▲朴勢淳氏(坡州郡守) 新任人事次 本報汶山支局來訪

大築港實現과高周波重工業의進出로 景氣膨湃한城津

여러한急速度의發展裡面에

細民만은苦痛이尤甚

【城津】상공도시 성진의 주민들이 십팔변간이나 계속적으로 갈망하여오든 대축항예산(이백륙십만원、오개년계속사업)이 지난번의회에서 무사히 통과되엿고 여기에따라 세계적화학공업 일본고주파중공업(高周波重工業)주식회사조선공장이 성진상포에 획정되야 지가는 날개를 펴고 이배내지 이십배이상까지 올라가 성진시내는 물론 린접산간지대 공장부지부근방면에는 토지투긔열이 팽창하야 부자연의 토자호경긔로 이혜택을 입는자들은 자못란무하는 상태에잇다고한다 이에 지난이십구일 공장부지실지검정차로 래성한 동회사 사전(砂田)회장 고교(高橋)전무등의 발표에의하면 공장부지는 삼십만평、자본금은일천만원인데 경우에 의하야는그이상 투자할 예정이며 전력은 오천키로의 자가발전을 계획하고 잇다 한다 그리고 본사업의 진전에따라서 불원한 장래에 성진에 군부의 포병공창(砲兵工廠)도 진출하게 될것이라고 말하며 공장용지 매수에대하야는 군경기타공서의 알선으로 불입간 최고일원 최하사、오십전정도로 매수교섭도 일단락을고하게 되엿다고한다 이상과가튼여러조건으로 급속도의발전을 보계된 대성진의 리면상은 어떠한가 현경기와 인구의 격증으로인하야 집세가 배이상비싸지고 신탄기타모든식료품의 등귀로 일반농민은 크게불안을 늣기고잇다한다

安東縣舊市街堤防

一般大衆에重壓 車輛稅까지增稅

◇……永同郡民의不平

【永同】충북영동군(永同郡)의금년도전긔분 차량세(車輛稅)는 총액삼천칠백구십원으로 부과인원 일천이백사십오명인데 사월말현재로 체납된것이 이원일백칠십이명에 륙백십구원오십전에달하고잇다한다 그런데 차량세에잇서서는 물론 차량종류에따라달으겟지만 대부분이 자전거(自轉車)인데 금번에와서 삼십오전의중세를하게되고 도한전에는 과분으로일시에 납부하게되어 일반납세자들은 춘궁기인 요사이 여간고통을 밧지안는다하며 떠욱이 군당국으로서는 착착 체납처분에착수할모양이라한다 민정들은 위정자의처사에 원성이 놉다한다

小井里驛附近에서 貨物列車脫線

別被害는업다

【小井里】지난이일 오후다섯시경에 제사십칠호화물렬차가 전의소정리간을 통과하는중 소정리역부근에서 긔관차이바퀴가탈선되야 한가간이나 대혼잡을이르키고 다행이 다대한손해는업섯스나 일로인하야 뭉천에서부산행이든 제팔호급행렬차가 소정리역에서 일시가량이나 체재되엿섯다는데 원인은 선로수선하든 공부들의부주의한 관계라고한다

一面一校도猶不足 二次計畫에着手

明年度中으로 三校를 增設

宣川郡當局의新計畫

【宣川】선천군하에 제일차계획으로 일면일교제를 겨우작년까지에 완성되엿음은 일반이다 주지하는바이지만 금번군당국으로부터 제이차로 한면여자과 아울려 심천면월곡동(深川面月谷洞)과 동면일봉동(東面日峰洞)급 선천읍(宣川邑)에 제이보교를증설키로 선천군당국에서 계획하고 명년도부터 착착진행할터이라고한다

實修校開校式

【寶城】지난달이십팔일오전에전남 보성읍내 명륜당가교사 (明倫堂假校舍)에서 보성공립농업실수학교(寶城公立農業實修學校)개교식과 입학식을 거행하얏는데 래빈 학부형등 다수참석으로 성황을 이루엇다한다

安岳

全朝鮮男女自轉車競技

◇時日 六月二十一日、二十二日兩日間(每午前十時)

◇場所 安岳公設運動場

◇主催 安岳輪業者親睦會

◇後援 朝鮮日報安岳支局

"米穀統制目標" 專賣制로落着?

◎申泰翊

그런데 過剩米의自治管理에 잇서서는 두가지의方法을 쓰게되어잇다 卽

▲第一次統制(從來의臨時統制)에 內外地를 通하야 過剩米가 잇다고 推算될境遇에 이것을 日本內地三五%, 朝鮮四三%, 臺灣二二%의 比例로 配定하여 가지고 이것을 各各 生産者團體인 米穀統制組合及聯合會가 代行)에서 自治的貯藏케하라는것이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朝鮮에잇서서 그 配定比例四三%의 過剩米數量을 가지고 各郡島에 小作農民, 自作農民과 小作料를 밧는地主를 한뭉어리로 한 米穀統制組合으로하여곰 自治的管理를 하도록 하라는것이다 그러므로 가령 三地를 通하야 過剩米數量이 五百萬石으로 推算된境遇에는 日本內地百七十五萬石, 朝鮮二百十五萬石, 臺灣百十萬石이 各各 自治的管理의 數量으로된다 이點에잇서서 朝鮮의 過剩米配定이 가장 만흔 比例로 보아서 이法의主眼이 朝鮮米에 잇슴을 짐작할수잇다

이와가티 指定한 行政區域內마다 一個의 米穀統制組合을 設置할에는 어떠한內容으로 되는가 하면 이法의名稱에依하야 自進的看做로서 그組合이 設立되어야 할이 當然한일이다 그러므로 이法에는

(一)一定한行政區域內에 組合員資格을 가진사람의 三分二以上同意에依하야 設立

이처럼 처음부터 組合이 自治的으로하는 보편다 그러나 다음에는

(二)行政官廳의命令으로써 米穀統制組合을 設立하게할 뒤에는 이組合은 强制的으로되야 그區域內의組合員資格者는 自意如何를 不問하고 모두 組合에 加入하여야만될

이와가튼 條項이잇서서 統制에는 어데까지나 名稱만「自治」的인것을 밝히 알수가 잇다 이것을 다시말하면 가령 指定區域에잇서서 組合員資格者의同意가업서 그組合이 設立되지못하는境遇에는 이것만으로 끄치는것이 아니라 이때에는 行政官廳에서 命令으로 組合을 設立케하는마당 組合員資格者의 意思여부는 어떠케하여 되고마는 그러고 組合員資格者의 意思에 依하여서거나 또는 行政官廳의 命令에 依하여서거나 어떠케하여서 組合을 設立하여야 强制的으로 組合에 加入하지 안흘수 업게되어잇슴으로 이法은 實質的으로 "官治"이다.

×

이米穀統制組合은 朝鮮內各郡島에 散在케될것임으로 이것을 서로 連絡하는 機關의必要를 늣기게된다 그래서 이組合의 連絡機關은 朝鮮이아니고서 볼수업는 金融組合의 連絡機關과 가튼系統으로 맨드러진다 卽

(四)米穀統制組合을 單位로 地方米穀統制組合聯合會가 各道單位로 잇고 다시 이地方米穀統制組合聯合會를 單位로한 中央米穀統制組合聯合會가 朝鮮金融組合聯合會와 가티 京城에 잇서 各道聯合會와 連絡을 取키로 되어잇다

그러므로 마약過剩米를 配定比例 四三%를 가지고서 이것을 各地方聯合會에 配定을 하게되고 다시 中央聯合會에서는 各地方聯合會에 配定하게되며 그 地方聯合會는 그管內의 各米穀統制組合에 配定케되며 그 組合員에게 各各그數量을 配定하여 이로써 本格的 過剩米管理에 드러가게 된다。

×

以上의 階段을 밟어서 過剩米數量은 貯藏케되어야 하고 이쌀은 어느때까지 그대로 自由放賣의 技能을 일코잇슬것이냐고 하면 이와가티 貯藏케하는 過剩米가 잇는境遇에는 이法이 發動되는것이라는 그 이法의 適用을 解除하는 時期도 米價가 最高價에 잇슬때에 限하는것은 當然한 結果이다 그래서

「最低公定價以上 二割의 高價가되엇슬때에 解除」

이라고 規定되어잇다 이것을 다시말하면 今年米穀年度에 잇서서 過剩米를 自治管理한다고 할境遇에는 今年度의 最低公定價가 二十四圓八十錢임으로 이價格以上二割卽 五圓二十六錢을 그價格에 加算한 三十圓〇六錢이 그管理米의解除價가 되고말아 따라서 米價가 三十圓〇六錢으로 되면 自然 管理米는 解除를 볼것이다(續)

生産費過大評價가 論議의主要點

明五日開催될繭基準價協定

蠶業家側도列席傍聽

繭基準價格協定會議는 午前부터 總督府에서 열릴터인데 從來는 製絲協會側代表와 各道의 蠶業主任官으로만 開催되엿스나 各道의 蠶業主任官이 蠶業家의利益을 代表한다는것은 不當하다는 輿論이 잇슴은 關係로 今後는 蠶業家側代表도 參加케할 前提下에 今番에는 蠶業家側代表로 南朝鮮 主蠶道의 蠶業組合長數人을 會議에傍聽케한것은 發言權은 못가진다해도 從來會議보다는 多少의 進步를보이엿다할것이다 그러면基準價는 어떠케協定될것이냐 計算의 基本이되는것은 橫濱生絲市勢와 製絲生産費인데 生絲市勢는 約十日前까지도 七百圓台이든것은 今日에先限六百三十五圓 當限六百二十四圓으로 低落을 보앗슴으로基準價協定에 적지안케影響할모양이나 先限이놉고 압흐로도多少市勢가强할것임으로 實際取引에는크게關係되지안흘것으로 보이고잇고 問題의生絲 生産費는 日本內地에比하여 朝鮮은 恒常倍나놉흔 卽昨年만해도 日本內地의百二十圓에對하야 朝鮮은 一百三十圓으로되엿섯는데 그와가티 놉흔 原因으로 製絲家側이 主張하는 바를 듯건댄 朝鮮은 燃料가高價이고 金利가놉고 女工의訓練이업고 能率이 적다는것이다 近年에와서는 以上의 難條件도 漸次 解消되고잇는터임으로 언제까지나 前記條件에 依하야生絲生産費를 놉히잡을것으로 今般會議에도 이點이 論議의中心點이될것이다 또今年의 蠶業界를보면 日本內地는 春期에 桑葉의被害도잇서서 掃立枚數도 六分假量減하엿고 또朝鮮은 掃立枚數가 六分假量增加를 보앗다고는製絲家의原料繭이不足한때라 基準價도 從來보다는 低下식히어잡을 目을 놉힐이 當然하다는 說이놉은 目이 七、八掛差를 두는것이常例임으로 日本內地와의 三十五掛에對하야 朝鮮은 二十七、八掛로되지안흘까하는說은 잇스나이보다는 多少놉히 보지안흘수업다는것이 蠶業家의主張이다

繭基準價 對策協議

製絲協會에서

朝鮮製絲協會에서는 五日 열릴總督府의 春繭基準價格協定에對한 協會側의 態度를 決定키爲하야 四日 午前十一時부터 齋藤會館에서 評議員會를 열고同午後一時부터 臨時總會를 열어 意見을 交換하엿는데 協會側으로서는 二十五掛以內를 要求할 모양이다 그러고問題의日本蠶絲中央會要求에基하야 輸出生絲의神戶、橫濱經由問題도 協議하엿다고 한다

全南地方의共販 來七日로부터開市

南朝鮮地方에는 春繭이 나오기始作하는데 總督府入電에依하면全南에는 五日의 基準價協定을 본다음 七日부터 共同販賣가開市될터이라하며 其他地方도 繼續開市될터로 南朝鮮은 이로부터 繭取引으로 農村都市가 相當히 緊張할터이다

天草繭初取引

【熊本電話商通】九州의 早場天草繭市場의 新繭取引은 昨年보다 十日이느저 三日 午後三時半부터 開始되엿는데 頭上不良으로 出荷가 적어서 六十貫의 出廻를 보앗다 買受者는 近江의 若林製絲外에는 大農買受者가업고 地方二流仲買人이 多少參加하야 例年에 比하면 大端히寂寞한 感이잇다 市勢는三圓九十錢으로 大體郡是市勢이다

鐵道荷動狀況

鐵道局線 五月下旬의 荷動狀況은 前旬에 比하야 依然 堅調로 聚、大 ...

最高價	四、二〇〇
低價	三、六八一
買驛目	三、九八一
掛	十一掛가량

... 에 應하야 이亦是 二倍의數字를 示하고 石炭과 白茂線等의 木材가 三五%의 增加로 總出貨量은 二十九萬六千二百噸이며 前年同期에 比하야 六萬四千七百六十一噸、三〇%의 增加이다

京城組銀 預金貸出

五月三十一日現在의 京城組合銀行의 預金貸出은 預金一億五千五百七十一萬六千圓으로 五月十五日現在에 比하야 九百十二萬四千圓의 減少이고 前年同期에 比하야 四百六十九萬七千圓의 增加를 示하얏고 貸出은 一億六千三百七十一萬六千圓으로 五月十五日現在에 比하야 一千二百八十二萬七千圓의 減少로 前年同期보다는 二千一百三十六萬四千圓의 增加이다

滿鐵社債發行 限度의擴張改正

【東京電話同盟】對滿事務局發表에 依하면 政府는 今回滿鐵의 要望을 들어서同社社債發行限度擴張을 行하기로 되엇는데 右에 關한 明治三十九年勅令第百四十二號 第十一條의 第二項 『社債總額은 拂込株金額의二倍까지할수잇슴但 그額은 資本總額을超過함을不得함』을 改正하야 右但書를削除하기로 公示한다 그러고 現在拂込金額으로서도 滿鐵의社債發行限度는 十一億六千八百萬圓으로 昭和十二年度에 限한 民間株式未拂込金額을 徵收하면 實際 十三億一千二百萬圓 資本金 八億圓을 超過하려면 五億一千二百萬圓의 擴張이 可能한이라한다

朝鮮麥作收穫은 三割減少의豫想

各道冷害가深刻!

今年度의 麥收穫은 目下 六月一日現在로 各道의 實收額을 集中으로 六月頃에發表할豫定인데 今日의 冷害가 麥收穫에 미치는 影響이 豫想外로 大하야 一般에 今年의 減收는 二割程度로 推定됨을 不拘하고 三、四道의 報告를 보드래도 被害가 深刻하야 平均三割程度의 大減收가 豫想될터이라한다

米日爲替暴騰

【東京三日發同盟】三日의米日爲替는 前日에 比較하면 賣 二十九弗四十六仙으로 十五仙高 買 二十九弗四十三仙으로 十四仙高

"法貨大暴落出現"

佛國政變을압두고 英爲替資金의出動

【倫敦二日發同盟】佛國의政變을 압두고 靜止狀態가 繼續하든法貨는 三日午前에 俄然 賣物이殺到하야 英佛爲替는 七十六法의 難關을 突破하야 七十六法二十八로 一九三四年八月以來의 高價에 達하야 法貨의 暴落을 反映하엿다 法貨의暴落에 따러 서弗、길다、馬克、瑞西法貨도 一齊히 떠러저 强調를 繼續한다 벨가貨는 急落하야 英米는 前日보다 一仙十六分十五高의 五弗一仙十六分十五、英蘭은 一、四分三高의 七길다四十四分三、英獨은 三포인트高의 十一馬克、英西는 六포인트高의 九十五法九十四로 外國爲替는 全然 混亂에 빠젓스나 英國爲替資金의 出動으로 英佛은 七十六法二十一까지 多少急한形勢를 緩和케하엿다 (單貨은法貨)

金通貨不安 倫敦恐慌狀態

【倫敦三日發同盟】三日午前의倫敦의 外國爲替業者는 全然 恐慌狀態에빠지고 電話線이라는小電話線은 모두 金通貨를 磅으로 換算하라는 大陸方面의 賣注文에 依하야 占케되고 그結果 또 金通貨는 暴落、磅貨는 急奔騰을 나타냇다 佛國의 政變을 目焦에 압두고 金通貨에 對한一般의 不安이 더욱增大되는 이때에 巴里의勞働爭議는 追日 燎原의火와가티 各地에波及하야 同盟罷業까지 發展할念慮가잇서서 注目되다

金뿔럭危機對策 和蘭의大幅利上斷行

【암스텔담三日發同盟】和蘭銀行에서 三日公定割引利率을 三分半에서 四分半으로 大幅引上하야 四日로부터 實施하겟다고 發表하엿다 同銀行은 金뿔럭危機에際하야 (五)月三十日 二分半에서 三分半으로 引上하엿는데 資本의逃避를 防止코저 이번의 第二次利上을 斷行한것이다

▲東京爲替(四日)

	賣	買
對米	二十九弗七十六分五	二十九弗七十六分七
對英	一志二片三十二分一	一志二片三十二分三

▲大阪爲替(四日)

	賣	買
對米	二十九弗八分一	二十九弗八分三
對英	一志二片三十二分一	一志二片三十二分三

經濟界消息

殖銀有價證券 五月三十一日現在 京城組合銀行 有價證券手持는 一億三千八百九十四萬一千圓으로 五月十五日現在에比하야 四十三萬五千圓의 減少이고 前年同期에 比하야 四千四百八十三萬七千圓의 增加이다

○鐵道局賞與金總額=鐵道局의本年上半期의 賞與金總額은 九十萬圓으로 來十五日 發令과 同時에 現金을 支給하기로되엇다 賞與金額은 昨年上半期에 比하야 增加하엿는데 從業員數가 昨年보다 二千人增加하야 一萬九千人이 됨으로 各人別로보면 僅少한增加이라고

○日本製粉鎭南浦工場決定=日淸製粉은 일즉이 鎭南浦에工場을新設하려고 計劃中이엇는데 日粉工場隣接地를 買收하야近近工場建設에 着手하기로되엇는바 그能力은바렐이라고

各移出港在米量 ◇……百六十四萬石

全朝鮮主要港의 五月末現在 在米高는 百六十四萬四千四百七十八石(政府米量除함)으로 前年同期에比하야 二十九萬五百十六石의增加 前月末보다 二萬二千四百五十四石의 減少인데 그內容은 다음과갓다 (以下單位石)

日本內地米	一、五九九
租	五八二、七八三
玄米	九九〇、八六五
白米	六四、二二五
糯米	五、一一四

그러고 各港別은 다음과갓다

港	日本內地米	正租	玄米	白米	糯米	計
▲釜山		六二、〇三四	一八六、九七四	三四、三四一	三六	二八三、三八五
▲馬山		一四、九六〇	一八、八一〇	六、二七〇		四〇、〇四〇
▲麗水		二二、四二二	一四、〇一七	七七五		三七、二一四
▲木浦		二四、四〇六	二九、九六八	三一五		五四、六八九
▲群山		三七、九三〇	一九七、九八四	一、三九三		二三七、三〇七
▲江景		一九、六八四	一八、三六七	一〇〇		三八、一五一
▲仁川	一、五九九	二四、八〇四	三二二、九六二	二八七	五、〇七八	三五四、七三〇
▲鎭南浦		二八三、二二八	二〇九、七五五	二五、五四一		五一八、五二四
▲元山		三、三一五	二、〇三〇	五、〇九三		一〇、四三八

米倉在米數量 百八萬二千石

米倉의 一日現在 在米高는 百〇八萬二千八百七十五石으로 前年同期에 比하야 二十萬六千四百四十八石의 增加、前月보다 四萬九千九百二十八石의 減少이엇다 (以下單位石)

釜山	二〇四、九一三
馬山	一九、五四六
麗水	一四、九七一
木浦	一〇二、九四三
群山	一八三、六〇七
江景	二六、七〇五
仁川	三三四、六五五
鎭南浦	二〇二、九六七
元山	三、五六八

今日財界(四日)

◆米 仁川期米 先限 / 大阪期米 先限 / 正租(仁川)一等 / 京城白米(上)一等 [illegible]

◆株 朝新 / 東新 / 日産 / 大阪綿絲 / 大阪人絹 / 大阪綿花 / 大阪砂糖 / 現 [illegible]

◆市中金融 [illegible]

取引停止 (六月一日)

京城府旭町一丁目 一九五番地 若松壽作

○ 法的危機乃至金뿔럭崩壞도 …問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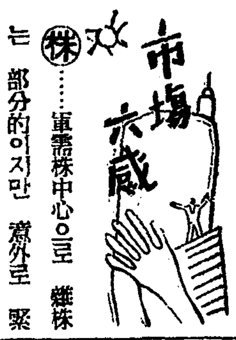
○ 이消息은 귀가 압프도록 드른만큼 新奇치안타

○ 그러나 問題가 크고 또 이번의 情勢는 從來보다 가 顯著히 잇는모양임으로 輕視할수업서

○ 明日부터 繭基準價를 總督府에 모혀서 協定한다고

○ 이번에나 農家의事情을 參考해줄는지 그러나 모를일…

市場六感



株……軍需株中心으로 雜株는 部分的이지만 意外로 緊調를 示하야 選擇買도 相當하다 ▲어떠튼지 東新이 氣鈍함으로 全般의氣分은 떨기어려워 ▲東新이 從來 先導 乃至 빠로메터로서의 優越을 일허가는 時代의 推移는 어떠케할수업스나 이것은 代身할만한것이 업는것도 東實 ▲그러므로 去勢的東新을 보고 人氣가 積極性을 缺하는것도 亦是當然한듯 ▲當分은 材料슴의 雜株나 物色할수밧게업다 ▲그러나 目前的小利에 끄칠것을 前途에 産業統制와 增稅를 압두고서 참말 採算이 疑問임으로 長期投機는 考慮할바!

米……政府米의拂下與否에 對하야 軟派는 짐짓期待하는모양이나 頭上天候의 作戱로보든지 又는在米의 枯渴로보든지 入札拂下는 疑問 ▲部分的으로 賣却된 數量이 二十三萬石이나 되엿스니 이러한 方式으로써 拂下하는것도 爲政者의 一妙策▲何如間當分大量拂下를하지안흘것으로 보는 것이 恰悧한편 ▲今朝阪地三十三圓八十錢臺의 小落도不拘하고 當地는 好雨를 齎來할듯하든 天氣의 快晴으로 買氣旺盛하야 阪仁의 鞘는二百丁未滿으로漸少 ▲此縮鞘의訂正은 阪地市勢가 昂騰한後의 일일것을 記憶하여두는것이如何?

商況 (四日)

株式急喚起의買氣

前場底强 今朝에 朝新은 八十錢低의 十六圓十錢 東新은 百五十四圓八十錢 日産은 二十錢低의 七十二圓五十錢 大新은 七十三圓二十錢의 各低寄付가잇슨뒤 反强의步調로 東新은 一圓高 日産은 三圓高를 示하고 大引에 東新百三十一圓九十錢 日産七十三圓十錢 朝新二十六圓二十錢의 各高價大引으로 底强味가 相當하엿다

後場暴騰 前場의 騰勢가 今場에는急激하야 東新百三十四圓 ...

內外形勢靜觀

佛國의新內閣이 再禁止를 斷行하느냐 平價를 切下하느냐 함은 오즉 注目을 끄으는 點이며 또 北中의 增兵에 伴하는 日中關係의 前途가 念慮되는一面 增稅가 分明치 못하야 이에對한 不安材料가 잇서서 民買人氣가 優勢가 되는터이다 그러나 新規의 買材料만은 아즉 업슴으로 大崩은 생각할수업고 또는 金利로 因한 雜株買가 相當하야 市勢의 底意는 强味를 띄게되다 要컨대內外의 形勢를 靜觀하고 一面玉整理를 기다려 押目買를 하는것이 賢明의 策이라고한다

波瀾性의培養?

低金利를 背景으로한 物色買가 漸次普遍化한다고 보는 傾向이 잇지만 이로써 投機株까지 끌고 買氣圈內로 드려가겟느냐고 하면 이에對하야는 아직 만흔 疑問이잇슴으로 高價의 買進은 좀생각할일이다 卽 取引所法改正에伴하는 過當投機의 抑制를 보게되면 東新의生命은 거의일케될것이다 그러나 東新百三十圓關門支持의 防買가 相當한만큼 無碍한崩壞도 어려운商情이다 그러므로 結局環境事情이 不透明한만큼 兩方이 積極을 回避하는 一面에 靜中動의 波瀾性을 不絶之間에 培養하는結果가되지안흘가 하는所見이 잇다

實物前場取引

▲滿洲製粉三〇〇▲同新五〇▲高鋼七三〇▲도련치鑛業二〇八〇▲新興人絹二一五〇▲日滿석미四五〇〇▲川崎造船三六五〇▲滿洲化學二五〇〇▲石川島新四八五〇▲合計二〇〇〇〇枚

東京債市場

甲 五分利	一〇〇、九五
一回四分利	一〇〇、三五
二回四分利	一〇〇、三五
佛貨四分利	一九七、七五

大阪國債市場

甲五分利	一〇〇、八五
一回四分利	一〇〇、四〇
二回四分利	一〇〇、五〇
佛貨四分利	一九七、八五
米貨六分半	三九〇、八〇

米期 不熄의買募

前場爆發 昨後場阪地三十一 ...

當地旱魃市勢 單獨高價演出

朝鮮의天候는 一週日以上이나 旱魃을繼續함에 當地買氣又一層旺盛하야 二百四、五十丁이나 擴大되엿든 阪仁의鞘가 二百丁에까지 縮少하더니 一昨日부터昨日까지의 兩日間曇天으로 反히賣氣旺盛하야 二百廿丁으로 다시 擴大되어 動亂一落을示할듯하엿다 그러나 處處의好雨를 齎來할듯하든 天候는 元山、平壤의北朝鮮一部와 濟州島、南海岸一部의小雨를 催하엿슬뿐으로 其他는細雨濕衣의程度에 止하고 今曉부터快晴됨으로 買氣依然熾烈하야 今朝阪地卅三圓八十八錢인 四丁反落을 報하엿슴에도 何等의 餘響이 업시當地는 卅一圓九十二錢인 一躍十七丁의高價를보이엇다 此阪仁 ...

公定米價不遠 突破는時間問題

茨城縣二等米를 基準으로한 最高公定米價三十二圓二十錢은 堂島取引市場의 標準米인 攝津三等米와의 株算으로 堂島米價三十四圓八、九十錢에 該當하게됨으로 昨今의 市勢로보면 公定價의 距離가 百丁바게 남지안흘엇다 그럼으로 買方은 勝入的行動을 加하지못하고 警戒自重하는모양이나 그러나 米界의 情勢라든지 天災期에 直面된 今日의天氣라든지 到底히 低落을 許할 餘地가 업슴으로 賣方으로서도 또한 警戒를 要하지안흘수업다 그럼으로 公定價格의 突破는다만 時間問題에 止할뿐임으로 不遠한將來에 一大爆發市勢가 잇슬것을 足히 豫期할수잇다 弱氣側은 詰必稱政府米의 大量拂下가 잇슬것으로 짐짓 期待하고잇스나 그러나 高米價를 招致할 强材가 發生할수록 政府의 拂下를 遲延케 할것임으로 大體 大勢는 數段의 騰騰을 免치 못할모양이다

後場續强 前場보다 二錢高인 三十一圓九十錢에 始付하야 ... 十二錢까지 ... 八十八錢에 ... 하엿다

三圓九十二錢止와 共히 三十一圓七十五錢에 導入하야 今朝에入하야 阪地初付三十三圓八十八錢인 四丁反落을 報하엿스나 夜來의天氣快晴으로 ... 三十一圓九十二錢인 十七丁暴高로 ... 大阪八十四錢으로 ... 八十八錢에 ...

木浦强含 期米는 ... 正租 ... ㊀三等三十一圓 ... 一等白米十三圓

京城强硬

三等 三十一圓四十七錢 一等 三十二圓八十錢 定期는 騰勢一服의 形勢인데 市中人氣는 依然 强硬하엿는데 ㊀三等三十一圓 同四等三十圓七十錢

釜山保合

依然高價는 警戒가업스나 當用實需買에 底意强인으로 ㊀三等三十圓九十錢 四等 九圓六十錢 一等白米 十二圓九十八錢

大邱不變

定期保勢를唱하야 價格은 繼續不變이나 中間端境高를 엿보고 所持側態度는 强硬하야 ㊀三等 三十圓五十錢 四等 三十圓三十錢 一等白米十二圓五十錢

群山强調

定期의上鞘維持와 新規賣物不足으로 市勢만 强硬하야 十錢高를唱하야다 ㊀三等三十一圓四十

仁川强硬

日本內地의 買氣는 적으나 淸算期近의 强調를 示하야 十錢가량高唱이엇는데 ㊀ ...

各地正米

▲賣方=中東側 地場弱氣 中谷

正米側

▲買方=地場 小口側 朝鮮側

堂島前場保合

【大阪電話】最高米價로 因한 政府古米의 買入申請續出로이의全面化가 豫想되는 突破한 情勢로보아 政府拂下는 不遠하다고하고同時 政策觀念이 再燃하엿는데 政府의態度가 매우注目되다

朝取期米取組內容

朝鮮의 天候가 自今十日以上 旱魃을繼續하는때는 朝鮮의 各地市場은 勿論 日本內地의 各市場에까지 影響이 波及되어 最高公定米價를 突破하고도 오히려 餘勢가 强하지안흘가한다

◆賣方 ◆買方 [illegible]

木浦强含

... 正租高의 ... 反面 ... ㊀三等三十一圓 ... 一等白米十三圓 ...

株式 米期 玉 柳來植商店 仁川府本町四丁目 電話 五二六 七三八 七七三

米 仁川 東益商店 株 金益證券株式會社 光

朝鮮紙物都賣 北 全北企業株式會社 京城府仁寺町二五六番地 電光七四五番 振替京城二四一八〇番 支店 全州府本町一丁目 電話一五四番 兼委託販賣

金融 四日

◆海外經濟◆ ◆朝鮮銀行券◆ ◆日本銀行券◆ ◆京城手形交換高◆ ◆東京金利◆ ◆大阪金利◆ [illegible]

◆對外爲替◆ ◆金買入價◆ ◆東京市中金價◆ ◆京城市中金銀價◆ ◆京城正米◆ [illegible]

◆仁川正米大豆◆ ◆京城雜穀◆ [illegible]

商品 四日

◆京城綿絲布市勢◆ ◆京城綿布◆ ◆麵油冲價◆ ◆鹽粕冲價◆ ◆카코丑期米◆ ◆日本麥粉市勢◆ ◆滿洲商況◆ ◆大連特產市勢◆ [illegible]

期米 四日

◆大阪短期◆ ◆大阪短期取組◆ ◆大阪長期◆ ◆朝取短期◆ ◆東京短期◆ ◆東京短期取組◆ ◆東京現株◆ ◆朝取短期賣買高◆ ◆取期米◆ ◆朝取期米賣買高◆ ◆朝鮮內各地期米◆ ◆大阪期米◆ ◆大阪正米標準價◆ ◆大阪期米取組◆ ◆大阪市中在米高◆ ◆東京期米◆ ◆日本各地期米◆ ◆各地正租市勢◆(單位錢) [illegible]

商品 四日

◆大阪綿絲◆ ◆大阪綿花◆ ◆各地人絹◆ ◆橫濱生絲◆ ◆大阪砂糖◆ ◆海外砂糖◆ [illegible]